

# 빌딩형 구금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11년 11월 21일

연 구 진 : 윤 옥 경(경기대학교 교수)

김 성 언(경남대학교 교수)

연 구 보 조 원 : 우 영 기(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이 보 람(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석사과정)

홍보나벤처라(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석사과정)

김 남 진(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과 석사과정)

박 정 운(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과 석사과정)

박 지 희(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학과 석사과정)

# 목 차

I. 서 론	1
1. 조사목적	3
2. 기대 효과	4
3. 조사항목	4
4. 조사방법	5
5. 조사대상 구급시설 및 조사일정	5
II. 조사결과	7
1. 요청자료 분석	9
2. 현장 방문 조사	37
3. 면담조사	51
4. 설문조사	77
III. 개선 방향	183
1. 채광의 문제	185
2. 통풍과 환기의 문제	186
3.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문제	187
4. 세탁물의 세탁과 건조	188
5. 식사 공간의 문제	188
6. 수용자 급식비의 인상과 식단의 다양화	189
7. 운동공간과 운동시간 등의 문제	190
8. 인권친화적 구급시설의 설계	191
■ 첨부자료	193

## 표 목 차

<표 I-1-1>	구급시설 유형별 진정사건 현황 .....	3
<표 II-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성별·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	9
<표 II-1-2>	수원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	10
<표 II-1-3>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	11
<표 II-1-4>	수원구치소의 2011년 수용자 식단의 요일별 1일 칼로리 (1월, 7월) .....	14
<표 II-1-5>	서울지방교정청 관내 구치소 수용자 운동시간 현황 .....	21
<표 II-1-6>	수원구치소 각 수용동별 방열기 설치 현황 .....	23
<표 II-1-7>	인천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	25
<표 II-1-8>	인천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단가 추이 .....	28
<표 II-1-9>	울산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	30
<표 II-1-10>	울산 구치소 주요 구역 실내 온도 및 습도 .....	32
<표 II-1-11>	울산 구치소 수용자용 목욕 시설 현황 .....	33
<표 II-1-12>	울산 구치소 요일별 수용자 1인 1일 평균 부식비(2010년) .....	35
<표 II-1-13>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	36
<표 II-2-1>	현장점검 결과 요약 .....	40
<표 II-2-2>	현장점검 요약 .....	46
<표 II-3-1>	면담 대상자 .....	51
<표 II-3-2>	면접대상자 .....	60
<표 II-3-3>	면담 대상자 .....	66
<표 II-4-1>	성별 .....	77
<표 II-4-2>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77
<표 II-4-3>	연령대 .....	78
<표 II-4-4>	학력 .....	78
<표 II-4-5>	혼인상태 .....	78
<표 II-4-6>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	79
<표 II-4-7>	거실인원 .....	79
<표 II-4-8>	오기전 건강상태 .....	79

<표 II-4-9>	현재 건강상태 .....	80
<표 II-4-10>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	80
<표 II-4-11>	종교 .....	80
<표 II-4-12>	죄명 .....	80
<표 II-4-13>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	81
<표 II-4-14>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	82
<표 II-4-15>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	82
<표 II-4-16>	밤에 불을 켜었을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	83
<표 II-4-17>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83
<표 II-4-18>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84
<표 II-4-19>	환기가 안되는 이유 .....	84
<표 II-4-20>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	85
<표 II-4-21>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	85
<표 II-4-22>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	85
<표 II-4-23>	화장실 악취 이유 .....	86
<표 II-4-24>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	86
<표 II-4-25>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87
<표 II-4-26>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	87
<표 II-4-27>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88
<표 II-4-28>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88
<표 II-4-29>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	89
<표 II-4-30>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	89
<표 II-4-31>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90
<표 II-4-32>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90
<표 II-4-33>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91
<표 II-4-34>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91
<표 II-4-35>	선풍기 작동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	91
<표 II-4-36>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92
<표 II-4-37>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93
<표 II-4-38>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	93
<표 II-4-39>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93
<표 II-4-40>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	94
<표 II-4-41>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	94
<표 II-4-42>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94
<표 II-4-43>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95
<표 II-4-44>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	95
<표 II-4-45>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	95
<표 II-4-46>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	96
<표 II-4-47>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96
<표 II-4-48>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97
<표 II-4-49>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	97
<표 II-4-50>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	98
<표 II-4-51>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	98
<표 II-4-52>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	98
<표 II-4-53>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	99
<표 II-4-54>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	99
<표 II-4-55>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	100
<표 II-4-56>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100
<표 II-4-57>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01
<표 II-4-58>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101
<표 II-4-59>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	101
<표 II-4-60>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02
<표 II-4-61>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	102
<표 II-4-62>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03
<표 II-4-63>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3
<표 II-4-64>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	104
<표 II-4-65>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	104
<표 II-4-66>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	104
<표 II-4-67>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105

<표 II-4-68>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05
<표 II-4-69>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06
<표 II-4-70>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	106
<표 II-4-71>	운동시간에 혼자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십니까? .....	106
<표 II-4-72>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	107
<표 II-4-73>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07
<표 II-4-74>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08
<표 II-4-75>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08
<표 II-4-76>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08
<표 II-4-77>	귀하의 성별은? .....	111
<표 II-4-78>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111
<표 II-4-79>	연령대 .....	111
<표 II-4-80>	학력 .....	112
<표 II-4-81>	혼인상태 .....	112
<표 II-4-82>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	112
<표 II-4-83>	거실인원 .....	113
<표 II-4-84>	오기전 건강상태 .....	113
<표 II-4-85>	현재 건강상태 .....	113
<표 II-4-86>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	114
<표 II-4-87>	종교 .....	114
<표 II-4-88>	죄명 .....	114
<표 II-4-89>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	115
<표 II-4-90>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	116
<표 II-4-91>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	116
<표 II-4-92>	밤에 불을 켜었을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	116
<표 II-4-93>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17
<표 II-4-94>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117
<표 II-4-95>	환기가 안되는 이유 .....	118
<표 II-4-96>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	118
<표 II-4-97>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	119

<표 II-4-98>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	119
<표 II-4-99> 화장실 악취 이유 .....	120
<표 II-4-100>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입니까? .....	120
<표 II-4-101>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121
<표 II-4-102>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	121
<표 II-4-103>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122
<표 II-4-104>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122
<표 II-4-105>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	123
<표 II-4-106>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	123
<표 II-4-107>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124
<표 II-4-108>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124
<표 II-4-109>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124
<표 II-4-110>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25
<표 II-4-111>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125
<표 II-4-112>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26
<표 II-4-113>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 피부질환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	126
<표 II-4-114>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127
<표 II-4-115>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	127
<표 II-4-116>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	128
<표 II-4-117>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128
<표 II-4-118>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128
<표 II-4-119>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	129
<표 II-4-120> 비가 올 경우에는 세탁물을 어디서 말립니까? .....	129
<표 II-4-121>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	130
<표 II-4-122>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	130
<표 II-4-123>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130
<표 II-4-124>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131
<표 II-4-125>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	131
<표 II-4-126>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	132

<표 II-4-127>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	132
<표 II-4-128>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	132
<표 II-4-129>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	133
<표 II-4-130>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	133
<표 II-4-131>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	133
<표 II-4-132>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134
<표 II-4-133>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34
<표 II-4-134>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134
<표 II-4-135>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	135
<표 II-4-136>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35
<표 II-4-137>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	136
<표 II-4-138>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36
<표 II-4-139>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37
<표 II-4-140>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	137
<표 II-4-141>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	137
<표 II-4-142>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 .....	138
<표 II-4-143>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138
<표 II-4-144>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39
<표 II-4-145>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39
<표 II-4-146>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	139
<표 II-4-147>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	140
<표 II-4-148>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140
<표 II-4-149>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41
<표 II-4-150>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41
<표 II-4-151>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141	
<표 II-4-152>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수용환경별 특성 .....	144
<표 II-4-153> 맑은 날 낮 시간 거실에 햇빛이 드는 정도 .....	147
<표 II-4-154> 맑은 날 낮 시간 거실 안의 밝기 .....	147
<표 II-4-155> 밤에 불을 켜었을 때의 거실의 밝기 .....	148
<표 II-4-156> 야간 거실 조명의 희망 조도 .....	148

<표 II-4-157> 거실 내 환기 정도 .....	150
<표 II-4-158> 거실 환기가 잘 안 되는 이유 .....	150
<표 II-4-159> 거실의 악취 정도 .....	150
<표 II-4-160> 거실 하수구의 악취 유무 .....	151
<표 II-4-161> 거실 내 악취가 심한 이유 .....	152
<표 II-4-162> 거실 화장실의 악취 정도 .....	152
<표 II-4-163> 거실 화장실 악취가 심한 이유 .....	153
<표 II-4-164> 거실 습도에 대한 평가 .....	153
<표 II-4-165> 세면대 및 화장실 배수 상태 .....	154
<표 II-4-166> 거실 내 곰팡이 문제 .....	155
<표 II-4-167> 거실 내 해충 혹은 벌레의 발생 빈도 .....	155
<표 II-4-168> 거실 소독빈도 .....	156
<표 II-4-169> 화장실 소독빈도 .....	156
<표 II-4-170> 하절기 거실 실내 온도 .....	158
<표 II-4-171> 선풍기의 냉방 효과 .....	158
<표 II-4-172> 선풍기의 냉방효과가 없는 이유 .....	159
<표 II-4-173> 선풍기 가동시간의 적절성 .....	159
<표 II-4-174> 자율적인 냉수 샤워의 허용 여부 .....	160
<표 II-4-175> 샤워 장소 .....	160
<표 II-4-176> 피부질환 발생 여부 .....	161
<표 II-4-177> 거실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 .....	162
<표 II-4-178> 매일 세탁 허용 여부 .....	163
<표 II-4-179> 주된 세탁 장소 .....	164
<표 II-4-180> 세탁 담당 주체 .....	164
<표 II-4-181> 주된 세탁 방법 .....	165
<표 II-4-182> 일반 세탁물 건조 방식 .....	165
<표 II-4-183> 거실 내 세탁물의 건조 상태 .....	165
<표 II-4-184> 침구 세탁 빈도 .....	166
<표 II-4-185> 침구 세탁 주체 .....	167
<표 II-4-186> 구치소 지급 침구의 교체 시기 .....	167
<표 II-4-187> 식사의 양 .....	168

<표 II-4-188> 식사의 질 .....	169
<표 II-4-189>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체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	169
<표 II-4-190> 식사 장소 .....	170
<표 II-4-191> 식사 시간 배분의 적정성 .....	170
<표 II-4-192> 식기 세척 장소 .....	171
<표 II-4-193> 식기 및 수저 보관 장소 .....	171
<표 II-4-194> 거실에서 식사하는 데서 야기되는 불편 사항 .....	171
<표 II-4-195>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 .....	172
<표 II-4-196> 운동의 필요성 여부 .....	173
<표 II-4-197> 매일 운동하는지 여부 .....	174
<표 II-4-198> 매일 운동하는 주된 이유 .....	174
<표 II-4-199>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175
<표 II-4-200> 운동 허용 시간의 인지 .....	175
<표 II-4-201> 평상시 운동 장소 .....	176
<표 II-4-202> 우천시 운동 장소 .....	176
<표 II-4-203> 운동 종목 .....	177
<표 II-4-204> 운동 형식 .....	177
<표 II-4-205> 희망하는 운동종목 유무 .....	177
<표 II-4-206> 희망하는 운동 종목 .....	178
<표 II-4-207> 운동 관련 만족도 .....	179
<표 II-4-208>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 .....	180

## 그림 목 차

[그림 Ⅱ-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	12
[그림 Ⅱ-1-2]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	36

---

---

# I

---

---

## 서론

1. 조사목적	3
2. 기대 효과	4
3. 조사항목	4
4. 조사방법	5
5. 조사대상 구금시설 및 조사일정	5

## I. 조사목적

유엔최저처우기준규칙에서는 생활거실에 대한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주교도소 개소 이후 수원·인천·울산·충주·통영·포항·해남·밀양·영월 등 빌딩형태의 신규 구금시설이 계속 개소되고 있고, 2011. 9.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 등도 신축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규 시설은 대부분 사각, 오각 또는 육각의 빌딩 구조로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는 건축구조를 띄고 있고, 거실과 사동 배치에 있어 일괄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시설되어 수용자 관리 등이 매우 용이한 시설이지만 운동장 시설의 미비, 하절기 습도 과다, 공기 순환 및 냉방, 채광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진정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교도소의 경우 여름철에 거실장판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빌딩 형태의 건물구조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실에서 식사와 세면, 용변, 세탁 등으로 인해 악취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구금시설에서 제기된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884건의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건강·의료 진정이 2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진정이 153건, 조사·징벌·계구사용 관련 진정이 143건, 외부교통권 제한 진정이 105건, 시설·환경 진정이 86건, 폭행·가혹행위 진정이 80건, 기타 진정이 116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금시설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진정이 전체 진정사건 중 10%에 해당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표 I-1-1〉 구금시설 유형별 진정사건 현황

단위(건)

구분		건강 의료	처우 인격권	조사 징벌 계구	외부 교통권	시설 환경	폭행 가혹 행위	기타
연도별	소계							
2011년 (1.1~5.1)	195	39 (20%)	80 (41%)	20 (10%)	19 (10%)	10 (5%)	15 (8%)	12 (6%)
2010년	884	201 (23%)	153 (17%)	143 (16%)	105 (12%)	86 (10%)	80 (9%)	116 (13%)
2009년	830	190 (23%)	166 (20%)	118 (14%)	80 (10%)	116 (13%)	80 (10%)	80 (10%)

※ ( )의 숫자는 해당 연도별 사건의 백분율

#### 4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구급시설의 채광, 환기, 거실식사, 세탁, 운동장 시설, 냉방 등은 수용자들이 진정대상 인권침해행위라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 <표 I-1-1>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많은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으나 그동안 전문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그 동안 구급시설의 구조적 시설과 환경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검토한 사례가 없어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수용자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여 거실에서의 식사 관행을 없애고, 거실 환기, 냉방 및 채광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등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정책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수용자들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 구급시설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선진화된 현대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용자 1인당 급식단가가 1일 3400원 정도에 불과한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단가의 변동도 필요한데 2011년도 급식단가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되어 수용자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시설 방문 및 수용자 면담을 통해 구급시설에서의 수용자 식사의 질과 예산문제 등까지 병행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2. 기대 효과

- 가. 구급시설 내 환경개선(환기, 냉방, 운동장 시설 등)
- 나. 향후 신축 구급시설에 환경을 통한 인권 친화적 건물설계
- 다. 수용자 급식 단가 조정 및 예산증액 등 정책 개선

## 3. 조사항목

- 가. 거실의 습도, 곰팡이 서식, 환기, 냉방
- 나. 거실에서의 식사, 세탁 등 위생

- 다. 수용자 급식 단가 및 음식의 질
- 라. 운동장 시설과 운동 시간, 운동 내용

#### 4. 조사방법

- 가. 방문 교도소 현황자료 수집 및 자료요청(첨부자료 1)
- 나. 수용자와 교도관(부식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첨부자료 2와 첨부자료 3)
- 다. 구금시설의 거실, 식당, 운동장 등에 대해 현장조사(첨부자료 4)
- 라.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첨부자료 5)

#### 5. 조사대상 구금시설 및 조사일정

- 가. 도시형 고층빌딩 구조의 건물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결수 신규 구금시설 중 대표로 수도권 지역인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와 지방권역인 울산구치소 등 3개소를 선정

##### 나. 조사일자

- 1) 수원구치소: 2011년 7월 27일
- 2) 인천구치소: 2011년 7월 28일
- 3) 울산구치소: 2011년 7월 29일

---

---

## II

---

### 조사결과

1. 요청자료 분석	9
2. 현장 방문 조사	37
3. 면담조사	51
4. 설문조사	77

## 1. 요청자료 분석

### A. 수원 구치소

#### 가. 수용 현황

수원 구치소는 1989년 12월 30일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수용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64호에 의거하여 현재의 빌딩형 구치소 건물을 신설하였다.

주요 수용 대상자들은 수원지방 본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수원·인천지방법원 또는 관할지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완화경비 처우급 수형자 등이다.

수용 정원은 1,650명이며 2011년 7월 26일 현재 1,598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 중 미결수가 63.1%, 기결수가 36.9%이며, 남자 수용자가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 신분별 분포를 보면, 피고인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형자(30.4%), 노역수(6.6%), 피의자(1.6%)의 순이다.

〈표 II-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성별·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	
기결	수형자	432	(27.0)	53	(3.3)	485	(30.4)
	노역수	101	(6.3)	4	(0.3)	105	(6.6)
	소계	533	(33.4)	57	(3.6)	590	(36.9)
미결	피의자	23	(1.4)	2	(0.1)	25	(1.6)
	피고인	924	(57.8)	59	(3.7)	983	(61.5)
	소계	947	(59.3)	61	(3.8)	1,008	(63.1)
계		1,480	(92.6)	118	(7.4)	1,598	100.0

주: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수용자(1,598명)에 대한 비율임.

자료: 수원구치소, 2011. 7. 26. 기준.

〈표 II-1-2〉 수원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 수용구분별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18세 이하	19-20세	21-25세	26-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5세	66세 이상	합
기결	0 (0.0)	2 (0.3)	62 (10.5)	46 (7.8)	143 (24.2)	192 (32.5)	127 (21.5)	11 (1.9)	7 (1.2)	590 (100.0)
미결	13 (1.3)	21 (2.1)	54 (5.4)	97 (9.6)	266 (26.4)	321 (31.8)	185 (18.4)	28 (2.8)	23 (2.3)	1008 (100.0)

자료: 수원구치소. 2011. 7. 26. 기준.

수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기결이든 미결이든 모두 41-50세의 비율(각각 32.5%, 31.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1-40세(각각 24.2%, 26.4%), 51-60세(각각 21.5%, 18.4%)의 순이다. 기결수 중 20세 이하의 비율은 0.3%이고, 미결수 중 20세 이하의 비율은 3.4%이다. 기결수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4.1%, 미결수에서의 그 비율은 5.1%로 집계되었다.

#### 나. 급식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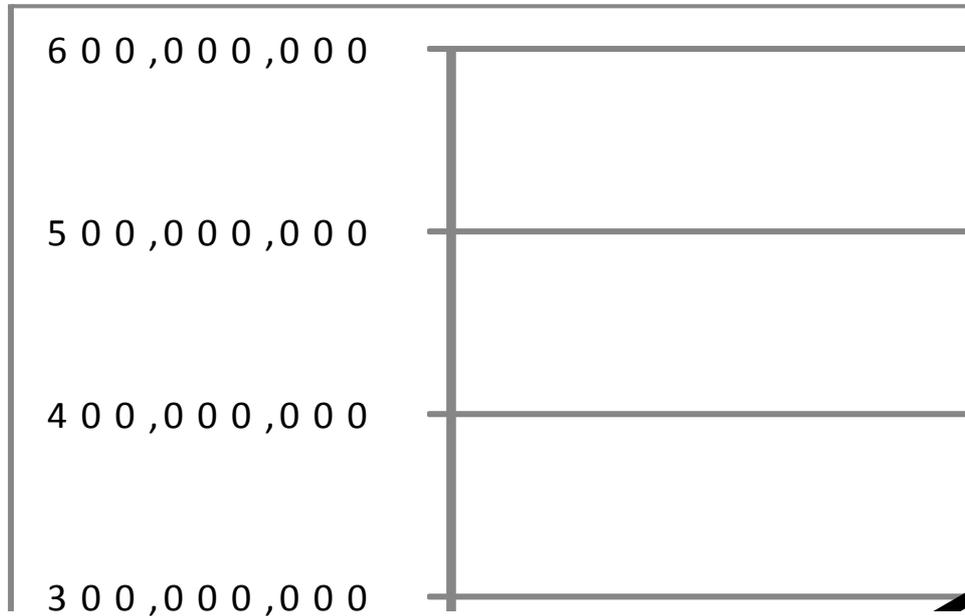
구치소의 급식 운영은 교도관 · 경비교도 급식관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948호) 및 수용자 급식관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949호)에 의거한다. 이에 따르면 수원 구치소의 경우, 일반 수용자의 급량비(주부식비와 연료비의 합산액)는 2009년 3,250원,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3,430원이고, 소년 수용자는 2009년 3,860원, 2010년과 2011년은 3,980원, 구치소에서 양육되는 유아는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4,000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 모두 수용자 1인 당 특별 급식비 1,000원이 추가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외국인 가산금이 1인당 830원, 2011년에는 400원이 추가되었다.

〈표 II-1-3〉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단위: 원)

구분	2008년	전월대비 증가율	2009년	전월대비 증가율	2010년	전월대비 증가율
1월	148,962,060	-	160,729,630	-	68,197,360	-
2월	177,535,110	19.2	240,190,910	49.4	249,272,420	265.5
3월	159,329,270	-10.3	263,773,120	9.8	324,866,380	30.3
4월	128,666,230	-19.2	268,235,150	1.7	336,115,710	3.5
5월	169,366,330	31.6	138,927,190	-48.2	173,253,340	-48.5
6월	152,014,280	-10.2	350,716,800	152.4	497,204,770	187.0
7월	179,819,580	18.3	107,236,060	-69.4	53,621,160	-89.2
8월	125,328,430	-30.3	167,386,880	56.1	108,613,360	102.6
9월	162,073,090	29.3	251,300,090	50.1	112,952,250	4.0
10월	307,154,110	89.5	197,367,270	-21.5	131,732,040	16.6
11월	213,553,030	-30.5	203,360,250	3.0	162,708,250	23.5
12월	266,912,080	25.0	248,603,650	22.2	261,435,460	60.7

지난 3년간 월별 급식비 추이를 보면, 2008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의 1억 2천여만 원에서 1억 8천여만 원의 분포를 보였지만 10월에는 3억여 원, 11월 2억 1천여만 원, 12월에는 2억 7천여만 원으로 급식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의 월별 급식비의 편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5월과 6월의 차이는 무척이나 크다. 2009년 5월의 급식비 총액은 1억 3천 890여만 원이었으나 6월에는 3억 5천여만 원으로 전월보다 1.52배 증가했다. 2010년 5월의 급식비는 1억 7천 3백여만 원이었으나 6월은 4억 9천 7백여만 원으로 전월보다 1.87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 모두 7월에는 다시 급식비가 급감한다. 2009년의 7월 급식비는 전월보다 69.4% 감소했고, 2010년 7월의 급식비는 전월보다 89.2% 감소했다. 8월 이후로는 2009년, 2010년 모두 다시 급식비가 증가하고 있다. 수용 인원의 변화가 이러한 월별 급식비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급식비의 변동은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그림 II-1-1] 수원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

2011년의 경우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 급여액은 3,430원인데, 여기에는 연료비 25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 실질적인 주·부식비는 3,200원인 셈이다. 주식비와 부식의 비중은 시기별 식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1월의 주식비(1,009원) 대비 부식비(2,191원)의 비(ratio)는 2.17이었으나, 7월의 주식비(1,128원) 대비 부식비(2,072원) 비는 1.84로 조금 낮아졌다. 대략 부식비의 비중이 주식비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식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때는 부식비의 범위 내에서 물량으로 조절급식을 하고 있다. 수용자의 식사는 요일별, 아침·점심·저녁별 차림표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수용자의 식사는 1식 4찬으로 구성되는데, 주식은 쌀 90%, 보리 10%의 혼합식이며, 부식은 1인당 급식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구성된다. 급식의 양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외부영양사가 참석하는 급식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1월 달의 요일별 부식물 차림표의 1일 단가를 보면, 일요일이 2,42.1원으로 가장 높고, 금요일이 1,835.5원으로 가장 낮다. 하루의 식사를 비교해보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아침 식사 단가가 가장 낮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면 저녁 식사 단가가 가장 높으며, 일요일은 아침, 월요일은 점심의 단가가 각각

3 월

4

2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식물의 종류는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구급시설의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육류나 어류 등의 단백질 섭취일 것이다. 1월 식단의 경우, 국이나 찌개류에 육류 혹은 어류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는 어묵국 1회, 닭고기무국 1회, 쇠고기떡국 1회, 육개장 1회, 쇠고기무국 1회, 참치국 1회, 계란과국 1회 등 총 7회이다. 3끼 중 1끼니는 육류 혹은 어류가 포함된 국 혹은 찌개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조림 및 무침류를 통해서도 육류·어류 단백질이 제공되는데, 돈육김치볶음 1회, 쇠고기버섯볶음 1회, 돈육채소볶음 1회, 콩치조림 1회, 돈까스 1회, 멸치고추장 1회, 쥐어채 무침 1회, 조기튀김 1회, 삶은 계란 1회 등 총 9회이다. 국·찌개류나 조림·무침류를 통해 육류·어류가 제공되는 횟수는 14회였으며, 아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3회, 점심 5회, 저녁 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 식단은 1월과 다소 상이하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수용자 1인당 1일 주식비는 1,009원에서 1,128원으로 119원 상승했고, 부식비는 2,191원에서 2,072원은 119원 감소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쌀, 보리 등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식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1월 식단에서는 금요일의 단가가 가장 낮았지만 7월 식단에서는 금요일의 단가가 가장 높은 점도 흥미롭다. 7월 식단에서는 아침이 밥, 국 및 2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특징이다. 반찬의 대부분은 채소나 해조류로 구성되어 있다. 7월 달의 아침 식단의 부식비는 1월에 비해 일요일에는 433.5원, 화요일 273.7원, 목요일 268.7원, 토요일 172.3원 감소하였으며, 수요일(20.6원)과 금요일(75.7원)에는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저녁 식사의 부식물 단가가 아침이나 점심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향은 여전했다.

7월의 국 및 찌개류의 구성을 보면, 콩나물국 2회, 어묵국 2회, 근대아육국 1회, 참치국 1회, 콩비지국 1회, 감자수제비국 1회, 북엇국 1회, 배추된장국 1회, 동태국 1회, 쇠고기무국 1회, 닭고기미역국 1회, 쇠고기떡국 1회, 팽이버섯국 1회, 열갈이된장국 1회, 두부된장국 1회, 순두부국 1회, 호박된장국 1회, 육개장 1회, 홍합미역국 1회이다. 육류 혹은 어류를 재료로 한 국·찌개류는 1주 21회의 식사 중에서 10회 제공되고 있어 1월의 식단에서보다 그 횟수가 더 많았다.

조림 및 무침류의 구성을 보면, 고추무침 2회, 깻잎절임 2회, 오이지무침 2회,

14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구운김 2회, 마늘쫑무침 2회, 콩조림 1회, 무말랭이무침 2회, 채소샐러드 1회, 김양념장 1회, 돈육김치볶음 1회, 연두부 1회, 콩치조림 1회, 자장 1회, 카레 1회, 오이양파무침 1회, 콩나물무침 1회, 멸치볶음 1회, 생선까스 1회, 삼치조림 1회, 만두튀김 1회, 찻고추쌈장 1회, 오복채 1회, 떡볶이 1회, 깎마늘절임 1회 등이다. 이 중에서 육류 혹은 어류가 포함된 반찬은 5회 정도이다. 7월의 식단 중에서 국·찌개류나 반찬류를 통해 육류나 어류가 제공되는 식사는 14회로 1월과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설날, 삼일절, 광복절 등 국가경축일에는 특별식이 지급된다.

1일 식단의 평균 열량을 보면, 2011년 1월은 2,974kcal이고 7월은 2,795kcal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권장 칼로리가 여자의 경우는 1일 2000-2,300kcal, 남자는 2,300-2,500kcal이라 할 때,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1일 식단의 칼로리는 이보다 조금은 높은 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1-4〉 수원구치소의 2011년 수용자 식단의 요일별 1일 칼로리(1월, 7월)

(단위: kcal)

구분	1월	7월
일	2,974	2,796
월	2,877	2,803
화	2,700	2,879
수	2,899	2,919
목	2,899	2,602
금	2,650	2,685
토	2,822	2,879
평균	2,974	2,795

수용자 1인당 급식비가 3,430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중 230원(6.7%)는 연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곡물이나 부식물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구치소 측에서는 제공되는 부식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식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곡물과 부식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화된 급식비의 책정이 요구된다. 수용자들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의 영치금을 구치소 측에 보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일 2만원 내에서 필요한 물품(생활용품은 제외)을 구입할 수 있다. 수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과자류, 과일류 등 약 160여종이다. 수용자 면접을 통해서 수용자들이 종종 반찬 등을 매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급식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한편, 만성질환자 등 식이요법이 요구되는 수용자를 위한 식단 운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했다. 다만 환자나 몸이 불편한 수용자들을 위해 일반식이 아닌 죽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위생 관리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수원 구치소에서는 식재료 관리와 조리 시설 및 개인위생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하절기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계획(안)을 중심으로 수원 구치소의 위생 관리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식재료 관리

- 식재료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재료를 구입토록 한다.
- 어패류 등 부패하기 쉽고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군의 급식을 지양한다.
- 가급적이면 음식물을 가열하여 신속히 급속토록 하고,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재료별 적정량을 보관 관리토록 한다.
- 육류, 생선 등의 식품은 냉동보관 중에도 변질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토록 한다.
- 비가열 식품인 채소류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배식토록 한다.
- 냉장이나 냉동을 필요로 하는 식품은 냉장고 또는 냉동고 밖에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 16 빌딩형 급수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조리 시에 최소 74°C 이상으로 가열하여 조리하도록 하고, 생선·육류 등은 실온에서의 해동을 금지하고, 냉장해동 하거나 흐르는 찬물에 급속해동 하여 즉시 조리토록 한다.
- 검수관은 식재료 반입 시 검수를 철저히 하고, 영양사 등은 조리 전에 식재료에 대한 품질, 수량, 위생상태 등이 조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한다.

### ○ 조리시설 등의 관리

- 칼, 도마 등의 조리 기구나 용기는 용도별(육류, 생선, 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한다.
- 조리기구 및 급식용기 등은 음식이 접촉되는 표면에 존재하는 식중독 균에 조리한 음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 및 열탕 소독 후 건조하여 사용토록 한다.
- 취사장, 주·부식 창고, 취사도구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 식품 저장고, 저장용기 등은 매일 확인하여 부패, 오염,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변질된 부식물 발견 시에는 즉시 수거하여 폐기토록 한다.
- 식품 창고의 창문 등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접근을 차단토록 한다.
- 식품 창고 등에는 허가된 자만을 출입토록 하여 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주·부식 창고는 청소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바닥, 벽으로부터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냉장·냉동고는 정기적으로 성에를 제거하고 온도계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토록 한다.
- 배식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 음용수 등 환경 위생 관리

- 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한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위생적인 용기에 충분히 공급토록 한다.
- 음용소를 운반하는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 등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 취사 시설 내의 쓰레기통이나 잔반 수거통은 반드시 뚜껑을 사용토록 하고,

조리장소 이외의 곳에 보관토록 한다.

- 잔반 수거통 등은 급식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 구매물 등 음식물 관리

- 빵 등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을 과다하게 구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 먹다 남은 음식물을 취업장이나 거실 내에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교화 행사 시 반입된 음식물은 현장에서 즉시 취식토록 한다.

○ 취사장 등 위생부 수용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등

- 관계규정에 따라 년 1회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은 반드시 의무관의 책임하에 실시토록 한다.
- 정기 건강진단은 실질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원 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 조리시설, 구매물 등의 음식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취사장 등에서 일하는 위생부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염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업체의 의뢰를 통해 시설 내·외부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의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공중보건의 1명과 방역담당 1명(필요한 경우에는 경비교도대 등 보안과 지원)을 반원으로 하는 ‘방역반’에서는 주1회 시설 내·외부에 대한 연막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외부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1년에 5회(3월 21일, 5월 30일, 7월 18일, 9월 19일, 11월 21일) 시설 내외 전역을 분무식 살포 방식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보건소(팔달구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수원시 전역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구외 수목지역 연무소독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장티푸스 등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팔달구 보건소와 업무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시설 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지지원과정을 반장으로 하고 의무관, 영양사, 주·부식 담당, 보안 행정교감, 총무교감을 반원으로

하는 ‘대책반’이 구성된다. 발생한 환자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즉각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역학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때 보존식 및 음용수는 원형대로 보관해야 하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위한 가검물 수거 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한다. 식중독 및 전염병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혼란스런 분위기 때문에 사병 환자가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원인 규명을 위해 자비구입 식품 및 교화활동 등으로 반입된 식료품이 있는지 파악하고, 취사부 및 사동 청소부는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가검물을 채취하여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중독과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구치소의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역할 분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무과는 식재료의 구입과정을 철저히 감독한다. 부패하기 쉬운 구매물을 다량 구매하지 못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구매물 구입 시 유통기간을 확인하여 유통기간이 임박한 물품을 구입·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복지과는 구입한 주·부식 등의 식재료와 조리시설, 조리 및 급식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용수로 끓인 물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한다. 보안과에서는 의료과에서 작성한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실수건을 통해 거실 내에 보관 중인 장기보관식품 등을 수거하도록 한다. 설시 및 복통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교화행사 시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고, 사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구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수원구치소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각 부서별로 식중독 및 전염병 발병 예방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수용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전염병 발병의 위험성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구치소 측에서는 상한 식재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리된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만 한다. 간혹 수용자들이 음식물을 거실에 보관하는 이유는 제공되는 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부식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반찬을 좀 더 넉넉하게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 거실 화장실과 싱크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이외에 수용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거실을 바꾸는 경우에는 특별 방역과 소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할지역(팔달구)의 보건소와 협조하여 장티푸스 등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 자료에는 필요한 경우로 표기되어 있는데, 하절기 혹은 구치소에 처음 수용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라. 운동

고층 빌딩형 구치소의 경우 대개 야외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은 실내 운동장이나 실내 운동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수원 구치소의 수용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1회 30분간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 내용을 보면 맨손체조나 걷기, 달리기 등 운동기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운동은 수용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뿐, 구치소 측에서 별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하여 시행하지는 않는다. 수용자 운동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도구를 마련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 잘 드러나듯이 수용자들은 구기종목이나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원한다. 수원구치소에서는 운동시간에 제기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운동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제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운동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수원 구치소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독거수용자와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홀라후프를 이용한 운동 실시를 검토하였다.

그 검토안을 보면, 가동에 홀라후프 2개, 나동에 3개를 지급하여 수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운동이 종료되면 이를 근무자가 회수하여 보관·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나 자해 혹은 자살,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신체적 공격의 위험성 등은 구치소 측으로 하여금 운동이나 교정 및 재활 프로

그램의 운영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다른 구치소의 경우, 홀라후프가 수용자들이 자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급을 꺼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용자의 교정에 운동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기구의 지급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마. 수용자 목욕

수용자의 목욕은 냉수 목욕과 온수 목욕으로 구분된다. 냉수 목욕은 하절기에 매일 실시되며, 온수 목욕은 10월 초순부터 이듬 해 5월 말까지(2010. 10. 4 - 2011. 5. 31) 동별로 1주일에 1회(가동 화요일, 나동 목요일, 여자사동 화요일) 실시하고 있다. 온수 공급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여자수용자의 경우에는 화요일 외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별도로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발용 온수를 공급한다.

샤워시설 현황을 보면, 남녀 사동별 각 층마다 각각 1개의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남자 수용자용 샤워시설에는 5개의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자 수용자용 샤워시설에는 6개의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냉수 목욕과 온수목욕은 모두 운동을 마친 후 실시한다. 그런데 목욕 시간은 약간 상이하다. 냉수 목욕이나 온수 목욕이나 목욕 시간은 모두 운동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절기에는 30분 운동 시간 속에 10분 동안의 냉수목욕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동절기의 온수 목욕 시간은 30분의 운동 시간 중 20분이 책정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혼거 수용자의 경우 온수 목욕일에는 10분간 운동을 실시한 후, 각 사동 내 목욕탕에서 20분 동안 목욕하게 된다. 온수 목욕일에 독거 수용자에게는 30분 운동에 20분간의 목욕시간이 부여된다. 운동장과 목욕탕이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용부의 경우에는 운동장이 실외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표 II-1-5〉 서울지방교정청 관내 구치소 수용자 운동시간 현황  
(2010년 11월 이전) / (단위: 분)

기관명	평일 운동		온수목욕+운동				비고
	혼거	독거	혼거		독거		
			온수목욕	운동	온수목욕	운동	
수원구치소	30	50	20	10	20	30	고층건물
서울구치소	30	60	20	10	20	60	
성동구치소	30	60	20	15	20	30	
인천구치소	30	60	20	10	20	30	고층건물
영등포구치소	30	30	30	30	30	30	

이처럼 하루 종일 거실 내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에게 1일 30분간만 주어지는 운동시간은 그리 넉넉한 편이 못된다. 더군다나 그 시간 속에는 목욕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적다. 더욱이 전통적인 건축 형태를 띠고 있는 구금시설과 비교했을 때 수원과 같은 빌딩형 구금시설에서의 운동·목욕 시간 구성은 그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빌딩형인 수원과 인천 구치소의 경우 혼거 수용자의 온수목욕 시간은 각각 20분, 운동시간은 10분이고 독거 수용자의 경우는 각각 20분과 30분인데 비해, 비-빌딩형인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혼거 수용자와 독거 수용자 모두 운동 30분과 온수목욕 30분을 할당하고 있다. 이밖에 비-빌딩형인 서울 구치소의 경우 독거 수용자의 운동 시간은 1시간, 온수목욕 시간은 20분이며(혼거는 운동 10분, 온수목욕 20분), 성동 구치소에서는 혼거 수용자의 운동시간이 빌딩형보다 5분 많은 15분이 부여되고 있다.

수원 구치소 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용자 목욕 및 운동 개선방안』(2010. 9. 30), 『독거수용자 운동시간 조정(안)』(2010. 10. 26) 등을 통해 혼거수용자의 목욕·운동 병행 실시일에 운동시간을 10분 연장하여 20분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시간 내에 목욕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구치소 측에서는 보안 감독 인원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운동시간을 연장하는 일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30분으로 할당된 운동 시간 속에는 목욕시간 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장으로의 이동시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온수

목욕이 있는 날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영등포 구치소의 경우처럼 운동시간과 목욕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보다 운동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구치소 측에서는 수용자들이 운동을 하는 도중에 격렬한 몸놀림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거나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수용생활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 시간의 확대는 수용자들의 재활과 처우를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바. 채광과 통풍

하절기에 거실 창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된다. 후레임의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두께는 0.6mm이다. 가로 세로 1인치당 각각 16가닥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방충망의 철사는 코팅을 한 망사를 사용하는데, 750kg/m<sup>2</sup>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강도가 높은 망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충망을 훼손할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 구치소의 수용자 거실은 총 519개(혼거실 266개, 독거실 253개)인데 거실 및 화장실에 각각 외부창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방충망 설치에 따른 채광 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실의 방향 별로 1일 일조량 측정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런 유형의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습도 및 통풍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환기장치는 없었으며, 주기적으로 수용자 거실, 화장실 등의 습도, 실내 온도, 곰팡이 서식여부 등을 점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했다.

## 사. 냉난방

수용자 거실의 냉방을 위한 장치는 거실 천정 중앙 혹은 벽면에 설치된 1대의 선풍기가 전부이다. 거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풍기 1대로 냉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거실의 크기 및 수용 인원에게 맞게 선풍기의 개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동절기 난방을 위해 기계실에서 증기 공급을 하는 중앙 집중식 난방을 실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용동의 복도에는 주철제 증기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다.

수용동의 난방을 위한 방열기의 종류별 설치 개수를 보면, 가동의 1사에는 10s(방열기 쪽수가 10개임) 14대, 15s 94대이고 2사에는 각각 15대, 9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나동의 경우에는 1사에는 20s 54대, 25s 51대, 2사에는 각각 54대, 56대가 구비되어 있다.

〈표 Ⅱ-1-6〉 수원구치소 각 수용동별 방열기 설치 현황

(2011. 7월 현재)

층	가동				나동			
	1사		2사		1사		2사	
	10s	15s	10s	15s	20s	25s	20s	25s
2 <sup>1</sup>	0	0	1	7	0	16	0	16
3 <sup>2</sup>	2	15	2	7	10	5	10	6
4 <sup>2</sup>	2	13	2	13	10	5	10	6
5	2	14	2	14	10	5	10	6
6	2	13	2	14	10	5	10	6
7	2	13	2	14	10	5	9	6
8	2	13	2	14	4	10	5	10
9	2	13	2	13	0	0	0	0
계	14	94	14(15)	89(96)	54	35(51)	54	40(56)

주 1: 병사동  
2: 여자사동

수용동의 난방은 10월 하순부터 이듬 해 4월 초순까지 약 5개월간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난방이 가동되는 시기는 11월 초순부터 이듬 해 3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이다. 작년(2010년)과 올해(2011년) 상반기의 경우,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1일 3시간(21:00-22:00, 01:00-02:00, 04:00-05:00), 2010년 11월 8일부터 2011년 3월 13일까지 126일 동안은 오전 2회(08:00-09:30, 11:30-12:30), 오후 1회(15:30-16:30), 저녁 1회(19:30-21:00), 야간 1회(23:30-01:00), 새벽 1회(03:30-05:00) 등 총 6회 8시간, 2011년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3시간(08:00-09:00, 23:30-00:30, 03:30-04:30) 난방이 가동되었다. 다만 본격적인 난방이 실시되는 4개월 간 병사(病舍) 등 전기온돌 판넬이 설치된 곳에서는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로 낮아지면 전기온돌 판넬을 가동한다. 방열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공장 등)은 석유난로를 지급하며 4월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난방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접견동 난방은 난방기기 가동 기간 동안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시부터 2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온풍기를 가동하며, 민원인 대합실 및 정문 밖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 40분 동안 단독 스팀 보일러를 가동하게 된다. 이처럼 구치소에서는 시기별로 난방시간대와 난방공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아. 세탁

개인 세탁물은 본인이 직접 세탁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외부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한다. 대신 관용 담요, 이불 등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세탁하고 지급한다. 이를 위해 수원구치소는 50kg용 2대와 30kg용 3대 등 총 5대의 상업용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다. 사동별로 수용자들이 개인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손빨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탈수기 관련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밖에 수용자 1인당 세탁용 비누 혹은 세제 지급량과 지급 시기에 대한 자료들도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구치소 측에서는 관용 담요와 이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세탁 후 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시점에 세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빨래는 주로 거실에서 건조시키는데 탈수기나 건조기가 없어 습도가 심한 여름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B. 인천구치소

### 가. 수용 현황

2011년 7월 25일 현재 인천 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1,470명이며 남자 1,689명, 여자 117명으로 정원보다 336명(23%)가 초과수용되어 있다. 40대가 2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22.3%), 50대(20.7%)의 순이다.

〈표 II-1-7〉 인천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단위: 명, %)

구분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합
남	44	347	383	499	336	65	15	0	1,689
여	3	13	21	34	37	8	1	0	117
계	47	360	404	533	373	73	76	0	1,806

거실은 총 347개로 독거실이 160개, 3인실이 2개, 5인실이 72개, 7인실이 108개, 11인실이 4개이며 만기자실이 1개이다. 이중 남자혼거실은 167개, 남자독거실이 156개이고 여자혼거실은 20개, 여자독거실은 4개이다.

#### 나. 채광

인천구치소의 수용자 거실은 두 개동으로 나뉘어진 건물에서 1동은 남서방향이고 2동은 북동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거실은 출입문, 거실 외부창, 복도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채광과 통풍이 이루어지며, 거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은 자살방지용으로 개폐불가이다. 고정식 방충망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코팅이 되어 있는 두께 0.6mm의 스틸사로서 1인치당 16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통풍과 환기, 방역

통풍과 환기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이 작성되지 않아 동절기 및 하절기 등 계절별 습도나 환기 관련 기준이나 지침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 방역소독으로 벌레나 해충을 살충하고 있었으며 각 사동입구에 손소독기가 비치되어 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거실이나 화장실 복도 등 주변의 구내소독은 보건위생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외부방역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연 5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올해에 시행된 소독은 3월 23일, 5월 18일, 7월 13일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절기, 환절기를 구분하여 수용자 위생관리 계획을 세우고, 하절기에는 감염성 질환(피부병 등)과 금성장염이나 식중독의 예방을, 환절기에는 추위에 민

감한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천식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과에서 주의를 방송을 한다.

### 라. 냉난방

하절기 수용자 거실의 냉방은 거실별로 설치된 선풍기를 가동하여 해결한다. 선풍기는 하절기 냉방계획에 따라 실내 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작동한다. 선풍기 가동시점은 7월 초순(7월 4일)이고 종료시점은 8월 21일이다. 하루에 냉방이 가동되는 시간은 아침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새벽 1시부터 세시까지이다. 단 기온 및 냉방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취사장의 경우 실내 온도가 높아 이동식 냉방기(햅시바) 2대를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

동절기 난방기기를 알아보면 노통연관식 스팀보일러가 4톤짜리 2대가 있으며 사동내에는 스팀 방열기 난방기가 대:284개소, 소: 147개소에 비치되어 있다. 여사 산모방과 병사 만기자방에는 온수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스팀방열기 가동은 실내온도 18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동절기 난방계획에 따라 난방기기 가동 시작은 11월 24일, 종료는 3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기온 및 난방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가동시간은 09:00-11:30, 13:00-14:30, 19:00-21:00, 23:00-02:00, 04:00-06:00이다. 동절기 온수목욕은 10월 4일로부터 5월31일까지 가능하고 09:00-15:00 동안에 할 수 있는데, 남자수용자용 목욕실과 샤워실은 19개소, 여자수용자용은 2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 마. 세탁

세탁은 각 수용동에 마련된 세탁실에서 하며 각 층 수용동에 용량 14kg짜리 세탁기 18대가 마련되어 있다. 세탁실내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세탁물 건조대가 3층에서 12층까지 18개소에 마련되어 있다. 건조기는 세탁 출역장에 2대가 있다. 의류 등의 세탁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33조 의류등의 세탁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이불이나 담도 등은 세탁일정에 맞추어 각 수용동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의류나 관복등은 각 수용동 내 세탁실에서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한다. 세탁실의 이용도 거실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결수형자에게는 매 2개월마다 세면비누 1개씩을 제공하며 매 3개월마다 세탁비누 1개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제는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가능하다. 동절기에는 세탁용 온수가 가능하지만 하절기에는 온수사용은 없다. 의복은 각 수용동 세탁건조실에서 건조시키며 담요나 이불은 세탁일정에 의해 세탁 출역실에서 건조기에 의한 건조를 한다.

### 바. 급양과 식비

구치소의 급식 운영은 교도관·경비교도 급식관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948호) 및 수용자 급식관리 지침(법무부 훈령 제949호)에 의거한다. 이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의 경우, 일반 수용자의 급양비(주부식비와 연료비의 합산액)는 2009년 3,250원,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3,430원이고, 소년 수용자는 2009년 3,860원, 2010년과 2011년은 3,980원, 구치소에서 양육되는 유아는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4,000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 모두 수용자 1인 당 특별 급식비 1,000원이 추가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외국인 가산금이 1인당 830원, 2011년에는 400원이 추가되었다. 2011년 외국인가산금이 전해 대비 430원이 삭감되었다.

식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할 때는 부식비의 범위 내에서 물량으로 조절급식을 하고 있다. 수용자의 식사는 요일별, 아침·점심·저녁별 차림표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수용자의 식사는 1식 4찬(1국 3찬)으로 구성되는데, 주식은 쌀 90%, 보리 10%의 혼합식이며, 부식은 1인당 급식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구성된다. 급식의 양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외부영양사가 참석하는 급식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식단은 매 끼니별로 영양분석표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일일 평균 열량은 3,200kcal로 권장열량과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28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7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구분	아침	점심	저녁
일 3, 10 17, 24 31	쇠고기미역국 무말랭이무침 두유 배추김치	배추국 카레 단무지무침 배추김치	부대찌개 부추무침 고추무침 배추김치
월 4, 11 18, 25	쇠고기무국 쥐어채무침 주스 배추김치	된장국 참치캔김치볶음 김/양념장 깍두기	김치콩나물국 오징어볶음 오이양파무침 깍두기
화 5, 12 19, 26	복어국 깻잎무침 요쿠르트 배추김치	매운콩나물국 탕수육 바나나 배추김치	미역국 돼지고기야채볶음 생야채 배추김치
수 6, 13 20, 27	쇠고기무국 김자반볶음 콩조림 배추김치	참치찌개 떡볶음 야채샐러드 배추김치	순두부 생선묵볶음 콩나물무침 깍두기
목 7, 14 21, 28	김치콩나물국 멸치볶음 요쿠르트 배추김치	미역냉국 닭고기조림 진감자 배추김치	된장국 참치캔김치볶음 부추무침 열무김치
금 1, 8 15, 22 29	복어국 김/양념장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	육개장 해물동그랑뎡 아이스크림 깍두기	닭곰탕 생야채 양파간장초절임 겉절이
토 2, 9 16, 23 30	생선묵국 깻잎무침 바나나 배추김치	떡국 오이양파무침 삼은계란 배추김치	참치찌개 햄야채볶음 콩조림 깍두기
* 예산범위내 조절급식 * 가격 변동시 물량 조절 급식 * 동일식군내 대체급식 * 김치류 상호 대책		* 우리 소의 쇠고기는 “호주산”입니다 * 우리 소의 돼지고기는 “국내산”입니다 * 우리 소의 닭고기는 “국내산”입니다	

〈표 II-1-8〉 인천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단가 추이

(단위 : 원)

구분	수 용 자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급량비 (주·부식, 연료비)	3,250	3,430	3,430	-	수용자
	3,860	3,980	3,980	-	소년수용자
	4,000	4,000	4,000	-	양육유아
1인1식당 단가	1,083	1,143	1,143	-	수용자
특별 급식비	1,000	1,000	1,000	-	
외국인 가산금	830	830	400	-430	

예산범위내에서 조절급식을 할 수 있고, 가격변동 시에는 물량 조절 급식을 하며 동일식군내 대체급식을 할 수 있고 김치류 상호대체를 할 수 있다고 고시해 놓은 것으로 봐서 부식비의 시장변동성에 따라 탄력적인 부식구성이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추값이 너무 오르면 배추김치 대신에 깍두기를 제공한다거나 부식대신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만성질환자 등 식이요법이 요구되는 수용자를 위한 식단 운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했다. 다만 환자나 몸이 불편한 수용자들을 위해 일반식이 아닌 죽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사. 운동

인천구치소는 실외운동장(소내 중앙홀 1개소)은 기결 출역수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제공되고 있고, 실내운동장(18개소)은 미결수용자와 출역수를 제외한 기결수형자들이 운동을 하는 곳이다. 실외운동장을 사용하는 기결 출역수들은 11:00-13:00 사이에 각 취업장별로 두가조로 나뉘어 소내 중앙홀에서 1시간이 내의 운동을 실시하며 미결수용자와 그 밖의 기결수들은 거실별로 운동을 실시한다.

실외운동프로그램으로는 족구, 배구, 농구 등 단체구기종목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한 실내 운동장에서는 맨손체조나 걷기, 팔굽혀 펴기, 달리기 등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운동 위주로 이루어진다. 다만 실내 운동장 바닥에는 팔굽혀펴기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미결수 및 기결수형자는 실내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천 등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천시에 기결 출역수들은 운동이 생략된다고 한다.

### C. 울산 구치소

#### 가. 수용 현황

2011년 8월 2일 현재 울산 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511명이며 남자 472명, 여자 39명이다. 이중 미결수가 63.8%, 기결수가 36.2%이며, 미결 및 기결을 합산한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25.4%), 50

대(19.0%), 25-29세(9.0%), 20-24세(8.0%), 60세 이상(3.9%), 19세 이하(1.8%)의 순이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연령별 분포는 유사하다.

〈표 II-1-9〉 울산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수용형태

(단위: 명, %)

구분	16-17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
기결	0	1	27	13	39	66	33	6	185 (36.2)
미결	2	6	14	33	91	104	64	12	326 (63.8)
계	2 (0.4)	7 (1.4)	41 (8.0)	46 (9.0)	130 (25.4)	170 (33.3)	97 (19.0)	20 (3.9)	511 (100.0)

수용정원으로 구분되는 거실 유형은 큰 혼거실(2-9명), 작은 혼거실(2-6명), 독거실(조사 및 징벌실 포함(1-2명) 등으로 구분되는데, 큰 혼거실은 남자용이 33개, 여자용 6개, 작은 혼거실은 남자용 20개, 여자용 1개, 독거실은 남자용 30개, 여자용 4개 등으로 총 거실수는 94개이다.

#### 나. 채광

울산 구치소 수용자 거실은 전부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거실은 출입문, 거실 외부창, 복도창을 통해 채광과 통풍이 이루어지며, 하절기에는 혼거실의 경우 거실 창문에는 개폐식 방충망을 부착한다. 개폐식 방충망의 재질은 나무와 나일론이며 일반 모기장의 형태이다. 하지만 독거실의 경우에는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다. 혼거실의 화장실에도 고정식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다. 고정식 방충망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코팅이 되어 있는 두께 0.6mm의 스틸사로서 1인치당 16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통풍과 환기

별도의 환기 시설이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연 환기 방식으로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1년간 거실 내 환기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

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습도 및 실내 온도는 매일 측정하여 일일 수용 현황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971호) 제17조(위생관리)에 의하면, ① “소장은 식중독·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계획을 1년에 1회 이상 수립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② “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울산 구치소에서도 외부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연간 5회(3월, 5월, 7월, 9월 12월) 시설 내외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외부 업체 의뢰 방역은 3월 21일에 실시되었다.

## 라. 냉난방

하절기 수용자 거실의 냉방은 거실별로 설치된 선풍기를 가동하여 해결한다. 선풍기는 7월 초순 9월 중순까지 가동되는데, 실내 온도에 따라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취사장의 경우 실내 온도가 높아 이동식 냉방기(햅시바) 2대를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는 빌딩형 구금시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조사단이 울산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주요 지점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오전 10시 5분 경 건물 밖 대기 온도는 섭씨 27.5도, 습도는 63%였는데, 약 40분이 지난 10시 45분 4층 수용자 사동의 실내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훨씬 높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전 시간대의 실내 온도는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을 제외할 경우, 복도, 독거실, 혼거실, 운동실, 취사장의 습도는 모두 건물 외부보다 높았다. 오후 2시 40분 건물 밖 대기 온도는 35도, 습도는 60%였는데 오후 2시 5분과 2시 20분에 측정한 실내 습도는 모든 측정 지점이 이보다 더 높다. 하지만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측수 및 측정 시간에 관계없이 건물의 모든 측정 지점의 실내 온도는 모두 30도를 웃돌고 있었는데, 취사장의 온도가 가장 높고 복도의 온도가 가장 낮았다. 담당실의 경우 냉방을 가동하지 않은 시간의 기온은 높았지만 냉방을 가동할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졌다. 취사장의 높은 실내 온도는 그곳이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도나 운동실의 경우 측정 시간대 별로 실내 온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렇지만 혼거실, 독거실 등 수용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거실은 시간대 및 층수에 따라 실내 온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더욱이 수용자들이 출역 나가고 없는 빈 거실에서 측정할 실내 온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표 II-1-10〉 울산 구치소 주요 구역 실내 온도 및 습도

(온도/습도)

사동 (층수)	측정시간	복도	독거실 (안쪽)	혼거실 (안쪽)	담당실	운동실	취사장	기타 (욕상)
4층	10:45	30.6	31.5	30.7	31.7	31.7	33.3	32.4
		64.5	67.2	64	66.9	65.3	64.5	62.2
5층	14:05	30.5	32.8	33.2	23.6	31.6	-	-
		63.4	62.6	67.2	62	61.6		
3층	14:20	31.3	33.4	32.6	27.5	31.4	-	-
		64	62.8	63	62.3	62.5		

- ※ 대기온도측정
- 10:05분 = 27.5도/63%
  - 12:40분 = 34.4도/48%
  - 14:40분 = 35도/60%

**마. 목욕**

수용자의 목욕 및 샤워를 위해 각 수용동별로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다. 1동과 3동(남자 수용자동)의 샤워장 면적은 21.6㎡이고 2동과 4동(남자 수용자동)의 샤워실 면적은 그보다 조금 작은 20.48㎡이다. 두 유형 모두 8-10명이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 수용동의 샤워시설의 면적은 34.20㎡로 남성 수용동보다 조금 더 넓어 10-15명이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의료 수용동에도 동시에 5-7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샤워 시설(16.20㎡)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보수에 투입되는 수용자를 위한 샤워 시설(4.5㎡, 2-3명이 동시 이용), 취사장 취업 수용자를 위한 샤워 시설(6.0㎡, 5-7명이 동시 이용)도 구비되어 있다.

〈표 II-1-11〉 울산 구치소 수용자용 목욕 시설 현황

구 분	샤워장 면적(㎡)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원(명)
1, 3 수용동	21.60	8-10
2, 4 수용동	20.48	8-10
여성 수용동	34.20	10-15
의료 수용동	16.20	5-7
시설보수	4.50	2-3
취사장	6.00	5-7

냉수 목욕은 운동 후 10분씩 실시하고, 거실 내 샤워는 수용자들이 매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온수 목욕은 남녀 모두 주 1회 30분간 사전에 짜여진 온수 목욕 시간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세탁**

수용자들은 주 1회 개인 세탁을 할 수 있다. 세탁 시간은 1시간 내외이다. 수용동(세탁장소의 면적은 6.3㎡)과 취업장, 그리고 1층(42㎡)에 세탁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용동 및 취업장에는 세탁 용량이 10kg, 13kg, 15kg 등 9대의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고, 1층에는 40kg짜리 2대가 구비되어 있다.

세탁물 건조기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옥상, 감시대 앞마당, 시설 보수 뒷마당 및 각 수용동 거실에 마련된 건조대를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고 있다. 우천시에는 거실에서 세탁물을 말리게 된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복과 이불은 신청을 받아 외부에서 세탁하고 있으며, 지급한 모포는 오염시 수시로 수거하여 세탁·건조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 식사**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8년 3,070원에서 2009년 3,2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0년 다시 3,430원으로 인상된 후 2011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잣대를 통해 봤을 때, 수용 인원 규모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급식비의 실질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는 수

용 인원이 3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100원, 500명 이하는 70원, 800명 이하는 50원, 1,000명 이하는 30원을 각각 추가하여 지급한다. 울산 구치소의 경우 수용 인원이 511명이므로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비는 기본 3,430원에 추가비용 70원이 합산된 3,500원이다.

월별 수용자 급식비 총액의 추이를 보면 변동이 심한 편이다. 아마 수용 인원의 변동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2010년의 경우 특히 7월의 급식비 총액이 가장 낮고 12월이 가장 높다. 1월부터 5월까지 급식비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6월과 7월에 감소하다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한다. 2009년의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의 급식비 총액이 다소 줄어들었고 동절기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에는 겨울철의 급식비 총액이 다른 계절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3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급식비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계절별 급식비 총액의 변화가 심하다면 이는 수용자를 위한 식사의 양과 질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용자 인원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급식비 책정이 요구된다.

수용자 1인당 1일 평균부식비는 요일별로 다르다. 2010년 1월의 평균부식비는 1,906.5원이었는데, 금요일이 1,680.6원으로 가장 낮고 일요일이 2,106.5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7월의 수용자 1인 1일 평균 부식비는 2,000.6원으로 1월보다 조금 상승했는데, 일요일이 1,678.2원으로 가장 낮고 월요일이 2,250.2원으로 가장 높다.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매 끼니마다 1식 4찬(국 포함)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울산 구치소의 경우 아침에는 1식 3찬이 제공되고 있었다. 때문에 점심과 저녁에 비해 아침 식사의 1인당 평균 부식비가 낮게 책정되었다.

1월에는 수요일의 경우에 3끼 식사에 소요되는 1인당 평균 부식비가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목요일과 월요일에 끼니별 1인당 평균 부식비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의 경우를 보면, 아침 식사의 수용자 1인당 평균 부식비가 가장 작고 변동 폭이 가장 적었으며 월요일, 금요일은 저녁의 평균 부식비가 가장 높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심의 평균 부식비가 가장 높으며, 일요일은 점심과 저녁의 평균 부식비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1월과 7월 모두 점심의 평균 부식비가 좀 더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요일별로 혹은 시간별로 부식비가 달라지는 것은 한정된 금액으로 보다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이해된다. 국 혹은 반찬의 형태로 육

류 혹은 어류가 제공되는 횃수를 보면, 1월에는 14회, 7월에는 15회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수용자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은 약 2,700cal이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 죽이 제공되고 있다.

〈표 II-1-12〉 울산 구치소 요일별 수용자 1인 1일 평균 부식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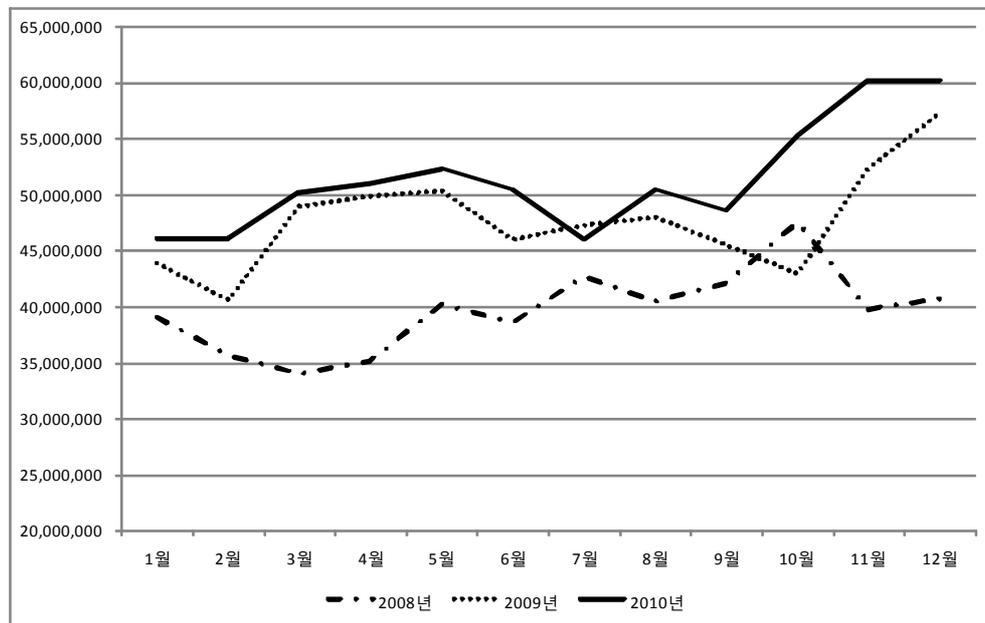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1월				7월			
	합	아침	점심	저녁	합	아침	점심	저녁
일	2,106.5	486.3	857.6	762.6	1,678.2	399.3	639.2	639.7
월	1,946.4	459.8	855.5	631.1	2,250.2	446.2	897.8	906.2
화	2,068.0	313.8	1,040.5	713.7	1,911.5	618.1	735.7	557.7
수	1,731.1	586.8	597.7	546.6	2,178.6	480.6	933.7	764.3
목	1,862.8	410.7	619.7	832.4	2,147.5	487.5	965.5	694.5
금	1,680.6	408.7	685.7	586.2	1,696.3	545.1	561.3	589.9
토	1,950.4	404.8	595.9	949.7	2,184.0	489.1	849.2	845.7
평균	1,906.5	438.7	750.4	717.5	2,006.6	495.1	797.5	714.0

수용자의 식사는 거실에서 이루어지며, 출역수의 경우 점심은 작업장 내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하게 된다. 식기세척 및 보관·관리 지침은 별도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하절기의 경우 좁은 거실에서 식기를 세척하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좀 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표 II-1-13〉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구분	2008년	전월대비 증가율	2009년	전월대비 증가율	2010년	전월대비 증가율
1월	39,005,980		43,876,070		46,160,334	
2월	35,601,710	-8.7	40,580,830	-7.5	46,116,021	-0.1
3월	34,000,400	-4.5	48,893,417	20.5	50,245,374	9.0
4월	35,212,080	3.6	49,871,982	2.0	50,992,508	1.5
5월	40,202,240	14.2	50,371,160	1.0	52,350,017	2.7
6월	38,587,850	-4.0	46,021,800	-8.6	50,467,457	-3.6
7월	42,680,410	10.6	47,308,134	2.8	46,053,047	-8.7
8월	40,439,480	-5.3	47,947,345	1.4	50,477,230	9.6
9월	42,175,600	4.3	45,501,395	-5.1	48,547,192	-3.8
10월	47,563,755	12.8	42,965,075	-5.6	55,261,602	13.8
11월	39,779,540	-16.4	52,326,950	21.8	60,201,554	8.9
12월	40,667,180	2.2	57,323,666	9.5	60,231,794	0.1



[그림 II-1-2] 울산 구치소 수용자 월별 급식비 총액 추이(2008-2010)

## 아. 운동

수용자의 운동은 법무부훈령 제818호 ‘계호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지침’ 제174조(운동시간)는 “①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목욕 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업 중인 수용자의 운동은 작업장별로 1일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수용자의 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혼거 수용자들은 1일 1회 30분(샤워시간을 포함하며 오가는 시간은 제외함), 징벌 수용자는 주 2회(월요일, 목요일) 각 30분씩 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수용자의 운동을 위해 1-4동, 의료동, 여성수용동 등 6곳에 면적이 44.28㎡인 실내운동장이 구비되어 있어 수용자들은 거실별로 미리 할당된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수용동별로 주1회 옥상 모포건조장에서 모포건조 시간을 활용하여 야외 운동을 실시한다. 옥상 모포건조장은 두 곳이며 한 곳의 면적은 311.4㎡이다. 하지만 우천시에는 옥상에서의 운동이 취소된다.

수용자를 위한 운동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운동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성 수용동에는 허리돌리기 기구 3개, 스탬퍼 3개, 홀라후프 2개 등 8개의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고, 취사장 출역수용자는 족구를 할 수 있는 공이 제공되고 있다.

## 2. 현장 방문 조사

### A. 수원 구치소

#### 가. 사방(舍房)

6명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작은 규모의 거실이다. 화장실의 출입문(120cm×100cm)은 유리문이었고 용변시 수용자의 얼굴 부위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반투명처리가 되어 있다. 거실 외벽 쪽 창문(80cm×65cm)은 1개로 채광은 물론 통풍의 정도도 대단히 취약해 보였다. 방문 당일 비가 왔고 습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름철에는 평소에도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화장실에는 개수대와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거실 출입문 쪽 벽에 부러지지 않고 휘기만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4개의 건조대가 설치되었고, 옷이나 수건 등을 걸 수 있는 벽걸이가 마련되어 있다.

거실 안에는 2개의 형광등과 1개의 취침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 중앙에는 선풍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선풍기는 교도관들이 통제하지만, 바람세기는 강약 조절이 가능하여 수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조절한다. 거실에서 복도 쪽으로 향한 창문(80cm×100cm)은 2개이며 미닫이 형식이다.

거실 복도 쪽 벽의 하단(바닥에서 약 18cm 상단)에 배식구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가 좁고 위치가 낮아 수용자들이 불만을 제기되고 있다.

#### 나. 목욕실

큰 물통 1개기 놓여 있고 샤워기는 총 6개이다.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목욕실과 붙어 있는 옆방은 탈의실로 사용되고 탈수기도 1대가 놓여 있다.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세탁한 빨래를 사방 도우미가 탈수해준다. 탈의실에는 사동 도우미(2명)가 이용하는 탁자가 놓여 있다.

#### 다. 운동실

건물 한 층에 약 70명의 수용자가 생활하는데, 운동은 10명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한다. 외벽 쪽에는 보안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나 통풍 상태는 양호하다. 바닥은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 넘어져도 큰 부상의 위험이 없어 보인다. 수용자들은 훌라후프나 제기차기 등을 한다고 한다.

#### 라. 관구실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냉각을 위해 에어컨이 최근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열기 때문에 굉장히 덥다.

#### 마. 취사장

60명의 수용자로 운영되며, 국, 반찬, 밥 담당이 정해져 있다. 두 대의 대형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어 국거리와 반찬거리를 따로 보관한다. 식재료는 약 1주일간 보관한다. 저녁 식사를 위해 생선 튀김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

#### 바. 소방(1-2인실)

작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 안에는 소형 TV, 이불 담요, 선풍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중방의 경우 조명은 형광등과 취침등으로 구성되지만 독거실은 취침등으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2인이 거주하는 거실 또한 독거실과 크기가 같다. 거실 내에 2개의 건조대가 있었으며, 습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만 빨래에서 쉼내가 나지는 않았다.

통풍은 잘 안 되는 편이고 환기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방이 작아 개수대나 세면대는 없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은 물론 세면, 식기 세척, 샤워 등을 한다. 화장실 한 쪽 벽에 음식물 보관대가 놓여 있다.

#### 사. 복도

복도에서 외벽 쪽으로 창문이 나 있지만 닫혀 있어 통풍에 지장을 주고 있다. 열린 창문으로는 외부의 바람이 잘 들어오는 편이다. 복도의 너비와 거실의 너비가 비슷하다. 복도의 폭을 좀 줄인다면 거실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복도에는 통풍기나 냉방 시설이 없으며, 겨울 난방을 위한 히터가 있을 뿐이다. 복도에 누수된 흔적들이 보인다.

#### 아. 옥상

옥상은 수용자들이 모포털이를 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사동별로 모포털이가 실시되는데, 한 번에 2개의 거실이 이용한다. 또한 옥상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과 같은 비상 훈련이 실시된다. 수용자의 도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두꺼운 철창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시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자. 독거 징벌방

보안 창살, 방충망이 설치된 것은 여느 사방의 거실과 유사하지만, 수용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벽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화장실에 환기창(85cm×100cm)이 있으나 실내 온도는 29°C로 매우 덥고 습하다. 벽에 배식구가 있지만 지금은 출입문 중간에 새로운 배식구가 마련되어 있다. 거실 안쪽에 용변을 보고 목욕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과 거실은 미닫이문으로 경계가 구분된다. 거실 앞 쪽에 윗부분에 턱이 있는데, 이곳에 취사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벽 또한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거실 출입문은 안전 방충망이 있는데, 모기나 벌레 등을 막는 기능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안전 방충망은 KS 규격품으로써 일반 다세대 반지하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촘촘하고 두껍기 때문에 채광을 방해하고 근무자가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한다. 안전 방충망은 겨울에는 무용지물이지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고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구급시설의 경우 방충망 간격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통풍 및 채광을 위해 건설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차. 현장점검 결과 요약

〈표 II-2-1〉 현장점검 결과 요약

	기온	채광	통풍	냉방	습기	위치	특이사항
독거실	27.9	· 자연채광으로 독서와 노동이 가능 · 방충망(보안창살)은 고정식으로 채광이나 환기방해 효과 높은편	· 거실과 화장실의 약취는 심하지 않은편 · 혼거실보다 온도습도가 높음	· 벽걸이선풍기	· 거실내 체감 습도 매우 높음 · 습도: 88% · 화장실과 세면대 배수 상태 양호 · 거실내 곰팡이 전혀 없음		· 조사당일 폭우를 감안하여야 할 것임
혼거실	26.8	· 자연채광으로 독서와 노동이 불가능한 정도 · 방충망(보안창살)은 고정식으로 채광 차단효과와 환기방해효과는 낮은편 · 향시 불을 켜고	· 거실과 화장실의 약취는 심하지 않은편	· 선풍기로 냉방을 하는 데 정가운데 천정에 한 대 · 인원이 많으면 끝쪽자리에는 바람이 가지 않음.	· 거실내 체감 습도 매우 높음 · 습도: 87% · 발바닥이 달라 붙을 정도로 습기가 높음 · 거실안에 널어놓은 빨래로 인해 냄새가 나고		· 조사당일 폭우를 감안하여야 할 것임

	기온	채광	통풍	냉방	습기	위치	특이사항
		생활 · 보수통로 밖 외벽창문이 가림막으로 가져져 있어 채광방해			습도가 더 높아짐		
징별실	29	· 자연채광으로 독서 노동이 불가능하고 눈에 피로를 느끼는 정도 · 방충망(보안창 살)의 채광과 환기방해효과 높은편 · 방충망이 오래 되어 먼지로 막혀있음	· 거실과 화장실의 약취는 심하지 않은편 · 환기가 잘 안되는 지 복도 에 약취가 남.	· 냉방장치 없음	· 습도:87%		· 선풍기가 있는 방보다는 덜겠으나 일반소거실 보다는 통풍이 좋은 편
샤워실	26.8				· 습도: 85% · 바닥이나 배수 상태는 매우 양호, 채광, 환기, 습도는 보통 · 샤워실내 곰팡이 없음		
취사장	26	· 채광은 불량한 편	· 환기상태는 보통	· 6월에서 8월까지 에어쿨러 가동	· 습도:81% · 바닥상태 불량한 편 · 채광과 조명 불량한 편 · 물고임심함		· 장화나 앞치마 착용안함 · 음식물 바락에 그대로 방치 · 취사장 작업수용자 정원미달로 휴일보장 안됨
관구실	28.5	· 향시 불을 켜놓음		· 작년엔 벽걸이에어컨 설치	· 습도: 81%		· 매우 협소한 편
운동 시설	26.8	· 채광은 양호한 편	· 환기는 매우 양호		· 습도: 87%	· 실내 · 장소가 매우 협고 · 바닥재질은 스편지 · 창문이 없고 창살로만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침	· 실내운동자 내에 식수대나 세면대는 설치 되어 있지 않음

	기온	채광	통풍	냉방	습기	위치	특이사항
옥상		· 옥상은 채광문제 없음	· 실외이므로 환기문제도 없음				· 옥상의 용도는 맑은 날씨에 빨래 건조장으로 사용

### 카. 직원 간담회

최 아무개 교위는 수원 구치소는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출퇴근과 자녀의 교육에 긍정적인 이점을 준다고 평가한다. 교정 공무원의 상당수는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편견이 부담스럽다.

고층 건물형 구급 시설 근무는 처음이라는 강아무개 교위는 우선 외부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평가한다. 근무 시간 중에는 하늘을 보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끔 먼 산과 들, 나무를 볼 수 있어야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심리적 쇠퇴를 경험한다. 근무자들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더 할 것이다.

수용자 진정 내용의 대부분은 햇볕을 쬐지 못하거나 피부질환이 발생한다거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애로 사항들이다. 빌딩형 수용 시설을 건축할 때는 채광이나 일광, 외부 운동 시설의 확충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한다(이 아무개 교위). 수용자들이 외부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며 따라 내부 거실의 인테리어도 자연 친화적으로 바꿈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최아무개 교위).

수용자가 겪는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수용자 중에는 가족이나 면회자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은 수용자들에게는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불우한 수용자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의 질서 유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전체 수용자 상담을 위해 두 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외부 초청 인사에 의한 상담 교육은 효과가 의심스럽다. 직원에 의한 상담이 절실하며 단순한 카운슬링을 넘어서서 치료와 처우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달리 수용자 거실 화장실 벽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화장실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자 입장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감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좁은 거실에 적지 않은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한다. 수용자 사이의 싸움은 특히 기상 시간, 식사 후 청소 시간 등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환절기에도 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공식통계를 보면 최근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진정·청원 제도가 강화되면서 수용자가 이런 제도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평가한다. 때문에 과거에는 인정에 호소하여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던 부분까지 최근에는 규율과 규정에 입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도관들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조한다. 더욱 엄격한 규율 집행은 수용자의 무질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본다.

교도관의 인권이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시설 내부에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적한다. 또한 근무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직원 심리 순화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 B. 인천 구치소

- 관찰 일자: 2011년 7월 28일
- 시설 개요

1990년에 개소했으며 1997년 10월 신축했다. 강화, 옹진, 부천, 김포, 인천 지역의 미결 및 5년 이하의 기결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수용 정원은 1,470명이나 현재 수용 인원은 1,700명이며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한 적도 있다고 한다. 수용자의 64%는 미결이며 나머지 36%가 기결 수형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이다.

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직원 체육실, 기계실 등이 있다. 5층부터 12층까지가 남자 수용자를 위한 일반수용 사동이며, 여성은 1-2층의 저층에 수용하고 있다. 인천 법조 타운에 위치해 있고 법원-검찰청-구치소가 삼각형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자는 지하실을 통해 호송함으로써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건물은 □자형이며 중앙 홀이 있는 높고 좁은 구조이다.

총 346개의 거실이 있으며 그 중 여성 수용자용 거실은 24개실이다.

### 가. 수용자 자치 사동

수용자 자치 사동의 출입은 자동기로 작동된다. 복도 외벽의 창문을 통해 햇빛이 복도까지 들어온다. 복도 외벽 쪽에 겨울 난방을 위한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수원 구치소의 수용자용 거실은 세로보다 가로가 긴 형태였으나 인천 구치소는 가로보다 세로가 긴 형태이다.

처음 관찰한 곳은 11명이 거주하는 대방(21.20㎡)이다. 거실 외벽 쪽으로 봤을 때,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수도 및 개수대(싱크대)가 마련되어 있다. 화장실 앞쪽의 거실 벽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길이 약 2m의 빨래 건조대가 2대, 옷걸이는 14개가 있었다. 복도 창문이 거의 열려져 있어서 거실까지 통풍이 잘 되는 편이었다. 형광등은 2개, 취침등 1개 등으로 불을 밝힌다. 방충망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거실 쪽은 모기장형이고 화장실은 쇠창살형이다. 여름철에는 통풍과 환기를 위해 세면대 쪽 창문과 복도 쪽 창문을 모두 떼어낸다고 한다. 화장실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수용자가 용변을 볼 경우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4명의 출역자들이 사용하는 중방(16.70㎡)을 점검했다. 식사용 테이블(100cm×200cm)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 벽 한 쪽 수납장에는 컵라면, 음료수, 반찬 등이 보관되어 있다. 책장에는 개인 서적들이 꽂혀 있다. 목욕은 목욕탕에서만 허용되며 거실 내 목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실의 전등은 형광등이고 문은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다.

2인실의 면적은 5.40㎡이다. 출입문에는 안전 보안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보안창을 아크릴로 봉쇄한다. 배식구는 출입문 옆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은 보안창살 바로 아래 새로운

배식구가 만들어져 음식 배급에 이용한다. 거실 통풍은 양호하며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거실 내 악취는 심한 편이 아니다. 벽걸이용 선풍기, 소형 TV, 건조대와 옷걸이가 있다. 화장실은 양호하고 수도꼭지가 있다. 따로 세면장이 없어 화장실에서 용변과 세면을 해결한다. 화장실에 거치식 수납장과 청소도구를 놔두고 있고, 거실 안쪽에도 수납장이 2개 마련되어 있다. 화장실 벽은 앞면 명치 높이까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공간 확보를 위해 화장실 문은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다. 취침등만 있고 따로 형광등은 없으며 불을 켜도 거실 안쪽은 어두운 편이다. 화장실 등을 켜면 거실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진다.

#### 나. 운동시설

실내 운동장에는 5개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2개씩 짝을 이루는 형광등 중 1개만 불이 들어온다. 운동은 주로 걷거나 달리기이며 제기차기는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실내 운동장의 통풍은 양호하다. 수용자들은 20여분간의 운동을 마치고 난 뒤 샤워실로 이동한다. 운동 시간은 혼거실 수용자는 30분, 독거 수용자는 1시간이다.

#### 다. 세탁실과 건조실

실내 운동장 바로 옆방은 세탁물 건조실이다. 건조대는 없으며, 대신 빨랫줄이 2개이며 수건과 의복이 촘촘하게 널려 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실내가 어두워 이용하기 불편하다.

일반 세탁을 위해 각 층마다 세탁기 1대와 탈수기 1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세탁실에는 수도꼭지가 12개 설치되어 있다. 통풍은 양호하지만 2개의 노란색 전등으로는 충분히 밝지 못하다. 직사각형의 세탁실 벽을 돌아가면서 수도꼭지 2개씩 6-8개의 수도시설이 있다. 세탁기는 세탁실 왼편 구석에 탈수기와 함께 위치해 있다.

#### 라. 목욕실

목욕실 중앙에 2개의 노란등이 있고 외벽 쪽으로는 창문과 환풍기가 설치되었다. 비교적 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다. 목욕실 바로 옆에 탈의실이 있다. 목욕

실 내부를 보면 벽을 돌아가면서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 물을 받아들 수 있는 큰 통이 있다. 탈의실 옆에는 온수 및 냉수 조절기(동절기에 사용)가 있어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근무자들이 관리한다.

**마. 관구실**

실내 온도가 29.9°C로 매우 덥다. 모니터 시스템의 과열 방지를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미가동 중이다. 근무자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더위를 식힌다. 특히 수용자 2명이 거주하는 거실에만 CCTV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옥상/야외 건조장**

구조는 수원 구치소와 유사하다. 6개의 야외 건조대(1개의 건조공간에 2개의 거실이 이용함)가 마련되어 있어 모포 건조에 이용된다. 옥상에서의 모포 건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다. 한 층에 2개의 사동이 있고 240명이 수용 생활을 한다. 1개 동에 120명의 수용자가 있는 셈이다. 1동의 평균 수용 인원은 100명 정도이다. 3층은 여자 수용자 사동이고 4층에 의료실이 있다.

직원 식당 옆 야외 공간이 있으나 야외 운동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식당의 창고, 취사장 근무 수용자들의 수건 등을 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사. 현장점검 요약**

〈표 II-2-2〉 현장점검 요약

	기온	채광	통풍	냉방	습기	특이사항
독거실	30.6(82%)	· 방충망과 보안창살의 채광차단효과는 높은편	· 거실과 화장실 통풍이 전혀 안됨(폐쇄적 창)	· 천정형 선풍기	· 거실내 체감습도는 습한편으로 문을 닫으면 습기가 많이 느껴짐	2인사용
혼거실	26.4(84%)	· 자연채광으로는 낮에도 독서 노동이 불가능	· 방충망과 보안창살의 환기방해 효과는 낮은편	· 천정형 선풍기 · 방 크기에 비해 냉방시설 부족	· 창문도 크고 천장도 높아 습기가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음. · 바닥은 약간 끈적거림	

	기온	채광	통풍	냉방	습기	특이사항
사위실						· 현재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세탁 시설	29.7(81%)	양호한편	불량한편		매우 양호	탈수가 있음
관구실	29.8(77%)	채광 및 조명은 보통	환기는 불량한 편	벽걸이 선풍기 1대와 벽걸이 에어컨 1대	불량 천장에 물곰팡이	창 한 개 화장실 없음
욕상		양호	양호	-	양호	건조대 설치

### C. 울산 구치소

#### ○ 시설 개요

1994년 2월 5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개청하였다. 직원의 정원은 188명이며 현 인원은 187명이다. 수용 정원은 450명인데 현 수용 인원은 515명으로 수용률이 116%로 과밀 수용하고 있다. 515명 중 341명(66%)은 미결수, 174명(34%)는 기결수이다.

대지를 포함한 총 면적은 133,831㎡이고, 건물 면적은 15,923㎡으로 지상 5층, 21 하 2층에 94개의 거실(60개는 혼거실, 34개는 독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용 환경도 비교적 쾌적하다. 투석이 필요한 수용자를 위해 월, 수, 금 투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결 수용자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노역장 유치제도에 의해 현재 42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일 집행 금액이 1인당 5만 원이다. 불우 수용자 처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개별 상담이나 영치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면회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 가. 거실

##### ○ 대방(21.81㎡)

10명 정원에서 8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취사장에 출역 중이다. 거실 안쪽

왼편에 싱크대, 오른 편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안에는 수도꼭지가 없어 수용자들은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 화장실 안에 마련된 물통에 미리 물을 담아두고 바가지로 퍼서 오물을 처리한다. 수압이 낮아 수도물로 배변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거실 왼쪽 벽에 벽걸이가 있고 천정 가운데에 강/약 조절만 가능한 선풍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 벽에는 개인 관물함이 6개 있다. 선풍기 바람은 거실 안쪽까지 미치기에는 미약하다.

거실 내 건조대에는 수용자들의 옷, 속옷, 반바지 등이 널려 있다. 수건 등의 건조 상태는 양호하다. 이는 통풍이 비교적 잘 된다는 의미이다. 맑은 날에는 외벽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편이다.

화장실 벽면은 머리 윗부분 밑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 창문에는 고정식 보안창과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거실 쪽에는 안전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거실 외벽 쪽 창문이 탈착되어 있어 통풍이 양호하다. 출입문 쪽 방충망은 모기장형이다. 화장실 쪽 창문은 폐쇄되어 있지 않았지만 거실 안쪽까지 통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실에 형광등이 따로 없었으며 취침등 2개로 조명을 밝힌다. 맑은 날에는 거실에서 파란 하늘이 보인다.

#### ○ 독거실(5.63m<sup>2</sup>)

화장실 문을 열면 보안창으로 통풍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거실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며 화장실과 거실은 유리문으로 차단된다. 화장실은 좌변기와 수도꼭지가 설치되었다. 거실 안쪽에 소형 TV, 벽걸이형 선풍기가 있으며,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실 바닥은 눅눅한 편이다. 화장실 문을 열어 두지 않으면 무척 덥고 습하다. 출입문에는 안전 보안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밑에 배식구가 있다.

#### 나. 실내 운동실

실내 운동실은 동쪽과 남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다. 실내 운동실의 창을 통해 멀리 숲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으며, 조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채광만으로도 충분히 환하다. 바닥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은 이곳 실내

운동실에서 맨손체조, 걷기 등의 운동을 주로 한다. 실내 운동실 벽 위쪽에 보안거울이 달려 있어 교도관들이 문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벽면은 누수 흔적 등이 없이 깨끗하고 양호하다. 운동은 1개의 거실씩 돌아가면서 약 30분간 진행되며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의 운동 시간은 60분이다.

이와 별도로 수용자들은 1주일에 1회 옥상에서 운동할 수 있다.

#### 다. 관구실

실내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다. 최근 모니터링 시스템 냉방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관구실 에어컨 작동을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닫을 경우 건너편 수용자 거실의 통풍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라. 목욕실/샤워장

샤워꼭지는 5개가 설치되어 있다. 남향이고 채광도 좋아 실내가 밝은 편이다. 온수통이 내부에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크기가 비교적 큰 물통 3개가 있어 수용자들이 이용한다. 목욕탕 내에서 창문에는 철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 마. 세탁실

샤워장 옆방에 위치해 있고 탈의실에는 탈수기가 있다. 탈수기는 손으로 물기를 짜기 힘든 세탁물을 탈수하는 데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 세탁물들은 거실에서 적절히 물기를 짜낸다. 세탁실 방별로 배정된 날에 이용하는데, 사방 도우미가 각 방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탈수시켜 다시 각 방으로 보낸다. 대략 1주일에 1회 정도로 거실별로 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다.

세탁실 옆에는 온탕기가 있는데, 수용자들이 요구하면 사방 도우미가 컵라면 등에 온수를 채워준다. 이와 별도로 아침과 점심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온수통에 온수를 넣어 거실별로 제공한다. 이 온수를 이용하여 수용자들은 차를 마시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온수 지급이 필수적이다.

## 바. 옥상

옥상은 모포털이장과 야외 운동장을 겸한다. 1주일에 1회 약 30분 간 모포털이 겸 야외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 모포털이 장소는 20m×8m의 크기로 되어 있다. 모포털이 시간에는 모든 수용자들이 다 나오며, 그날은 실내 운동 시간이 없다. 야외 모포털이 시간은 각 거실별로 미리 배정되어 있는데, 그날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순연되지 않고 취소되며 다음 날에는 다른 조부터 모포털이가 진행된다. 옥상에는 모포털이 외에 다른 일반 세탁물은 건조시킬 수 없다.

1주일에 1회 옥상에서의 모포털이 및 일광욕은 수용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 취사장

취사장의 실내 온도는 매우 높고 습도 또한 매우 높다. 취사장 출역 수용자를 위해 대형 송풍기(이동식 에어렉스) 2대를 가동하고 있다. 조만간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할 예정이라 한다. 조리대의 청결 상태는 양호하고 배수 상태도 큰 문제가 없다. 창문을 열어두고 있어 통풍도 잘 되는 편이고 채광도 양호하다. 조리장 한쪽에 탈의실, 화장실, 실내화 보관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식재료는 하루 전에 들여와 냉장고에 보관한다.

취사장에는 총 19명의 수용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샤워실은 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취사장 출역자들의 운동 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까지이며 운동을 마치면 조리장 내에 있는 샤워실에서 씻고 식사 준비에 임한다. 조리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청결한 상태이고 악취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취사장에서 준비한 식사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층 사동 도우미들에게 전달되는데, 각 층 1동 수용자들의 식사를 위해 120명분의 밥을 넣은 큰 밥통, 찌개/국통, 두 개의 반찬통을 수레에 넣고 각 거실에 제공한다. 식사용 수레는 1명의 근무자의 감독 하에 2명의 식사 도우미가 운반한다. 복도를 따라 수레를 이동시키면서 거실별로 인원수에 맞게 밥과 국, 반찬을 제공하는데, 배식구를 통해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열고 음식을 넣어 준다. 아마도 수용 인원이 500여명 남짓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아. 여성 수용자 거실**

거실의 구조는 남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바닥이 전기판넬선이 설치된 장판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벽지가 실크로 되어 있는 점도 다르다. 실내가 환한 벽지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인다. 벽, 출입문, 보안창살 모두 노란색 계통으로 채색되어 있어 실내가 밝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는 향후 수용자 거실의 인테리어 방식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할만한 부분이다.

화장실은 양변기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 유리벽은 바닥에서 1m 높이까지 반투명 처리되어 있다. 샤워를 할 때는 식탁용 탁자로 유리벽을 가려 최대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한다고 한다. 거실 내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거실 가운데 선풍기가 있고 거실 출입문 쪽 벽에 취침등이 있다. 형광등은 2개짜리가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형광등은 1개씩만 불이 들어온다. 채광이 좋기 때문에 굳이 실내등을 키지 않더라도 독서나 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거실 외벽 쪽 방충망은 착탈식이고 화장실의 방충망은 견고한 안전 방충망이다.

**3. 면담조사**

**A. 수원 구치소**

○ 면담 일시: 2011년 7월 29일, 12시 50분~16시

〈표 II-3-1〉 면담 대상자

	성별	연령 (세)	구분	거실 유형	출역	수용 기간 (개월)
A	남	36	기결	10인실에서 2인실로 이주	취사장 근무	19
B	남	21	미결	중 거실(5인)		12
C	남	32	미결	7명 거주		3
D	남	38	미결	11명 정원에 8명 거주		18

## 가. 채광

작은 규모의 소방이나 중방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고, 대방은 1/3 정도밖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 낮에 형광등을 키지 않고는 독서가 불가능하다(A-D). 거실 내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명백하게 구분된다(D). 시설의 구조상 낮에 햇빛이 거실 내로 들어오기 힘들다.

거실 및 화장실 창문에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층이어도 모기가 없어 불필요하고 오히려 통풍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수용자(A, D)가 있는가 하면, 벌레나 해충을 막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통풍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B, C). 거실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이 채광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C). 화장실 내 방충망은 고정식이고 복도 쪽은 탈착식이다. 인천이나 울산 구치소와 달리 복도 쪽 방충망도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다.

거실에 수용자가 있으면 조명을 가동한다. 좁은 공간에 형광등 불빛이나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눈이 쉽게 피로하다. A는 시력이 많이 나빠졌고 눈약을 복용하고 있다. B 또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안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햇볕을 쬐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발생했으며 1년 동안 햇볕을 쬐 횟수가 몇 번밖에 없다고 한다. C 역시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D는 낮에 전등을 키지 않으면 독서나 일을 할 수 없고 평소 안 좋았던 시력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한다. 하루 종일 형광등을 켜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 곳을 볼 수 없는 것도 시력이 약화되는 이유로 작용한다. 운동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거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채광과 조명 문제가 중요하다.

인공조명은 형광등 2개, 취침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낮 시간에는 형광등 1개만 켜두고 오후 9시 이후 취침 시간에는 취침등 하나를 켜둔다. 조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교도관이 통제한다. 인공조명이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어 괜찮다고 한다(D). 인공조명의 보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 나. 환기와 통풍

거실 내 통풍은 거의 안 되는 편이다. 복도 바깥 쪽 창문을 열어 주면 그나마

통풍이 될 수 있겠지만 교도관들이 상시적으로 창문을 닫으려 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된다(A). 여름철 식사 후에는 하루 종일 음식 냄새가 남아 있다. 환기 장치가 없어 교도관들이 복도의 외벽 쪽 창문을 열어 두는 정도로 조치를 취해 준다(C). 거실 내 악취는 심한 편이며 외벽이나 복도 어느 쪽으로도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통풍이 되지 않고 수용자들의 땀 냄새 때문에 거실 악취가 심하다. 수용자들이 자주 씻지만 근본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B). 하지만 D의 경우는 식사 후의 냄새는 그리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화장실 악취는 자주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빨래를 거실 내에서 건조시키는데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선내가 나는 등 거실 악취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화장실 사용 후, 거실에서 말리는 빨래의 선내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방향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청소는 당번이 주로 하며 수용자들은 특히 청소와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이 촘촘해서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 용변을 보지 않더라도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 내로 들어오는 편이어서 물을 상시적으로 틀어넣어 악취를 제거한다(A, B).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통풍에 지장이 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 악취가 거실 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통은 화장실 문을 닫아 두는 편이다(C). 다수가 생활하는 거실의 경우 특히 화장실 사용에 애로가 있다. 화장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냄새 제거제를 사용한다(A, B). 특히 신입 수용자에게 방향제의 개인 구매를 요청한다(C).

통풍과 환기는 여름철에 국한된 문제이다. 오히려 겨울철에는 추워서 문제이다. 거실 내 난방 장치는 없고 복도 쪽에 라디에이터가 있으나 거실의 난방을 위해서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동료들의 체온으로 버티는 정도이며 겨울에는 인원을 증원시켜달라고 요구할 정도이다(D).

#### 다. 실내 온도와 냉난방

면담에 응한 수용자들은 하나같이 여름철 거실 온도가 매우 높다고 말한다. 방에 사람이 많고 좁아서 잠을 잘 때는 옆 사람과 닿아 더욱 덥다. 가만히 있어도 덥다는 것이다. 더위를 식히려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지만 규제가 심한 편

이다. 단체로 이용하는 샤워장이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고 거실 화장실에서 냉수 샤워를 주로 한다. 덥고 잘 씻지 못해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수용자들도 더러 있다(A-D).

냉방을 위해 선풍기가 가동된다. 취침 후 밤 10시 30분이나 11시에 선풍기가동이 중단된다(A). 하지만 기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요청하면 시간 외에도 틀어 준다. 교도관에 따라서는 새벽에 선풍기를 틀어 주기도 한다.

겨울 난방은 복도에 있는 스팀기가 전부이고 전기장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냉기가 심하지만 바닥에 아무 것도 깔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방석도 없다. 온수는 10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1주일에 1회 제공된다. 한 겨울에는 개인 구매용 담요 3-4장, 여름이불 등을 덧대고 지낸다(D).

## 라. 습도

여름철의 습도는 매우 심각하다. 습도가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이다(A-D). 여름철에는 바닥이 마루이기 때문에 젖은 걸레로는 거의 닦지 않는다(C). 거실 내 곰팡이 많이 생기지만, 구치소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B)에 수용자들이 곰팡이를 제거하고 직접 도배도 한다(A). 환기나 통풍 장치가 없어 습기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C의 경우 거실 내 곰팡이는 없지만 다른 거실 수용자들로부터는 버섯 모양의 곰팡이도 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D는 수용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미리 관리한다고 한다. 거실 내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수용자들이 미리 조치를 취한다.

가끔 외부 방역업체들이 1-2개월 주기로 거실과 화장실 등을 분무기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바닥에 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습도 제거는 불가능하다. A의 경우 복도에 제습기라도 있었으면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거실마다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수용자들도 이해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의 배수는 양호하다.

다인실을 제외하면 선풍기 용량은 많이 부족하다. 선풍기 바람세기가 개선되면 통풍과 습도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D). 통상 선풍기 1대로 8명 정도가 그럭저럭 생활할 수는 있지만, 여름철에는 체온 발산열이 높아 견디기 쉽지 않다. 흐리고 습한 날씨에는 선풍기 1대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수용자의 제1과제는 청결이다. 거실에서 빨래를 말리지 않으면 습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D). 흐린 날씨에 빨래를 말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 마. 세탁 및 건조

세탁은 매일 일과 시간에 자율적으로 행한다.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개인 세탁을 한다. 세탁실에 탈수기가 있어 사방 도우미에 탈수를 부탁할 수 있다. 1-2개월 주기로 세탁비누와 세제 등이 지급되지만 보통은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한다. 세탁물 건조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건조대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건조시켜야 한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잘 마르지 않고 항상 눅눅하다. 건조대가 많지 않아 수용자 개인별로 1개의 수건만 널도록 자율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C). 특히 거실 내의 건조대는 사방이 막혀 있어 통풍이 가장 잘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흐린 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선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빨래를 자제하도록 자율 규제하고 있다(D).

1개월에 1회씩 거실별로 모포털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먼지가 더 묻어서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B). 하지만 모포털이마저 없으면 너무 먼지가 많을 것이다(D).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사방으로부터 먼지가 많이 들어온다. 세탁기가 없어 모포 등 침구 세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침구 세탁은 사비로 외부에 맡겨야 한다.

#### 바. 운동

수용자들은 모두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출역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에 샤워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운동 시간이 주어지며, 취사장 등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건물 한가운데 홀에서 운동할 수 있다. 토요일은 격주로 20분간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공휴일에는 운동 시간이 없다. 하지만 우천 시에는 운동이 취소된다. 하지만 비를 맞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일반 수용자(미결수)들은 실내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다. 운동 시간에는 걷기가

주된 내용이다(A).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제기차기나 걷기, 제자리 뛰기 등을 주로 한다(B, C).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상의를 탈의하고 겨울철에는 수용자 관복을 입고 운동한다. 미결수들에게는 운동화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비로 구입해야 한다. 운동은 거실별로 조를 짜서 순환식으로 진행된다. 실내 운동장이 협소한데도 거실 세 방 수용자들(대방 1개소, 중방 2개소)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운동하지는 못한다.

수용자들은 옥상을 운동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에 불만이다. 그들의 생각에 8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옥상의 공간이 충분히 넓다고 한다. 옥상에 햇볕도 쬐고 구보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맑은 날 30분간 모포 털기 할 때 일광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용자도 있었다. 모포 털기에 배당되는 시간은 이동에 소요되는 10분을 제외하면 실제 20분간뿐이다. 운동하는 것보다 거실에서 나와 외부 공기를 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D).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울증이 심해진다(D). 구치소 측에서는 보안 문제로 옥상 사용을 금하지만 그리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운동 시간 외에는 대부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11시, 2시-4시, 5시30분-저녁 9시전까지 녹화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다.

## 사. 목욕

40여명이 동시에 운동하고 약 5분 동안 다시 동시에 샤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 샤워실의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운동 후 샤워는 서열 순으로 한다(B). 잘 씻지 못해서 땀띠나 피부질환의 문제를 다수의 수용자가 경험하고 있다(A, B). 피부질환의 문제는 특히 여름철에 심해 땀띠 정도는 모두가 경험하는 편이다(D).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는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파우더 등을 구매하여 땀띠를 해결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도 냉수로 샤워를 해야 하며 온수는 1주일에 1회만 제공된다. 공용 목욕 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화장실에서 씻는다.

### 아. 식사

밥은 양껏 먹을 수 있으나 반찬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깍두기의 경우 1인당 5개 정도만 지급된다(A). 식사 질이 좋지 않는 편이다(B). 밥은 괜찮지만 반찬이 특히 부실하다. 따라서 쉽게 상하지 않는 반찬들은 남겨 뒀다가 나중에 먹기도 한다. 그 외 잔반들은 모두 사방 도우미가 수거해간다. 어류는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육류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D는 질은 좀 떨어지지만 밥과 반찬 모두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육류(고기반찬)는 1주일에 2회, 어류는 1주일 3회 정도로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반찬이 부족하게 나오는 때를 위해 김치 등을 보관해두지만, 여름철에는 음식 냄새가 심하고 잘 부패하므로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자율 규제한다.

취사장에 근무하는 A는 1600명에게 80kg의 육류만 제공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다고 말한다. 작년 겨울부터 규정이 바뀌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침은 2찬만 제공되고 있다. 이때부터 식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불만이다.

반찬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교정협회가 제공하는 멸치조림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A). 만성질환자용 식단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특정 반찬에 알레르기가 있는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반찬도 제공되지 않는다. 과일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하면 사비로 구매해야 하고, 빵은 금요일 1끼 식사 때 제공된다. 다른 수용 시설에서 이감해 온 D는 다른 곳에서는 과일도 가끔 지급되었다고 하며, 이곳에서는 샐러드 형식으로 과일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 시원한 음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식사는 식사용 테이블에서 공동으로 한다. 거실 내에 먼지가 많고 불편해서 면접에 응한 수용자들은 모두 식당 식사를 원했다. 식사 후 식사 당번이 식기를 세척하고 그릇을 담아 두는 큰 통에 넣어 말린다. 구치소 측에서는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취사장에서 끓인 물을 거실마다 하루에 3번(6-8리터) 지급하고 있다. 이 뜨거운 식수를 이용하여 수용자들은 차를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D). 그리고 각 층에 온수기가 있어 사동 도우미에게 부탁하면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거실 내에서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풍경 중의 하나는 수북이 쌓여 있는 컵라면들이다. 수용자들은 거실 북도 쪽으로 수건이나 풋말 등을 거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 사동 도우미로부터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

식사의 질도 문제이지만 식사 배급이 거실 복도 쪽 벽 밑의 배식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불만 사항이다(D). 배식구에 대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며, 창문 틀 쪽에 배식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 자. 기타 문제점 및 건의 사항

출역자들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 한다. 잘 쉬지도 못하고 일이 고되다. 직원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하다(A).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화장실 벽이 투명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며, 화장실을 사용할 때 동료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 좌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통증이 있는 수용자들은 불편을 겪는다. 또한 화장실 내에서 세탁도 해야 하는데 용변 보기에 너무 협소하다(B).

이불 세탁을 거의 하지 못해 위생에 문제가 있다. 운동 시간에도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C). 배식구의 개선을 요구한다(D).

#### 차. 여성 수용자 면담(2명)

- 면담대상 1: 여성, 만 27세, 수용기간; 2개월
- 채광: 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 책이나 바느질을 할 정도로 밝지는 않음. 낮에도 복도에 불을 켜놓음.
- 환기: 외부공기는 잘 들어오는 편으로 주로 복도쪽에서 들어옴. 거실악취는 크게 문제 아니며 페브리즈 등을 사용할 수 있음. 화장실에 환풍기를 달아주면 좋겠음.
- 습도: 거실의 습도는 여름기간동안 심했음. 널어놓은 옷이 3-4일동안 마르지 않은 적도 있음.
- 냉방: 거실 가장자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는 선풍기 바람이 미치지 못해 매우 덥다.
- 전체적으로 선풍기바람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위치에 선풍기를 다는 것이 필요.

- **면담대상 2: 여성, 만 40세, 수용기간; 7개월**
- 채광: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너무 답답하게 해놓음.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갇혀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함. 한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다.
- 환기: 방충망 때문에 답답한 점이 많음. 먼지가 많이 끼고 바람도 잘 안들어온다. 손을 넣을 수 없어 청소를 할 수도 없음.  
화장실 환기가 잘 안돼서 일을 나갈 때 문을 열어놓고 가나 일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음.
- 습도: 습기가 많음. 비오는 날이면 더 많이 남. 피죤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비누만 사용가능해서 빨래에서 더 냄새가 나는 편임. 봄부터 매트리스에 물이 흥건히 배기도 하였음.  
통풍이나 습도조절을 위해서 불을 한번씩 E1 주거나 복도 쪽 창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음.
- 냉방: 복도에는 냉방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옷이 다 젖음. 끝에 있는 사람은 선풍기 바람이 안옴.
- 세탁: 직원빨래도 사동청소부들이 해야 함.
- 운동: 12명정도가 운동실을 함께 사용해서 장소가 협소하여 홀라후프 등의 사용이 불가능함.
- 기타사항: 하루 한번씩 뜨거운 물을 넣어주지만 아주 뜨겁지는 않음. 그냥 물은 냄새가 나서 등글레차나 옥수수수염차 등을 사서 타서 마실 수 밖에 없음.

## B. 인천 구치소

- 면담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 28일. 대형 강당.
- 면담 대상자: 집단 면접 실시

〈표 II-3-2〉 면접대상자

	성별	연령 (세)	구분	거실 유형	출역	수용 기간 (개월)
A	남	24	기결	11명 거주	취사장	11
B	남	54	미결	12명 거주	-	6
C	남	53	미결	14명 거주	-	27
D	남	43	미결	11명 거주	-	10

### 가. 채광

면접에 응한 수용자 4명 모두 거실이 서향이어서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응답했다. 하루 중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용자 중에는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거실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 설치 여부가 채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모기나 벌레 등을 막기 위해서는 방충망이 필요하다. 거실 내의 방충망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외벽 쪽이며 모기장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화장실의 방충망으로서 단단한 금속 형태로 되어 있고 고정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용 방충망인데, 여름에는 통풍을 위해 떼어 낸다고 한다.

거실에 햇빛이 들지 않지만 낮 시간에 실내등을 켜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실내 조명은 비교적 밝은 편인데, 거실에 대형 형광등이 2개, 취침용 오슬람등 2개, 화장실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오후 9시에 취침하는데, 이때는 일반 형광등은 소등하고 취침등만 점등한다. 취침 시에는 취침등(오슬람등)의 조도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수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조명 문제로 눈이 침침하거나 두통을 느낀 적은 없다고 한다. 전등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나. 환기

여름철에는 북도로 향해 있는 거실 내 창문도 모두 탈착시킬 뿐만 아니라 북도에 있는 외부로 향하는 창문을 모두 열어놓기 때문에 바람이 거실 내부로까지 들어와 통풍은 잘 되는 편이며 따라서 거실 내 악취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북도 쪽 창문은 7월 중순경부터 약 1개월 동안 통풍과 환기를 위해 떼어 놓는다.

거실 및 화장실 소독은 1개월 분사식으로 1-2회 시행하고 있다. 화장실 환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어서 악취가 거실 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에게 보여 질 수 있으나, 적용이 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앉은 자세를 취할 경우 머리가 보일 정도로 투명 유리 부분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다. 습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눅눅하기 때문에 선풍기로 건조하고, 파우다를 뿌린다고 한다. 거실 벽이나 바닥, 화장실 등의 곰팡이 문제는 청소를 자주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주일에 1회 거실 대청소를 한다. 거실 내 싱크대와 화장실의 배수는 양호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습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마철이나 우천 시에는 습기가 차는데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 전기 배선이 되어 있는 판넬로 되어 있으면 습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라. 세탁 및 건조

속옷이나 수건 등은 샤워하는 도중에 빨래를 하고 관복은 1주일에 정해져 있는 세탁일에 맞춰 빨래를 한다. 관복 세탁은 세탁기를 활용하며 하루에 두 개의 거실씩 세탁 날짜가 정해져 있어 세탁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관복 세탁은 거실마다 따로 세탁 당번이 수용자의 관복을 모두 모아 사동 도우미에게 전달하면 사동 도우미가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한 후 다시 세탁 당번에게 건네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세탁실에는 거실별 공용 세제가 구비되어 있

는데, 이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각출한 비용으로 마련된다. 세탁비누 등도 지급되기는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다.

세탁 공장이 따로 있으나 일반 세탁물 세탁에는 이용되지 않고 모포나 깔판 등의 세탁이 필요할 경우에 가동된다. 수용자 중에는 개인적으로 밍크 담요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세탁물은 개별적으로 외부에 맡겨 세탁을 해야 한다. 담요 1벌 세탁 비용은 5천 원이다. 관복은 계절마다 지급되며 1주일에 2회 수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결레나 수건, 속옷 등 비교적 가볍고 잘 마르는 세탁물은 거실 안에서 말린다. 선풍기 바람에 비교적 잘 마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세탁물의 선내를 없애기 위해 ‘피죤’과 같은 탈취 효과가 있는 섬유세제를 넣어 세탁하거나 ‘페브리츠’와 같은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빨래 건조를 위해 샤워 실 옆에 건조실이 마련되어 있고 두 개의 거실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고 한다.

수용자들에게는 입소할 때 모포가 1개씩 지급되는데, 거실 내 단체 생활 중에 발생하는 많은 먼지로 인해 1개월에 1회씩 건물 옥상에서 ‘모포털기’를 실시한다.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이며, 세탁 당번 3-4명이 거실 내 모포를 모두 수거하여 먼지를 털고 일광소독을 한다. 이때가 햇볕을 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만 이동하는 것을 귀찮아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 마. 운동

운동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운동장에서 실시한다. 거실마다 운동 시간이 순환적으로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운동은 방별로 이루어져 한 번에 14명 정도가 같이 한다. 운동은 오로지 실내 운동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흙을 밟을 수 없다는 점이 수용자들에게는 불만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내 운동장이 너무 협소한 점도 큰 애로 사항이다. 팔굽혀 펴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두 군데 설치되는 것 외에 달리 운동 장비가 없어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 시간을 보낸다. 장소가 좁아 달리기를 하면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장소가 좁아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줄넘기는 자살에 이용될 수 있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장의 천정이

낮아 지급되어도 소용이 없다. 운동을 원하지 않는 동료 수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가 최소한 1명 이상 거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수용자들은 이를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름철 운동은 운동화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행하는데, 실내 운동장의 환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나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운동해야 하므로 더위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 운동 시간 외에는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 시청, 신문을 보거나 독서, 편지 쓰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규율은 엄격하지 않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나 수용자가 취침 시간 외에 잠을 자는 행위는 수용자 사이에 자율 규제되고 있다.

#### 바. 목욕

운동 시간 30분에 샤워시간이 포함되며, 운동이 끝나야 단체로 샤워할 수 있다.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동시에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더라도 장소가 그리 협소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 동절기의 온수 샤워는 주당 1회이며, 건물 구조 및 수용 인원의 문제로 인해 1일 2회 이상 샤워는 어렵다는 것을 수용자들은 느끼고 있다. 잘 씻지 못해 생기는 피부 질환의 문제는 거의 없으며, 피부병이 생긴 수용자는 즉시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는 있지만 운동 후 샤워하고 귀방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사. 실내 온도 및 냉난방

10명 이상 수용되어 있는 대방에도 선풍기가 1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매우 덥다고 한다. 선풍기는 시간 제약 없이 가동한다. 거실 코너 부분은 바람이 잘 가지 않고 중간 부분만 시원한 편이다. 최소 2대는 있어야 거실의 안쪽까지 찬바람이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선풍기는 천정형이며 벽걸이 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을 경우 안구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용자들이 거실 내에서 선풍기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며, 취침 시간에는 교도관이 거실 외부에서 선풍기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있다. 통상 선풍기는 하절기, 즉 7월 중순경부터 9월까지 가동하는데, 실내 온도에 따라 작동 시기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아. 식사

취사장으로 출역하는 수용자의 경우 식사는 양껏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샤워 시설 및 운동 공간(중앙의 홀)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1일 3끼 3찬에 밥과 국이 제공된다. 밥은 양껏 먹을 수 있지만 반찬의 경우 거실별로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사방 도우미가 적절하게 할당한다. 취사장에서는 수용자들이 넉넉하게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모자라는 사동도 더러 발생한다. 반찬이 부족한 경우 더 요구할 수 있으며, 맛도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한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국 등을 배급받는 거실에서는 음식이 차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덧붙여 음식의 질에 대한 불평은 간혹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이나 반찬이 짜거나 싱겁다거나 건더기가 없다는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이다. 배급받는 반찬이 넉넉하지 않아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기도 한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가급적 바로 먹는다고 한다.

취사장에서 출역하는 수용자에 따르면, 반찬 재료 등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입고 하며, 신선하지 않은 재료들은 바로 반품 처리한다. 찬거리들은 대형 냉장고 속에 보관한다.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작성되고 취사장 주임의 검식 후 각 사방으로 배급된다. 취사장 출역자들은 대부분 조리 경험이 없는 자들이나 일을 하면서 하나 둘 조리하는 법을 배우나간다.

식사 장소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식당 식사보다 오히려 거실 식사가 더 좋다고 말한다. 식사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여간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실 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식사 후 음식물 냄새로 인한 애로 사항은 없다고 한다. 식사 시간에는 식사용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대방의 경우에는 큰 것으로 두 개가 있어 붙여서 사용한다.

식사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중의 하나는 배식 방법이다. 현재는 출입문 하단에 배식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몇몇 다른 구급시설에서처럼 문을 열고 배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식사 후 설거지는 식사 당번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식기는 1개월에 3회 정도 소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강화되었다.

제공되는 식사로 육류는 돼지고기 야채볶음 등 주당 1회, 닭고기 등 1주일에

4회 정도 제공되며, 과일은 1주일에 2회 제공된다. 두유, 주스, 요구르트는 제공되지만, 빵이나 면류는 제공되지 않고 가끔 잡채가 나오기도 한다. 환자는 물론 거실에 있는 몸이 불편한 수용자에게도 미리 신청하면 밥 대신 죽이 제공된다. 내국인 수용자들은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식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자. 기타 건의 사항

여름철 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을 전기 배선이 되어 있는 판넬로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실외 운동장에서 운동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 차. 교도관 면담 사항

구치소 측에서는 특정 수용자들에게만 불편함이 집중되지 않도록 식사 및 세탁 당번을 강제로 지정하고 있다. 3대의 대형 세탁기가 있는데, 이는 주로 관복 및 모포 교체 시에만 사용한다. 개별 수용자들은 각 거실마다 지정된 세탁 시간에 단체로 세탁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빨래한 세탁물을 사방 도우미를 통해 세탁 시간 이후에도 세탁실에 마련된 탈수기를 이용하여 탈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방 도우미에게 요청하면 교도관은 탈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고 한다.

문을 열고 음식을 배식하는 방법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없지 않으나 배식 과정에 더 많은 교도관의 배석이 요구되므로 경비교도대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층건물 형 구금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 발생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한다.

수용자들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토로한다고 지적하며, 식판 식사는 현재처럼 거실에서 식사를 할 경우 배급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뜨거운 밥과 국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도 각 환자별로 식판 식사가 제공되고 있어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 C. 울산 구지소

○ 면담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 29일. 변호인 접견실.

〈표 II-3-3〉 면담 대상자

	성별	연령 (세)	구분	거실 유형	출역	수용 기간 (개월)
A	남	60	미결	4명 거주(7-8명 수용가능)	소년범 생활 지도	4
B	남	22	기결	10명 거주(대방)	-	8
C	남	58	미결	7인 이상	-	2
D	남	44	기결	7인 이상	-	9
E	여	41	미결	4-6인	-	5
F	여	26	미결	7인 이상	-	1

#### 가. 채광

거실 내로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반사 빛이 보이는 정도로 열악하다. 햇빛은 거실 외부 보수 통로까지만 들어온다. 따라서 나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낮에 전등을 켜지 않고는 독서나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 수용자의 경우 낮에 불을 키지 않아도 사물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다만 날씨가 맑은 날 거실 창문으로 하늘을 볼 수는 있다. 채광 정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수용자의 경우 대부분 거실 내로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한 여성 수용자(F)는 맑은 날 햇빛이 거실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여자 수용자(F)은 낮에는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한데 형광등을 켜두는 것은 낭비인 것 같다고 말한다. 남자들은 낮에 자연광만으로도 책을 읽거나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가 각기 상이했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낮에 거실에 형광등을 키지 않고도 독서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일반적이었다.

한편,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거실에는 방충이 설치되어 있다. 햇빛이 거실 내로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는 거의 없

다. 다만 방충망이 있음으로 해서 거실이 좀 더 어둡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방충망이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다. 방충망은 고정식(화장실)과 착탈식(거실)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하절기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높고 원활한 통풍을 위해 거실 쪽 방충망은 떼어내는 것이 보통이다.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형광등을 켜두기 때문에 시력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나이가 많은 수용자나 젊은 수용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남자 수용자 D는 햇빛이 거실 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에 형광등을 켜도 어두운 편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수용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충분한 밝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밤에 취침 시에는 취침등을 항상 켜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남자 수용동의 경우, 거실 내 야간등은 전적으로 교도관들이 통제한다. 수용자들이 실이나 천으로 취침등을 가려 보지만 교도관들이 이를 다 제거한다. 하지만 여자 수용자들은 불을 켜고 끄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자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취침 전등의 조도를 적절히 낮추어 주면 괜찮겠지만 근무자마다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수용자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급적 교도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취침등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거실 온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조명시설의 하자보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나. 통풍과 환기

통풍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은 연령에 따라 달랐다. 나이든 수용자의 경우 통풍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젊은 수용자는 통풍이 잘 안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나이든 수용자는 방충망 설치 여부는 채광이나 통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대다수가 외벽과 거실 중간의 이동용 통로와 아크릴 벽이 통풍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응답자 A의 경우, 거실 식사로 인해 거실 내 음식 냄새가 배는 정도는 약하며, 오히려 수용 인원이 문제라고 한다. 과일 수용일 경우 땀 냄새, 채취 등이 거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용변 시에는 화장실 문을 닫고 용변 후 많은 물을 부어 악취를 제거하고 있다고 한다. 화장실 문의 개폐는 통

풍이나 환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B의 경우 거실 식사로 인한 음식 냄새가 배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환기를 잘 시키면 거실 내 악취 문제는 없다고 한다. 다만 거실 밖에 관구실이 위치해 있어 관구실에 에어컨 가동 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이 거실 내로 유입되지 않아 매우 덥다고 호소한다.

남자 수용자들은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 내로 스며들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많이 부어 냄새를 제거하려 한다. 이물질이 끼면 변기가 잘 막히기 때문에 양변기로 교체하거나 수압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화장실 문을 열어 두면 통풍에 좋기 때문에 거실 사정에 따라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곳도 있다고 한다(A). 여자 수용자들(E, F) 역시 거실 내 환기는 잘되는 편이라고 말한다. E의 경우 수시로 소독을 해서 악취가 없다고 말하며, F는 날씨가 흐린 날 간혹 잠깐 안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화장실 출입문을 거실 쪽으로 열어두면 맞바람 때문에 더 시원하고 환기도 잘 된다. 화장실의 악취는 거의 거실 내로 스며들지 않으며 화장실 배수 상태도 양호하다.

거실 내 음식 냄새의 문제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제기된다. 여름에는 창문을 떼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겨울철에도 창문을 열면 자연통풍에 의해 환기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이다(E, F).

화장실이나 거실은 외부 방역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소독의 주기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에 응한 수용자들은 어떤 동료 수용자의 경우 울산 구치소에서 9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거실 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어떤 수용자는 2개월 간 생활했지만 거실 소독은 한 차례로 없었다면서 불만이 많다는 말을 전했다. 반면 입소한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 거실 소독을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면접에 응한 수용자들은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올 경우 질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거실일수록 소독의 빈도를 높이고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독의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화장실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관 소독 등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 습도

통풍이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거실 습도는 보통 수준이다. 습한 편은 아니며 마룻바닥도 괜찮다. 하지만 오히려 겨울철에 습기가 차는 편이다(B). A에 의하면, 거실 내 누수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수선이 되어 양호하다고 한다. B 또한 배수 문제를 제기했는데, 화장실의 배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싱크대의 배수는 불량한 편이며 보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청소를 자주 하기 때문에 거실, 화장실의 곰팡이는 거의 없다(A, B). 여자 수용자들 역시 별로 습하지 않다고 하며, 장마철에는 좀 습하지만 견딜만한 정도이며, 거실 바닥, 벽면 및 화장실의 곰팡이는 없다고 한다.

거실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상 후 및 취침 전 등 하루에 2회 물걸레질을 하며 완전히 마른 후에 이용한다고 한다. 청소는 당번제로 하며 비교적 수용자들이 솔선수범하는 편이다(B).

### 라. 세탁 및 건조

속옷, 양말, 수건 등 가벼운 개인 세탁물은 싱크대 밑에서 매일 세탁한다(A, E). 일반 세탁은 1주일에 1회 정도 이용할 수 있으나, 옷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될 때나 관급모포를 세탁할 때가 아니면 거실 싱크대에서 빨래를 하는 편이다. 거실별로 배당된 세탁 시간 외에도 사동 도우미에게 개인 세탁물의 탈수(탈수기 이용)를 부탁할 수 있다. 개인 세탁물의 건조는 거실 내에서 주로 하는데, 잘 마르는 편이며, 쉼내를 예방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A의 경우, 거실 내 건조대는 3줄로 되어 있어 4명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모포 소독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며, 관급모포는 세탁이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구매한 모포는 구치소 내에서 세탁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한다. 때문에 적당히 사용한 후 버릴 수밖에 없다. A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담요는 외부 세탁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B에 의하면 5,000원 비용으로 외부 세탁이 가능하다고 한다. 1주일에 1회 각 거실별로 지정된 시간에 옥상에서 약 30분 동안 모포걸이를 실시한다. 이 시간에 모포의 먼지도 털고 일광욕도 할 수 있다.

B, D 역시 거실 내에서 세탁을 한다고 하며, 운동 후 샤워장에서도 세탁을 한다. 1주일에 1회 주어지는 세탁 시간에는 이불이나 모포 등을 세탁하며 세탁

한 침구는 방에서 건조시켜야 한다고 한다. 탈수는 손으로 하거나 사동 도우미에게 부탁해서 탈수기를 이용한다. 습한 날에는 거실에서 빨래를 말려야 하기 때문에 눅눅하고 잘 마르지 않는다. 여자 수용자들은 샤워실에서 의복을 세탁한다고 한다. 여자 수용동에서도 봉사원(도우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탁기나 탈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 거실에 널어둔 빨래는 비교적 잘 마르는 편이다. 습한 날은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선내가 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탁을 다시 한다. 수용자들은 세탁물 건조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보였다.

이밖에도 관급으로 지급된 수건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수건이 부족한 동료에게 수건을 주는 것도 나중에 되돌려 받아야 하므로 불편해서 행하지 않는다. 구치소 측에서는 수건이 자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수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방식이 수용자들 사이에 상호부조를 제한하는 '구속'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마. 운동

A의 경우, 운동은 매일 열심히 하는 편이다. 다만 운동 시간에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실에서 한다고 한다. 실내 운동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로 걷기 밖에 할 수 없어 거실 운동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내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수용자는 거실에서 샤워를 한다. 운동에 주어진 시간은 총 30분이지만 샤워하는데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분가량 운동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운동시간이 30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0분간 주어지는 샤워 시간에 세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라면서 운동시간이 30분이라는 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샤워실의 수도꼭지는 성능은 양호한 편으로 물이 잘 나온다. 운동 시간에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할 경우 반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는데, 입소 때 고무신만 지급되기 때문에 운동화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실내 운동장은 햇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는 편이다. 하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에 12-13명이 운동하기에는 불편하다. 운동 기구는 전혀 없으며 수용자들이 비닐로 제기를 만들어 놀이하는 정도이다. 구치소 측에서는 수용자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소프트한 공이라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B 역시 실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유형이 걷거나 뛰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미결수(20분)와 기결수(30분)의 운동 시간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운동 시간에 운동이나 샤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거실 내 샤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거실에서 샤워하더라도 교도관들이 크게 제지하지 않는다. 동절기에는 1주일에 1회 온수 샤워를 할 수 있고, 봄, 가을에는 운동 후에 거실에서 샤워하기도 한다. 거실별로 운동을 하며 나이가 든 수용자는 운동은 하지 않고 샤워만 하는 경향이 있다. 샤워실의 수도꼭지가 많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최소한 1인당 1개씩 배당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한다. 샤워를 위해 관급 비누나 샴푸가 제공되지만 부족하며 사비로 부족분을 구매하는 편이다. 모두 조금씩 비용을 각출하여 공동 물품을 구매한다. 그렇지만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B의 경우, 1주일에 1회 주어지는 모포털이 시간을 이용해 일광욕을 한다고 한다. 이 시간에는 거실 내 모든 수용자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광욕을 즐긴다. B의 바램은 모포털이 장소를 상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대개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성 수용자의 경우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1일 1회의 운동 횟수와 관련하여 남자 수용자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했고 여자 수용자들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출역수를 제외하면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약적이다. 금요일에는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바람을 쐬는 정도에 그친다. 남자 수용자 중에는 러닝머신이나 역기 등 헬스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자 수용자(E)는 홀라후프, 사이클 러닝 등이 제공된다고 응답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주된 운동은 걷기이며 운동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종목의 운동은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줄넘기는 많은 수용자들이 원하는 운동기구이지만 수용자들이 자살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운동 종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정당국의 인식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실내 운동실은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드는 편

이다. 실내 운동실에는 식수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세면이나 샤워는 별도의 샤워장에서 해야만 한다. 야외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 운동실에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여자 수용자의 경우 하절기에도 오전 8시와 오후 3시에 온수가 공급된다.

## 바. 목욕

거실 화장실에는 따로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변을 본 이 후나 날씨가 더울 경우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사용한다. 가끔 화장실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지만 수용자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자주 씻는 것이 여의치 않고 날씨가 더워 가랑이 사이에 피부질환이 발생한 적도 있다.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수, 금요일에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잘 맞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A). 화장실 용변 후 변기 세척을 위해 싱크대 쪽에서 물을 통에다 부어 옮겨 사용하고 있다. 수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해 고무호스의 길이도 짧게 하고 있어, 용변 후 뒤처리를 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B).

30분 운동 시간 내에 샤워 시간 10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만이다. 샤워 시간만큼 운동을 더 하고 거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금지시킨다. 또한 샤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샤워 공간은 제한적인데, 운동과 샤워를 거실 단위로 시행하게 되면, 수용 인원이 많은 거실의 경우에는 운동과 샤워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실 수용인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자 수용자들 역시 샤워실에서의 샤워만으로는 부족하여 눈치껏 거실(세면대)에서 목욕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녀 모두 샤워실의 공간은 충분하고 배수도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사. 실내 온도와 냉난방

거실의 실내 온도는 몇 명이 한 방을 같이 쓰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A의 경우 4명밖에 생활하지 않아 실내 온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방이 크지 않아 거실 중앙 천정에 부착된 선풍기 한 대로도 냉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선풍기는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강약을 조절하여 사용하며 24시간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풍기가 낡아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야간 취침 시간에 가동되는 선풍기는 잠을 자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면 B의 경우, 열 명 이상 한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풍기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거실 가장자리까지 선풍기 바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이 덥고 습도가 많은 날에는 오히려 더운 바람이 나와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최소 두 대가 필요하다. 동료들의 체온으로 인해 거실 온도가 올라가서 씻고 나서도 금세 땀이 난다고 한다. 자주 샤워하고 싶어도 거실 동료들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 자제하고, 화장실에서 목욕할 때는 패트병을 이용하여 소리를 최소화한다. 통상 아침에 일어난 뒤, 운동이나 작업 후, 취침 전에 샤워한다고 한다. 샤워하는 데 크게 제재가 없어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자 스스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자 수용자 거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선풍기 1대로 7명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낮에는 비교적 덥다는 것이다. 때문에 화장실 출입문을 열어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선풍기의 조작은 여자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며 야간에는 수용자들이 춥다고 하면 선풍기 가동을 외부에서 차단해주시기도 한다.

냉방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덥지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거실 내 난방 시설이 없어 상당히 춥다. 난방 시설은 복도의 히터 장치가 유일하지만 찬 공기가 거실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복도 쪽 창문을 닫기 때문에 거실에 냉기가 돈다는 것이다.

### 아. 식사

식사의 질은 비교적 일정하고 나쁘지 않아 먹을 만하며 양도 넉넉한 편이다. 밥과 국은 개인용 식기에 떠먹고 반찬은 하나의 용기에 넣어 같이 먹는다. 식사는 식사용 탁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다. 아침은 2찬, 점심과 저녁은 3찬이다. 개인적으로 교정협회에서 제공하는 훈제치킨, 소시지, 멸치조림, 고추장 등을 구입하여 먹기도 한다. 과일과 빵은 제공되지 않아 매식해야 하고 면류도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짜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제비는 가끔 제공되는 편이다. 식사 후에 식사 당번이 식기를 세척한 뒤,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식기 진열장이나 소쿠리 등에 보관한다. 식사와 관련

한 애로 사항은 없다고 말한다(A). B, C의 경우 거실 식사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대개의 수용자들은 한 번이라도 거실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A, D, E, F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이동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번거롭고 거실 식사가 더 편하다고 말한다.

밥과 찬은 충분히 제공되며 모자라는 경우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맛있는 반찬이 나올 경우에는 공급에 차질이 생겨 더 요구해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1식 3찬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양은 적지만 맛은 괜찮다는 의견(C, D)도 있지만, 식사의 질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마지못해 먹는 정도라는 입장이 있다(A, B, F). 어류와 육류도 제공되는데, 육류의 경우 양이 충분하지 않아 고기를 갈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간혹 나중에 먹기 위해 깻잎, 고추장아찌 등을 덜 먹고 남겨 둔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 반찬은 남기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는 편이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식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별도의 식사가 제공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경우, 그 별도의 식사를 ‘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식기 세척은 식사 당번이 담당한다. 식기 세척은 주로 거실 내 싱크대를 이용하지만, 수용 인원이 많은 거실에서는 싱크대와 화장실에서 각각 식기 세척을 한다. 구치소 측에서 강제로 당번을 할당하지만 보통은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당번이 아니어도 솔선수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세척한 식기는 싱크대 위에서 건조시킨 다음 식기 진열장 혹은 관물대에 보관한다. 여자 수용자인 F는 매주 토요일에 약 30분간 식기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으며 설거지에 대략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식기 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하여 남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식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애로사항들로는 잔반을 너무 빨리 수거한다는 점, 신청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 냉장고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 자. 교도관 면담

### 1) 급식

2011년 6월 부식비는 수용자 1인당 3,430+50원이다. 수용자의 규모에 따라 기본 급식비에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용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때는 1인당 70원씩 더 지원된다.

부식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크게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부식비 운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공급이 어려웠지만 정부기관에서 수입산을 사용할 수 없어 국내산을 이용한다.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공급에 전자입찰을 권장하고 있다.

수용자 급식에서 돼지고기는 1주일에 최소 1회, 어류는 최소 3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냉장고를 창고형(6평 2개)으로 교체했고 김치냉장고도 도입했다. 부식은 월, 수, 금요일에 입고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공산품이나 식용류 등의 음식 재료, 신선도가 떨어지는 채소류, 어류, 육류 등은 바로 반품 처리한다. 취사장에서 출역하는 수용자들에게도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리 시에 먼저 먹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있고 무침류를 조리할 때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취사장에는 20명의 수용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식당 유경험자도 있다. 음식 조리에는 미리 작성된 조리방법을 이용하며 반가공된 식품이나 완제품도 많이 들여와 사용하는 편이다.

### 2) 근무환경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교도관들 역시 건물 안으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하며, 통풍도 잘 안 되는 편이라 한다. 선풍기와 냉방장치는 부족한 편이다. 수용 사동에 관구실 등 근무 장소에 에어컨 시설의 설치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아직 본격 가동하지 않고 있다. 사무실은 시원한 편이나 수용자와 생활하는 곳은 상당히 더운 편이다. 교도관은 특히 근무복을 입어서 더욱 덥다. 수용자들은 벗고 지내서 상대적으로 시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개 사동에 수용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관리가 어렵다. 현재는 100명 당 1명의 주 책임자가 할당되어 있다. 1개 사동의 수용 인원은 최소한 100명 미만

이 되어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다.

울산 구치소의 경우, 직원용 헬스장, 테니스장, 야구장, 골프 연습장 등 운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직원용 샤워 시설도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고 한다. 1끼 식사는 1,900원으로 저렴하지만 가격 때문에 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직원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야간 근무자를 위해 여자 교도관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남자 교도관은 막사형 야근실에서 휴식이나 잠시 잠을 청하면서 약 다섯 시간 정도 대기한다.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점이 불만이다.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사용이다. 여자 교도관의 경우 외부에 전화를 급하게 하려면 3층에서 1층 휴게실로 이동해야만 한다. 외부에서 오는 전화만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있는 여자 교도관은 자녀들과 자주 통화하지 못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심리검사를 상용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교도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문 교육보다 심리치료 교육 등 심리적인 문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이 더 요구된다.

물리적인 근무 환경은 양호하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거나 건물이 부식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사동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명의 밝기는 충분한 편이고 환기와 통풍도 잘 되고 있어 이로 인해 두통을 느낀 적은 없다.

울산 구치소의 경우 전체 교도관 187명 중 여자 교도관은 15명이다. 여자 화장실 내에 샤워실이 있어 화장실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샤워할 수 없는 점이 불편하다. 남녀 교도관 모두 4부제 근무 환경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4. 설문조사

##### A. 수원구치소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의 대상자는 남자 19명, 여자 10명 등 총 29명이다. 20세 이상 30대 미만 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이상 50대 미만, 50대 이상 60대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를 보면, 기혼이 44.8%, 미혼 20.7%, 이혼 34.5%이다. 교육수준은 졸업, 재학, 중퇴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결과 고등학교가 48.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복역하게 된 범죄의 유형으로는 강간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타(10.3%)으로 조사되었다.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은 한두건으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거실의 동거 인원수를 알아봤더니, 6명이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인(17.2%), 8인(13.8%), 9인(10.3%)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Ⅱ-4-1〉 성별

	빈도	유효 퍼센트
남자	19	65.5
여자	10	34.5
합계	29	100.0

〈표 Ⅱ-4-2〉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미결수	21	72.4
기결수	8	27.6
합계	29	100.0

〈표 II-4-3〉 연령대

	빈도	유효 퍼센트
1. 20세미만	1	2.3
2. 20세이상 30세미만	15	34.9
3. 30세이상 40세미만	7	16.3
4. 40세이상 50세미만	10	23.3
5. 50세이상 60세미만	10	23.3
합계	43	100.0

〈표 II-4-4〉 학력

	빈도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3	10.3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4	13.8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14	48.3
2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3	10.3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5	17.2
합계	29	100.0

〈표 II-4-5〉 혼인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미혼	6	20.7
기혼	13	44.8
이혼	10	34.5
합계	29	100.0

〈표 Ⅱ-4-6〉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개월 미만	4	13.8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	24.1
3개월 이상-6개월미만	11	37.9
6개월 이상-1년 미만	5	17.2
1년 이상	2	6.9
합계	29	100.0

〈표 Ⅱ-4-7〉 거실인원

	빈도	유효 퍼센트
1	1	3.4
2	2	6.9
3	2	6.9
4	1	3.4
5	5	17.2
6	9	31.0
7	2	6.9
8	4	13.8
9	3	10.3
합계	29	100.0

〈표 Ⅱ-4-8〉 오기전 건강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좋지않았다	1	3.4
좋지 않은 편이었다	5	17.2
그저 그랬다	8	27.6
좋은 편이었다	12	41.4
매우 좋았다	3	10.3
합계	29	100.0

〈표 II-4-9〉 현재 건강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좋지 않은 편이다	7	24.1
그저 그렇다	6	20.7
좋은 편이다	15	51.7
매우 좋다	1	3.4
합계	29	100.0

〈표 II-4-10〉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7	24.1
아니다	22	75.9
합계	29	100.0

〈표 II-4-11〉 종교

	빈도	유효 퍼센트
기독교	11	37.9
천주교	6	20.7
불교	9	31.0
기타	1	3.4
없음	2	6.9
합계	29	100.0

〈표 II-4-12〉 죄명

	빈도	유효 퍼센트
기타	3	10.3
강간	1	3.4
공정자기록불실기재	1	3.4
교통법규특례범위반	1	3.4

	빈도	유효 퍼센트
교통사고	1	3.4
도로 교통법 위반	2	6.9
마약	1	3.4
보건법	1	3.4
사기	7	24.1
살인미수	2	6.9
업무방해	1	3.4
업무상 배임등	1	3.4
업무상횡령	2	6.9
은닉	1	3.4
절도	2	6.9
폭력	1	3.4
횡령	1	3.4
합계	29	100.0

〈표 Ⅱ-4-13〉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동	5	20.0
남동	4	16.0
남	4	16.0
남서	5	20.0
서	6	24.0
북서	1	4.0
합계	25	100.0

## 2. 거실 생활환경 분석

### 가. 채광

수용자들의 일상은 대부분 거실 생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실 환경의 쾌적도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수적이다. 수용자들은 구급생활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긴장과 억압적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좌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요법도 필요하겠지만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수용자의 69.0%가 맑은날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잘 들어오는 편이라 막고 응답한 사람은 4(13.8%)명에 불과했다.

〈표 II-4-14〉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들어오지 않는다	10	34.5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다	10	34.5
보통이다	5	17.2
잘 들어오는 편이다	4	13.8
합계	29	100.0

〈표 II-4-15〉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어둡다	1	3.4
어두운 편이다	6	20.7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9	31.0
밝은 편이다	12	41.4
매우 밝다	1	3.4
합계	29	100.0

그러나 밤에는 책을 읽거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거실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에 불을 켜올 때의 거실의 밝기’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밝은 편’ 58.6%, ‘매우 밝다’ 6.9%로 거실내 불을 밝기는 일상활동을 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둡다는 의견은 6.9%, ‘적절하다’(중간)는 27.6%였다.

〈표 II-4-16〉 밤에 불을 켜올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인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어두운 편이다	2	6.9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8	27.6
밝은 편이다	17	58.6
매우 밝다	2	6.9
합계	29	100.0

야간시간대 조명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보다 더 밝거나 덜 밝기를 원하는 수용자가 65.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수용자들이 잠을 자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7〉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지금 그대로가 좋다	10	34.5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다	3	10.3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	16	55.2
합계	29	100.0

나. 통풍

수용자의 27.5%는 거실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거실 내 환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응답이 3.4%, ‘안 되는 편이다’가 24.1%이다. 또한 잘 된다는 응답은 27.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실 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실의 건축학적·구조적 특성 때

문이다. 거실 내에 환기장치가 없거나 거실 및 화장실의 창문에 부착되어 방충망이 통풍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용자가 전체의 63.6%였으며, 이밖에도 외부 창문이 없기 때문은 18.2%, 건물 외벽 쪽의 창문이 작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3.6%로 조사되었다.

〈표 II-4-18〉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안되고 있다	1	3.4
안 되고 있는 편이다	7	24.1
보통이다	13	44.8
잘 되고 있는 편이다	8	27.6
합계	29	100.0

〈표 II-4-19〉 환기가 안되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바깥으로 난 창문이 없어서	4	18.2
바깥으로 난 창문의 크기가 작아서	3	13.6
창문에 방충망이 있어 통풍이 잘 안되서	7	31.8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어서	7	31.8
기타	1	4.5
합계	22	100.0

거실 내의 악취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다. 거실 악취가 심하다는 의견은 17.9%, 심하지 않다는 의견(‘전혀 없다’와 ‘없는 편이다’의 합)은 25.0%, 그저 그렇다는 57.1%의 반응을 보였다.

악취가 나는 주된이유로는 거실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 43.5%, 그 다음으로 거실에서 말리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과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실청소나 이불담요등의 세탁을 자주 할 수 없어서가 13.0%로 동일하게 조사되어 전반적인 거실 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Ⅱ-4-20〉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악취가 심한 편이다	5	17.9
그저 그렇다	16	57.1
악취가 없는 편이다	6	21.4
악취가 전혀 없다	1	3.6
합계	28	100.0

〈표 Ⅱ-4-21〉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10	43.5
거실에서 말리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3	13.0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3	13.0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2	8.7
거실 청소나 이불 담요 등의 세탁등을 자주 할 수가 없어서	3	13.0
기타	2	8.7
합계	23	100.0

그런데 거실 악취와 비교했을 때, 화장실의 악취는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비록 많은 수용자들이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28.6%는 화장실의 악취가 매우 심하거나 심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표 Ⅱ-4-22〉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악취가 매우 심하다	1	3.6
악취가 심한 편이다	7	25.0
그저 그렇다	18	64.3
악취가 없는 편이다	2	7.1
합계	28	100.0

거실 내 화장실 악취 역시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2%가 화장실 내 환기장치의 부재로 인해 화장실 악취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화장실의 배수의 문제 및 창문의 부재도 각각 13.6%, 4.5%로 나타나 거실 내 화장실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이 방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3〉 화장실 악취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화장실청소를주하지않기때문에	3	13.6
화장실 내 창문이 없기 때문에	1	4.5
화장실 내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15	68.2
화장실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3	13.6
합계	22	100.0

다. 습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 여름철의 높은 습도는 큰 문제가 된다. 거실의 습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58.6%, ‘매우 높다’는 비율이 3.4%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62.0%의 수용자들이 습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반면 습도가 적당하는 응답은 31.0%, 높지 않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표 II-4-24〉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높지 않은 편이다	2	6.9
적당하다	9	31.0
높은 편이다	17	58.6
매우 높다	1	3.4
합계	29	100.0

라. 거실의 위생상태와 소독

1) 곰팡이 문제

거실 내 곰팡이 문제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7.1%, ‘심각하지 않은 편’이 17.5%로 대답한 반면, ‘심각한 편이다’ 32.1%, ‘매우 심각하다’ 3.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35.7%로 응답자들이 거실내에서 곰팡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머지 39.3%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Ⅱ-4-25〉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7.1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5	17.9
그저 그렇다	11	39.3
심각한 편이다	9	32.1
매우 심각하다	1	3.6
합계	28	100.0

2) 해충 및 벌레 발생

거실 내의 해충이나 벌레가 있느냐의 질문에 4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거실내 위생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Ⅱ-4-26〉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2	6.9
없어편이다	15	51.7
많은 편이다	11	37.9
매우 많다	1	3.4
합계	29	100.0

3) 거실 및 화장실 소독

거실과 화장실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신뢰할만한 것이 못 되었다. 거실 소독의 경우 비록 '1주일에 1회'의 응답비율이 22.2%로 가장 높지만, '모르겠다'는 비율도 29.6%나 되었고,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1.1%였다. 화장실 소독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1주일에 1회'의 응답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지만, '모르겠다'의 비율이 15.0%, '거의 없다'는 비율은 10.7%였다. .

〈표 II-4-27〉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하지 않는다	3	11.1
6개월에 1회정도	1	3.7
2개월에 1회정도	3	11.1
1개월에 1회 정도	3	11.1
1주일에 1회	6	22.2
매일	1	3.7
기타	2	7.4
모르겠다	8	29.6
합계	27	100.0

〈표 II-4-28〉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하지 않는다	3	10.7
6개월에 1회정도	1	3.6
3개월에 1회정도	3	10.7
2개월에 1회정도	1	3.6
1개월에 1회 정도	2	7.1
10일에 1회정도	1	3.6
1주일에 1회	9	32.1
모르겠다	8	28.6
합계	28	100.0

마. 거실의 배수상태

거실 내 배수상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0%가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가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7.1%는 매우 잘 된다고 응답했으며, '안 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17.9%였다.

〈표 II-4-29〉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 안된다	1	3.6
잘 안되는 편이다	4	14.3
잘 되는 편이다	21	75.0
매우 잘된다	2	7.1
합계	28	100.0

바. 하절기 실내 온도와 냉방

1) 실내온도

구급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가 겪는 애로 사항 중의 하나는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척 덥다는 사실이다. 거실이 '매우 덥다'는 응답비율은 24.1%, '더운 편이다'가 51.7%로 수용자의 75.8%가 여름철의 거실은 '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라는 응답도 20.7%, 서늘하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표 II-4-30〉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덥다	7	24.1
더운 편이다	15	51.7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6	20.7
서늘한 편이다	1	3.4
합계	29	100.0

2) 냉방의 가동

여름철 높은 실내 온도에 대한 대응책은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선풍기의 냉방 효과에 대해 긍정하는 수용자가 부정하는 수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즉 여름철 선풍기 가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3.4%였으나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2.1%로 높에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실에서는 거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풍기를 한 대씩만 배정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선풍기가 냉방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선풍기 설치수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는 지정된 시간에만 선풍기가 가동되어서가 28.6%로 나타났다.

〈표 II-4-31〉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대	28	96.6
2대	1	3.4
합계	29	100.0

〈표 II-4-32〉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도움 되지 않는 편이다	1	3.4
그저그렇다	10	34.5
도움되는 편이다	14	48.3
매우 도움된다	4	13.8
합계	29	100.0

〈표 Ⅱ-4-33〉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설치된 선풍기 수가 적어서	8	38.1
선풍기 바람이 약해서	1	4.8
선풍기 가동시간이 짧아서	3	14.3
실내온도에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대에만 선풍기가 가동되어서	6	28.6
기타	3	14.3
합계	21	100.0

선풍기의 가동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용자의 50.0%가 ‘적절한 편’으로 응답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전혀 적절하지 않다 포함)은 21.5%로 나타났다. 냉방의 문제는 냉방시설의 개체 수 및 냉방시설의 가동시간대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Ⅱ-4-34〉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3.6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5	17.9
그저그렇다	8	28.6
적절한 편이다	14	50.0
합계	28	100.0

〈표 Ⅱ-4-35〉 선풍기 작동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23	79.3
날씨에상관없이 시간적개념이심함	1	3.4
밤시간대 거실이 습한편이라	1	3.4
월기온에따라조절해야함	1	3.4
자유시간	1	3.4

	빈도	유효 퍼센트
저녁11시이후더움	1	3.4
지금보다 좀더 가동	1	3.4
합계	29	100.0

#### 사. 냉수샤워

여름철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더욱이 좁은 거실에 많은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체온에 의해 더욱 높아진다. 선풍기 가동과 함께 목욕과 샤워는 더위를 식히고 몸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가급적 자주 샤워를 하려 한다.

구치소 측에서는 운동 시간 이후 목욕 혹은 샤워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시간에 목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로 인해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냉수 샤워 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어 수용자의 78.6%가 냉수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표 II-4-36〉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2	78.6
아니다	6	21.4
합계	28	100.0

공식적으로는 목욕탕(샤워장)에서 허용되지만, 수용자들은 주로 화장실에서 자율적인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샤워 장소가 목욕탕(샤워장)이라는 응답은 34.5%였고, 65.5%는 거실 내 화장실에서 주로 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37〉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사동에 마련된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에서	10	34.5
화장실에서	19	65.5
합계	29	100.0

아. 피부 질환

높은 실내 온도와 높은 습도는 수용자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수용생활 중 피부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는 수용자는 55.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8〉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16	55.2
없다	13	44.8
합계	29	100.0

자. 불편요소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협소한 개인 공간(40.0%), 통풍과 환기(24.0%), 은 습도, 자주 목욕할 수 없는 점(각각 16.0%) 등의 순이었다.

〈표 II-4-39〉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통풍, 환기가 잘 안되는 점	6	24.0
높은 습도	4	16.0
높은 실내온도	1	4.0
협소한 개인 공간	10	40.0
자주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점	4	16.0
합계	25	100.0

### 3. 세탁과 건조

#### 가. 세탁의 허용과 세탁장소

침구를 제외한 일반 세탁의 경우 매일 세탁 시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수용자든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주로 세탁을 하는 곳은 거실 화장실 및 세면대(89.7%)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4-40〉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6	92.9
아니다	2	7.1
합계	28	100.0

〈표 II-4-41〉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 화장실/세면대	26	89.7
공용 목욕탕/샤워실	2	6.9
공용세탁실	1	3.4
합계	29	100.0

#### 나. 세탁의 주체

세탁은 대부분 수용자 본인(96.4%)이 하고 있으며, 세탁 당번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표 II-4-42〉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수용자 개인	27	96.4
수용자 중 세탁 당번제 운용	1	3.6
합계	28	100.0

다. 세탁의 방법

세탁은 응답자 전원이 손빨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43〉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손빨래	29	100.0

라. 세탁물의 건조방식과 장소

세탁물은 거실(82.8%)에서 말리거나 별도의 실내 공용건조실에서 (10.3%) 말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빨래줄에 널거나 세탁물 건조대에 널어서 말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물의 건조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60.7%)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Ⅱ-4-44〉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	24	82.8
공용 세탁실	1	3.4
별도의 실내 공용건조실	3	10.3
기타	1	3.4
합계	29	100.0

〈표 Ⅱ-4-45〉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빨래줄에 널어서	15	53.6
세탁물 건조대에 널어서	9	32.1
세탁물 건조기를 이용해서	4	14.3
합계	28	100.0

〈표 II-4-46〉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양호함	11	39.3
원내가 남	17	60.7
합계	28	100.0

마. 침구세탁

이불, 담요와 같은 침구 세탁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기타 의견을 제외한 ‘1년에 1회’가 1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1개월에 1회’가 각각 14.3%, ‘1주일에 1회’, 수시로의 순이었다. 누가 침구를 세탁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구치소측 24.1%로 나타났다.

〈표 II-4-47〉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년에 1회정도	5	17.9
6개월에 1회 정도	4	14.3
3개월에 1회정도	4	14.3
1개월에 1회정도	4	14.3
1주일에 1회정도	2	7.1
수시로	1	3.6
기타	8	28.6
합계	28	100.0

〈표 II-4-48〉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수용자 개인	16	55.2
수용자 중 세탁 당번	1	3.4
구치소 측	7	24.1
기타	5	17.2
합계	29	100.0

바. 침구의 교체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침구의 교체시기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수용자가 요구할 때’가 10.3%라고 응답으로 보아 수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침구가 교환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로 잘모름과 바뀌준적 없음이 24.1%로 나타났다.

〈표 II-4-49〉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8	27.6
매주1회	2	6.9
바뀌준적없음	7	24.1
본인요청	3	10.3
여름이불받음	1	3.4
잘모름	7	24.1
필요시	1	3.4
합계	29	100.0

4. 수용자의 식사

가. 식사의 양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양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의 양의 경우 응답자의 75.8%가 밥의 양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국의 양

또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6.9%가 국의 양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에 비해 반찬의 양의 만족도는 부족하거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23.1%로 밥과 국에 비해서는 다소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4-50〉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1	3.4
보통	6	20.7
충분	15	51.7
매우충분	7	24.1
합계	29	100.0

〈표 II-4-51〉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3	11.5
보통	3	11.5
충분	14	53.8
매우충분	6	23.1
합계	26	100.0

〈표 II-4-52〉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6	23.1
보통	6	23.1
충분	8	30.8
매우충분	6	23.1
합계	26	100.0

나. 식사의 질

식사의 양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46.4%), 국(44.4%), 반찬(53.8%) 각각 절반수준의 응답자들이 그 질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하다는 응답은 밥의 경우가 밥 32.1%, 국 18.5%이었으며 반찬은 19.2%로 나타났다.

〈표 Ⅱ-4-53〉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2	7.1
불량	4	14.3
보통	13	46.4
양호	6	21.4
매우양호	3	10.7
합계	28	100.0

〈표 Ⅱ-4-54〉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3	11.1
불량	7	25.9
보통	12	44.4
양호	2	7.4
매우양호	3	11.1
합계	27	100.0

〈표 II-4-55〉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3	11.5
불량	4	15.4
보통	14	53.8
양호	2	7.7
매우양호	3	11.5
합계	26	100.0

한편,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4.2%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4-56〉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3	15.8
아니다	16	84.2
합계	19	100.0

#### 다. 식사장소

출역을 나가는 수용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거실에서 식사를 한다. 모든 거실마다 식사용 탁자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당수(60.7%)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25.0%는 거실에서 각자 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 후 환기나 식기세척 및 정리(41.7%)에 대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57〉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각자)	7	25.0
거실(식사용 탁자, 상에서 같이)	17	60.7
공용식당	2	7.1
기타	2	7.1
합계	28	100.0

〈표 Ⅱ-4-58〉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식사 후 환기가 잘 안되는 점	10	41.7
식사 후 식기세척과 정리	10	41.7
식사용 탁자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1	4.2
기타	3	12.5
합계	24	100.0

라. 식사에 배정된 시간의 적정성

식사를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2%는 식사 시간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24.1%는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표 Ⅱ-4-59〉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부족하다	2	6.9
부족한 편이다	4	13.8
충분한 편이다	16	55.2
매우 충분하다	7	24.1
합계	29	100.0

마. 식기 세척 장소

식사 후 식기는 거실 내에 있는 싱크대(75.9%)에서 주로 세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장실(13.8%)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된 식기나 수저 등은 대부분 거실의 특정장소에 공동보관(60.7%)하고 있었으며, 식당이나 식기보관함(25.0%), 거실에서 각자가 알아서 (14.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60〉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싱크대	22	75.9
거실/화장실	4	13.8
공용 식기 세척장/세척대	2	6.9
기타	1	3.4
합계	29	100.0

〈표 II-4-61〉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각자)	4	14.3
거실(특정장소에 공동보관)	17	60.7
식당/식기보관함	7	25.0
합계	28	100.0

바. 식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거실 식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식사의 질’이 38.5%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식사장소(23.1%), 식기 세척 및 보관과 불편한점이 없다는 의견이 15.4%였다.

〈표 II-4-62〉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식사장소	6	23.1
식사의 양	1	3.8
식사의 질	10	38.5
식기 세척 및 보관	4	15.4
식사시간	1	3.8
불편한 점이 없다	4	15.4
합계	26	100.0

### 5. 운동

#### 가. 운동에 대한 욕구

폐쇄된 수용시설에서 매일같이 단조로운 생활하는 지속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은 기분을 전환함으로써 심신의 여유를 갖게 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준다.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96.6%)의 수용자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89.7%는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운동한다는 수용자의 비율은 69.0%로 나타났다.

〈표 II-4-63〉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	3.4
필요한 편이다	2	6.9
매우 필요하다	26	89.7
합계	29	100.0

〈표 II-4-64〉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0	69.0
아니다	9	31.0
합계	29	100.0

나. 운동의 이유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있어 운동은 건강을 유지(80.8%)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운동 장소가 협소한 현실은 수용자로 하여금 매일 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일 운동한다는 수용자를 포함하여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66.7%가 협소한 운동 장소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밖에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20.0%), 할 만한 운동이 없어서(13.3%)로 조사되었다.

〈표 II-4-65〉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빈도	유효 퍼센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21	80.8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4	15.4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1	3.8
합계	26	100.0

〈표 II-4-66〉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빈도	유효 퍼센트
할만한 운동이 없어서	2	13.3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3	20.0
운동 장소가 협소해서	10	66.7
합계	15	100.0

다. 운동시간

수용자의 59.3%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29.6%는 운동시간이 15분 이내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II-4-67〉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5분 이내	8	29.6
30분 이내	16	59.3
45분 이내	2	7.4
1시간 이내	1	3.7
합계	27	100.0

라. 운동장소

용자들의 운동 장소를 알아본 결과, 72.4%는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한다고 응답했으며, 야외운동장(17.2%)이나 옥상(3.4%) 등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8〉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옥상	1	3.4
야외운동장	5	17.2
실내운동장	21	72.4
거실	1	3.4
기타	1	3.4
합계	29	100.0

비가 올 경우에도 운동은 대부분(84.6%) 실내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69〉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야외운동장	1	3.8
실내운동장	22	84.6
거실	1	3.8
기타	2	7.7
합계	26	100.0

마. 운동종목

수용자들이 하는 운동의 86.2%는 걷거나 뛰기였으며, 운동은 하지 않고 단지 시간만 보내는 것도 6.9%로 나타났다. 혼자하는 운동을 주로하는 수용자는 55.2%, 여럿이 같이 하는 경우도 44.8%로 나타났다.

〈표 II-4-70〉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걷거나 뛰기	25	86.2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	1	3.4
체조나 요가, 줄넘기	1	3.4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보낸다	2	6.9
합계	29	100.0

〈표 II-4-71〉 운동시간에 혼자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한다	16	55.2
여럿이 함께하는 운동을 주로 한다	13	44.8
합계	29	100.0

〈표 II-4-72〉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3	10.3
1 (없음)	3	10.3
2 (있음)	10	34.5
달리기	2	6.9
스트레칭	1	3.4
족구	2	6.9
줄넘기	3	10.3
축구	1	3.4
탁구	1	3.4
헬스	2	6.9
홀라후프	1	3.4
합계	29	100.0

바. 운동만족도

협소한 운동 공간, 부족한 운동기구, 짧은 운동시간 등은 수용자의 운동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 수용자들의 운동 장소 관련 만족도는 3.4%에 불과하며 86.2%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운동기구와 운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운동기구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84.6%, 운동시간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69.0%나 된다.

〈표 II-4-73〉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2	41.4
불만족	13	44.8
보통	3	10.3
만족	1	3.4
합계	29	100.0

〈표 II-4-74〉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6	61.5
불만족	6	23.1
보통	3	11.5
만족	1	3.8
합계	26	100.0

〈표 II-4-75〉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0	34.5
불만족	10	34.5
보통	8	27.6
만족	1	3.4
합계	29	100.0

수용자들이 운동과 관련하여 느끼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측정 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실외운동 공간 부족이 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내운동 공간 부족(34.6%), 운동기구 부족(11.5%)의 순이었다.

〈표 II-4-76〉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실외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14	53.8
실내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9	34.6
운동기구가 부족한 점	3	11.5
합계	26	100.0

### 【요약】

29명의 수원구치소 수용자(기결 8명, 미결 21명, 남자 19명, 여자 10명)를 대상으로 수원구치소의 시설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채광, 환기, 통풍, 습도, 실내온도, 세탁, 급식, 운동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먼저 채광과 관련하여 69%의 응답자가 맑은 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수원구치소의 채광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 실내밝기가 매우 어둡거나 어두운 편이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4명 중 1명꼴이어서 낮시간에 햇빛을 통한 채광에 개선할 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로 밤시간대의 조명은 밝거나(58.6%) 너무 밝아서(6.9%) 오히려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55%)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수용자 면담에서 잘 때 안대를 쓰고 자는 수용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밤시간의 조명이 잠자기에 방해가 되는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볼 만하다.

통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통풍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의 불만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실내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그리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악취의 주원인으로 꼽힌 것 중에서는 거실에서의 식사로 인한 냄새를 주된 이유로 꼽은 수용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거실에서 널어놓은 빨래로 인해, 또는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화장실의 악취에 대해서는 30%정도가 악취가 심한편이거나 매우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화장실 악취의 원인이 화장실 내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아 화장실의 환기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거실습도에 대해 62%가 습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하여 거실습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곰팡이나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35%-40%정도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거나 해충이나 벌레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거실 및 화장실 소독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율은 10%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2-3개월에 한번씩은 소독을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독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 실내온도에 대해서는 더운 편이거나 매우 덥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나타나 여름철 냉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개 거실에 1대씩의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선풍기 수가 적어 더위를 식히기에

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풍기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날씨가 더운 경우에는 화장실에서의 냉수샤워를 할 수 있어서 더위에 대한 불편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하절기 장마시에는 빨래 건조가 일반가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구급시설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거실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61%가 원내가 난다고 응답하여 건조상태가 썩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밥과 국의 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39% 정도가 불만을 나타내었다. 운동은 주로 실내(76%)에서 걷기나 뛰기(86%)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으로 줄넘기, 헬스 등을 꼽았다.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선 86%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운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동기구와 운동시간에 대한 불만도 컸다.

## B. 인천구치소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인천구치소의 조사대상 수용자는 남자가 33명이고 여자가 10명이었고,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기결수가 더 많아 35명이나 되는 반면 미결수는 7명이었다. 아마도 집단조사의 특성상 동원하기 용이한 취업수용자들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구치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결수보다 기결수가 과다표집된 것은 응답의 객관성의 측면에서 치명적일수도 있겠으나 이번 조사의 목적이 시설환경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된 표본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빈도와 비율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조사의 대상자는 남자 33명, 여자 10명 등 총 43명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3.3%가 기결수였으며, 연령대는 20대 이상 30대 미만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이상 50대 미만, 50대 이상 60대 미만이 23.3%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를 보면, 미혼 44.2%, 기혼이 34.9%, 이혼 14.0%이다. 교육수준은 졸업, 재학, 중퇴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결과 고등학교가 41.5%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 4년제 대학교(26.8%)와 2년제 대학교(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재학이상(2.4%)도 있었다.

57.1%의 응답자가 6개월에서 1년 미만 복역하며, 복역하게 된 범죄의 유형으로는 병역법 위반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기 25.6%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거실의 동거 인원수는 11명이 5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인(14.6%), 8인(9.8)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의 83.3%는 출역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77〉 귀하의 성별은?

	빈도	유효 퍼센트
남자	33	76.7
여자	10	23.3
합계	43	100.0

〈표 II-4-78〉 귀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미결수	7	16.7
기결수	35	83.3
합계	42	100.0

〈표 II-4-79〉 연령대

	빈도	유효 퍼센트
20세미만	1	2.3
20세이상 30세미만	15	34.9
30세이상 40세미만	7	16.3
40세이상 50세미만	10	23.3
50세이상 60세미만	10	23.3
합계	43	100.0

〈표 II-4-80〉 학력

	빈도	유효 퍼센트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1	2.4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1	2.4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17	41.5
2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10	24.4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11	26.8
대학원 재학 이상	1	2.4
합계	41	100.0

〈표 II-4-81〉 혼인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미혼	19	44.2
기혼	15	34.9
이혼	6	14.0
사별	2	4.7
기타	1	2.3
합계	43	100.0

〈표 II-4-82〉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7.1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4	9.5
6개월 이상- 1년 미만	24	57.1
1년 이상	11	26.2
합계	42	100.0

〈표 II-4-83〉 거실인원

	빈도	유효 퍼센트
4	2	4.9
5	6	14.6
6	1	2.4
7	3	7.3
8	4	9.8
9	1	2.4
10	1	2.4
11	23	56.1
합계	41	100.0

〈표 II-4-84〉 오기전 건강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좋지 않았다	2	4.7
좋지 않은 편이었다	1	2.3
그저 그랬다	8	18.6
좋은 편이었다	22	51.2
매우 좋았다	10	23.3
합계	43	100.0

〈표 II-4-85〉 현재 건강상태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좋지않다	4	9.3
좋지 않은 편이다	6	14.0
그저 그렇다	17	39.5
좋은 편이다	11	25.6
매우 좋다	5	11.6
합계	43	100.0

〈표 II-4-86〉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35	83.3
아니다	7	16.7
합계	42	100.0

〈표 II-4-87〉 종교

	빈도	유효 퍼센트
기독교	15	34.9
천주교	2	4.7
불교	11	25.6
기타	13	30.2
없음	2	4.7
합계	43	100.0

〈표 II-4-88〉 죄명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2	4.7
게임산업위반	1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2.3
기타	1	2.3
뇌물수수	1	2.3
병역법위반	13	30.2
부정수표	1	2.3
사기	11	25.6
사행성게임장	1	2.3
사행행위및처벌및특례법위반	1	2.3
살인미수	1	2.3
석유사업법방조	1	2.3
석유사업법위반	1	2.3

	빈도	유효 퍼센트
업무상횡령	2	4.7
음주운전	1	2.3
의료보건법	1	2.3
절도	3	7.0
합계	43	100.0

〈표 II-4-89〉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동	2	5.1
남동	4	10.3
남	5	12.8
남서	5	12.8
서	7	17.9
북서	6	15.4
북	8	20.5
북동	2	5.1
합계	39	100.0

## 2. 거실 생활환경 분석

### 가. 채광

수용자들의 일상은 대부분 거실 생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실 환경의 쾌적도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수적이다.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요법도 필요하겠지만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수용자의 88.4%가 맑은날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다(51.2%)와 전혀들어오지 않는다(37.2%)라고 대답했고, 잘 들어오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표 II-4-90〉 맑은 날 낮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들어오지 않는다	16	37.2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다	22	51.2
보통이다	5	11.6
합계	43	100.0

〈표 II-4-91〉 맑은날 낮시간에 거실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어두운 편이다	14	32.6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17	39.5
밝은 편이다	12	27.9
합계	43	100.0

그러나 밤에는 책을 읽거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거실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에 불을 켜올 때의 거실의 밝기’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밝은 편’ 50.0%, ‘매우 밝다’ 2.4%로 거실내 불을 밝기는 일상활동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둡다는 의견은 11.9%, ‘적절하다’(중간)는 35.7%였다.

〈표 II-4-92〉 밤에 불을 켜올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어둡다	1	2.4
어두운 편이다	4	9.5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15	35.7
밝은 편이다	21	50.0
매우 밝다	1	2.4
합계	42	100.0

야간시간대 조명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보다 더 밝거나 덜 밝기를 원하는 수용자가 64.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수용자들이 잠을 자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3〉 밤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지금 그대로가 좋다	15	35.7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다	5	11.9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	22	52.4
합계	42	100.0

나. 통풍

수용자의 38.1%는 거실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거실 내 환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응답이 7.1%, ‘안 되는 편이다’가 31.0%이다. 또한 잘 된다는 응답은 9.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실 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실의 건축학적·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거실 내에 환기장치가 없거나(40.5%) 밖쪽으로 난 창문의 크기가 작아서(27.0%),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이 통풍을 방해(18.9%)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4-94〉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안되고 있다	3	7.1
안 되고 있는 편이다	13	31.0
보통이다	22	52.4
잘 되고 있는 편이다	3	7.1
매우 잘 되고 있다	1	2.4
합계	42	100.0

〈표 II-4-95〉 환기가 안되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바깥으로 난 창문이 없어서	4	10.8
바깥으로 난 창문의 크기가 작아서	10	27.0
창문에 방충망이 있어 통풍이 잘 안되서	7	18.9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어서	15	40.5
기타	1	2.7
합계	37	100.0

거실 내의 악취 정도에 대한 평가는 거실 악취가 심하다는 의견은 18.6%, 심하지 않다는 의견(‘전혀 없다’와 ‘없는 편이다’의 합)은 18.6%, 그저 그렇다는 62.8%의 반응을 보였다.

악취가 나는 주된 이유로는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좁은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20.6%), 거실청소나 이불담요등의 세탁을 자주 할 수 없어서(14.7%)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거실 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4-96〉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악취가 심한 편이다	8	18.6
그저 그렇다	27	62.8
악취가 없는 편이다	7	16.3
악취가 전혀 없다	1	2.3
합계	43	100.0

〈표 II-4-97〉 거실 악취의 주된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2	5.9
거실에서 말리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2	5.9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18	52.9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7	20.6
거실 청소나 이불 담요 등의 세탁등을 자주 할 수가 없어서	5	14.7
합계	34	100.0

응답자들은 거실과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용자들이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58.1%)는 반응을 보였고, 23.2%는 화장실의 악취가 매우 심하거나 심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악취가 없거나 전혀 없다는 18.6%로 나타났다.

〈표 II-4-98〉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악취가 매우 심하다	1	2.3
악취가 심한 편이다	9	20.9
그저 그렇다	25	58.1
악취가 없는 편이다	7	16.3
악취가 전혀 없다	1	2.3
합계	43	100.0

응답자의 71.9%가 화장실 내 환기장치의 부재로 인해 화장실 악취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거실 내 화장실 악취 역시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의 창문의 부재 및 배수문제도 각각 6.3%, 3.1%로 나타나 거실 내 화장실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이 방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9〉 화장실 악취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2	6.3
화장실 내 창문이 없기 때문에	2	6.3
화장실 내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23	71.9
화장실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1	3.1
기타	4	12.5
합계	32	100.0

다. 습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 여름철의 높은 습도는 큰 문제가 된다. 거실의 습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60.5%, ‘매우 높다’는 비율이 4.7%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65.2%의 수용자들이 습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반면 습도가 적당하는 응답은 27.9%, 높지 않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했다.

〈표 II-4-100〉 거실의 습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높지 않은 편이다	3	7.0
적당하다	12	27.9
높은 편이다	26	60.5
매우 높다	2	4.7
합계	43	100.0

라. 거실의 위생상태와 소독

1) 곰팡이 문제

거실 내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16.3%로 대답한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7%, ‘심각하지 않은 편’이 23.3%, 그저 그렇다 55.8%로 나타났다.

〈표 II-4-101〉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4.7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0	23.3
그저 그렇다	24	55.8
심각한 편이다	7	16.3
합계	43	100.0

2) 해충 및 벌레 발생

거실 내의 해충이나 벌레가 있는냐의 질문에 4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거실내 위생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4-102〉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없다	1	2.3
없어편이다	21	48.8
많은 편이다	18	41.9
매우 많다	3	7.0
합계	43	100.0

3) 거실 및 화장실 소독

거실과 화장실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신뢰할만한 것이 못 되었다. 거실 소독의 경우 ‘모르겠다’는 비율이 21.46% 되었고,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였다. 6개월에 1회, 1주일에 1회도 각각 11.9%를 나타냈다. 화장실 소독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거의 없다’는 비율은 35.7%, ‘모르겠다’의 비율이 21.4%였다.

〈표 II-4-103〉 거실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하지 않는다	14	33.3
6개월에 1회정도	5	11.9
1개월에 1회 정도	2	4.8
3-4주에 1회 정도	1	2.4
1주일에 1회	5	11.9
5-6일에 1회	3	7.1
매일	1	2.4
기타	2	4.8
모르겠다	9	21.4
합계	42	100.0

〈표 II-4-104〉 거실 내 화장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의하지 않는다	15	35.7
6개월에 1회정도	4	9.5
1개월에 1회 정도	2	4.8
1주일에 1회	5	11.9
5-6일에 1회	3	7.1
매일	2	4.8
기타	2	4.8
모르겠다	9	21.4
합계	42	100.0

마. 거실의 배수상태

거실 내 배수상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7%가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가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4.7%는 매우 잘 된다고 응답했으며, '안 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18.6%였다.

〈표 II-4-105〉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잘 안되는 편이다	8	18.6
잘 되는 편이다	33	76.7
매우 잘된다	2	4.7
합계	43	100.0

바. 하절기 실내 온도와 냉방

1) 실내온도

구급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가 겪는 애로 사항 중의 하나는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척 덥다는 사실이다. 거실이 ‘매우 덥다’는 응답비율은 32.6%, ‘더운 편이다’가 55.8%로 수용자의 88.4%가 여름철의 거실은 ‘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라는 응답도 9.3%, 서늘하다는 응답은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I-4-106〉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덥다	14	32.6
더운 편이다	24	55.8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4	9.3
서늘한 편이다	1	2.3
합계	43	100.0

2) 냉방의 가동

여름철 높은 실내 온도에 대한 대응책은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선풍기의 냉방 효과에 대해 긍정하는 수용자가 부정하는 수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선풍기 가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9.3%였으나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8.2%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실에서는 거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풍기를 한 대씩만 배정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선풍기가 냉방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선풍기 설치수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의견을 제외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선풍기가 가동되어서와 선풍기 바람이 약해서 각각 6.3%로 나타났다.

〈표 II-4-107〉 거실 내 선풍기는 몇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없다	1	2.3
1대	39	90.7
2대	3	7.0
합계	43	100.0

〈표 II-4-108〉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도움 되지 않는 편이다	4	9.3
그저그렇다	14	32.6
도움되는 편이다	22	51.2
매우 도움된다	3	7.0
합계	43	100.0

〈표 II-4-109〉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빈도	유효 퍼센트
설치된 선풍기 수가 적어서	21	65.6
선풍기 바람이 약해서	2	6.3
선풍기 가동시간이 짧아서	1	3.1
실내온도에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대에만 선풍기가 가동되어서	2	6.3
기타	6	18.8
합계	32	100.0

선풍기의 가동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용자의 51.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전혀 적절하지 않다 포함)은 11.6%로 나타났다. 냉방의 문제는 냉방시설의 개체 수 및 냉방시설의 가동시간대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4-110〉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2.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4	9.3
그저그렇다	16	37.2
적절한 편이다	20	46.5
매우 적절하다	2	4.7
합계	43	100.0

사. 냉수샤워

여름철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더욱이 좁은 거실에 많은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체온에 의해 더욱 높아진다. 선풍기 가동과 함께 목욕과 샤워는 더위를 식히고 몸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가급적 자주 샤워를 하려 한다.

응답자의 수용자의 52.4%가 냉수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47.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4-111〉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2	52.4
아니다	20	47.6
합계	42	100.0

수용자들은 사동에 마련된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에서 주로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12〉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사동에 마련된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에서	22	53.7
화장실에서	13	31.7
기타	6	14.6
합계	41	100.0

아. 피부 질환

높은 실내 온도와 높은 습도는 수용자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수용생활 중 피부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는 수용자는 6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13〉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26	60.5
없다	17	39.5
합계	43	100.0

자. 불편요소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협소한 개인 공간(44.4%), 높은 습도(13.9%), 자주 목욕할 수 없는 점과 높은 실내온도(각각 16.0%) 등의 순이었다.

〈표 II-4-114〉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통풍, 환기가 잘 안되는 점	3	8.3
거실 혹은 화장실의 악취	2	5.6
높은 습도	5	13.9
높은 실내온도	4	11.1
협소한 개인 공간	16	44.4
자주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점	4	11.1
기타	2	5.6
합계	36	100.0

### 3. 세탁과 건조

#### 가. 세탁의 허용과 세탁장소

침구를 제외한 일반 세탁의 경우 매일 세탁 시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측정  
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수용자든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  
용자들이 세탁을 하는 곳은 공용세탁실(35.7%)에, 거실 화장실 및 세면대(19.  
0%)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4-115〉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매일 세탁시간이 허용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9	72.5
아니다	11	27.5
합계	40	100.0

〈표 II-4-116〉 주로 어디서 세탁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 화장실/세면대	8	19.0
공용 목욕탕/샤워실	4	9.5
공용세탁실	15	35.7
기타	15	35.7
합계	42	100.0

나. 세탁의 주체

세탁은 수용자 본인(46.5%)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탁 당번제(37.2%), 구치소 측에서 단체로(14.0%)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4-117〉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수용자 개인	20	46.5
수용자 중 세탁 당번제 운용	16	37.2
구치소 측에서 단체로 세탁함	6	14.0
기타	1	2.3
합계	43	100.0

다. 세탁의 방법

세탁은 주로 세탁기(73.8%)를 이용하였으며, 손빨래는 26.2%로 나타났다.

〈표 II-4-118〉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손빨래	11	26.2
세탁기	31	73.8
합계	42	100.0

라. 세탁물의 건조방식과 장소

세탁물은 옥상 및 야외 건조장소에서 말리는 경우가 41.5%, 거실에서 말리는 경우가 29.3% 기타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가 올 경우에는 거실이나 건조대에서 말린다. 주로 세탁물 건조대에 널거나(71.4%) 빨래줄에 널어서(21.4%) 말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물의 건조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63.4%)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4-119〉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	12	29.3
공용 세탁실	2	4.9
별도의 실내 공용건조실	5	12.2
옥상/야외 건조 장소	17	41.5
기타	5	12.2
합계	41	100.0

〈표 II-4-120〉 비가 올 경우에는 세탁물을 어디서 말립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2	27.9
거실	17	39.5
건조대	6	14.0
실내건조대	3	7.0
실내작업장	1	2.3
출역장	3	7.0
환풍기위	1	2.3
합계	43	100.0

〈표 II-4-121〉 주로 어떻게 말리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빨랫줄에 널어서	9	21.4
세탁물 건조대에 널어서	30	71.4
세탁물 건조기를 이용해서	1	2.4
기타	2	4.8
합계	42	100.0

〈표 II-4-122〉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상태는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양호함	15	36.6
신내가 남	26	63.4
합계	41	100.0

마. 침구세탁

이불, 담요와 같은 침구 세탁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6개월에 1회’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년에 1회’ 18.9%, ‘3개월에 1회’ 13.5%의 순이었다. 누가 침구를 세탁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치소측이라는 답변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4-123〉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년에 1회정도	7	18.9
6개월에 1회 정도	18	48.6
3개월에 1회정도	5	13.5
1개월에 1회정도	1	2.7
수시로	2	5.4
기타	4	10.8
합계	37	100.0

〈표 II-4-124〉 침구(이불,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수용자 개인	5	12.2
수용자 중 세탁 당번	5	12.2
구치소 측	27	65.9
기타	4	9.8
합계	41	100.0

바. 침구의 교체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침구의 교체시기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수용자가 요구할 때’가 4.7%라고 응답으로 보아 수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침구가 교환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로 잘모름과 바뀌준적 없음이 각각 25.6%, 27.9%로 나타났다.

〈표 II-4-125〉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13	30.2
1년에 한번	1	2.3
바뀌준적없음	12	27.9
본인요청	2	4.7
여름,겨울	4	9.3
잘모름	11	25.6
합계	43	100.0

4. 수용자의 식사

가. 식사의 양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양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의 양의 경우 응답자의 78.5%가 밥의 양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국의 양 또한 응답자의 75.6%가 국의 양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표 II-4-126〉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1	2.4
보통	8	19.0
충분	19	45.2
매우충분	14	33.3
합계	42	100.0

〈표 II-4-127〉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3	7.3
보통	7	17.1
충분	18	43.9
매우충분	13	31.7
합계	41	100.0

〈표 II-4-128〉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부족	5	11.9
보통	12	28.6
충분	14	33.3
매우충분	11	26.2
합계	42	100.0

나. 식사의 질

식사의 양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이 40.5%, 국이 31.8%, 반찬이 26.2%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29〉 식사로 제공되는 밥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1	2.4
불량	4	9.5
보통	20	47.6
양호	12	28.6
매우양호	5	11.9
합계	42	100.0

〈표 II-4-130〉 식사로 제공되는 국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1	2.4
불량	6	14.6
보통	21	51.2
양호	9	22.0
매우양호	4	9.8
합계	41	100.0

〈표 II-4-131〉 식사로 제공되는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불량	2	4.8
불량	10	23.8
보통	19	45.2
양호	7	16.7
매우양호	4	9.5
합계	42	100.0

한편,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8%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4-132〉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8	22.2
아니다	28	77.8
합계	36	100.0

다. 식사장소

식사장소는 30.2%가 공용식당에서, 거실과 식탁이 27.9% 거실에서 각자 편하게 14.0%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 후 환기나 식기세척 및 정리(37.5%)에 대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33〉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각자)	6	14.0
거실(식사용 탁자, 상에서 같이)	12	27.9
공용식당	13	30.2
기타	12	27.9
합계	43	100.0

〈표 II-4-134〉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식사 후 환기가 잘 안되는 점	12	37.5
식사 후 식기세척과 정리	12	37.5
유효 식사용 탁자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4	12.5
기타	4	12.5
합계	32	100.0

라. 식사에 배정된 시간의 적정성

식사를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9.8%는 식사 시간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11.6%는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표 II-4-135〉 식사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부족하다	2	4.7
부족한 편이다	6	14.0
충분한 편이다	30	69.8
매우 충분하다	5	11.6
합계	43	100.0

마. 식기 세척 장소

식사 후 식기는 거실 내에 있는 싱크대(39.5%)에서 세척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화장실(32.6%)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경우와 세척장(20.9%)순으로 나타났다.

세척된 식기나 수저 등은 대부분 거실의 특정장소에 공동보관(53.5%)하고 있었으며, 식당이나 식기보관함(27.9%), 거실에서 각자가 알아서 (9.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136〉 식사 후 설거지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싱크대	17	39.5
거실/화장실	14	32.6
공용 식기 세척장/세척대	9	20.9
기타	3	7.0
합계	43	100.0

〈표 II-4-137〉 식기 및 수저는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각자)	4	9.3
거실(특정장소에 공동보관)	23	53.5
식당/식기보관함	12	27.9
기타	4	9.3
합계	43	100.0

바. 식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식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편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식사의 질’이 47.5%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불편한 점이 없다(25.0%), 식기 세척 및 보관(12.5%), 식사장소와 식사시간(7.5%)이라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II-4-138〉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식사장소	3	7.5
식사의 질	19	47.5
식기 세척 및 보관	5	12.5
식사시간	3	7.5
불편한 점이 없다	10	25.0
합계	40	100.0

## 5. 운동

가. 운동에 대한 욕구

폐쇄된 수용시설에서 매일같이 단조로운 생활하는 지속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은 기분을 전환함으로써 심신의 여유를 갖게 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준다.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90.7%)의 수용자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표 II-4-139〉 이곳 생활을 하면서 운동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필요하지 않다	1	2.3
그저 그렇다	3	7.0
필요한 편이다	7	16.3
매우 필요하다	32	74.4
합계	43	100.0

〈표 II-4-140〉 귀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운동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그렇다	29	67.4
아니다	14	32.6
합계	43	100.0

나. 운동의 이유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있어 운동은 건강을 유지(92.3%)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일 운동한다는 수용자를 포함하여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47.4%가 협소한 운동 장소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 다음으로 할 만한 운동이 없어서(26.3%),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15.8%)로 조사되었다.

〈표 II-4-141〉 매일 운동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빈도	유효 퍼센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36	92.3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2	5.1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1	2.6
합계	39	100.0

〈표 II-4-142〉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

	빈도	유효 퍼센트
할만한 운동이 없어서	5	26.3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3	15.8
운동 장소가 협소해서	9	47.4
기타	2	10.5
합계	19	100.0

다. 운동시간

수용자의 69.8%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20.9%는 운동시간이 15분 이내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II-4-143〉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15분 이내	9	20.9
30분 이내	30	69.8
45분 이내	4	9.3
합계	43	100.0

라. 운동장소

용자들의 운동 장소를 알아본 결과, 54.8%는 야외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35.7%는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한다고 응답하였다.

비가 올 경우에 운동은 실내 운동장(40.0%)이나 거실(25.7%)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44〉 평상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야외운동장	23	54.8
실내운동장	15	35.7
거실	4	9.5
합계	42	100.0

〈표 II-4-145〉 우천시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실내운동장	14	40.0
거실	9	25.7
기타	12	34.3
합계	35	100.0

마. 운동종목

수용자들이 하는 운동의 57.1%는 걷거나 뛰기였으며, 축구나 배구 등 구기운동은 21.4%가 응답하였다.

〈표 II-4-146〉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걷거나 뛰기	24	57.1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	9	21.4
체조나 요가, 줄넘기	1	2.4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보낸다	2	4.8
기타	6	14.3
합계	42	100.0

〈표 II-4-147〉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무응답	6	14.0
1	4	9.3
2	14	32.6
농구	5	11.6
배드민턴	1	2.3
벤치프레스	1	2.3
복근운동	1	2.3
야구	2	4.7
요가	1	2.3
줄넘기	1	2.3
철봉	1	2.3
탁구	1	2.3
헬스	5	11.6
합계	43	100.0

바. 운동만족도

협소한 운동 공간, 부족한 운동기구, 짧은 운동시간 등은 수용자의 운동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 수용자들의 운동 장소 관련 만족도는 4.7%에 불과하며 67.4%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운동기구와 운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운동기구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82.5%, 운동시간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71.4%로 나타났다.

〈표 II-4-148〉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2	27.9
불만족	17	39.5
보통	12	27.9
만족	2	4.7
합계	43	100.0

〈표 II-4-149〉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20	50.0
불만족	13	32.5
보통	7	17.5
합계	40	100.0

〈표 II-4-150〉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불만족	15	35.7
불만족	15	35.7
보통	11	26.2
만족	1	2.4
합계	42	100.0

〈표 II-4-151〉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빈도	유효 퍼센트
실외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9	32.1
실내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4	14.3
운동기구가 부족한 점	7	25.0
운동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5	17.9
기타	3	10.7
합계	28	100.0

### 【요약】

인천구치소의 남자 33명과 여자수용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채광과 관련하여 볼 때 맑은 날 햇빛이 거실에 들어오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88%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로 거실이 어두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3%로 낮시간 거실의 채광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원구치소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밤시간에는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서 “낮엔 어둡고 밤에는 밝은” 이상한 거실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실환기에 대해서 3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창이 없어서 또는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실의 악취는 심한 편은 아니지만 악취의 원인은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53%). 또 화장실 악취의 원인은 화장실내 환기장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72%나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거실에는 선풍기 한 대가 냉방을 담당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8%가 거실의 실내온도를 덥다고 느끼고 있었다.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66%나 되었다. 이번 여름 피부질환의 경험을 가진 수용자가 61%였고 해충이나 벌레가 많은 편이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49%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수원구치소보다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피부질환의 경험도 인천구치소가 5%정도 높았고, 해충이나 벌레가 많다는 응답도 인천구치소가 높았다. 응답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러한 차이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차이는 교도소마다 소독의 빈도가 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거실소독과 화장실 소독의 빈도와 주기를 묻는 질문에서 인천구치소의 수용자들은 30%가 넘는 수용자들이 소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수원구치소의 경우(10%)에 비해 3배가 넘는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세탁물의 건조와 관련해서는 인천구치소의 경우에는 옥상이나 야외건조장소에서 말린다는 응답(42%)이 수원구치소(1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제공되는 밥과 국, 반찬의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양호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질과 관련해서는 밥과 국의 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반찬의 질에 대해서는 29%정도가 불량하거나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다.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점도 식사의 질이라고 응답(48%)하여 식사의 질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결수가 다수이다 보니 야외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비율이 다른 구치소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장소나 운동기구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0%에 이르렀다. 원하는 운동으로는 농구나 헬스를 꼽았다.

### C. 울산구치소

수용자 심층면접은 대상자 수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수집된 정보 또한 전체 수용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남자 수용자 30명과 여자 수용자 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층면접에 드러난 사항들을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수용자들에게는 채광, 통풍과 환기, 냉방, 목욕, 세탁과 세탁물의 건조, 식사, 운동 등 수용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아래에서는 조사로부터 도출된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 1. 조사 대상자 특성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남자 30명, 여자 10명 등 총 40명이다(<표 3-3-1>). 40대가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이상(28.9%), 20대(23.7%), 30대(15.8%) 순이며 연령을 밝히지 않은 수용자도 2명 있었다. 울산 구치소 수용자 연령별 분포와 비교할 경우 30대는 다소 작게 표집되었고, 20대와 50대 이상은 다소 많이 표집되었으나 그 차이가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혼인 상태를 보면, 기혼이 40.0%, 미혼 35.0%, 이혼 17.5%, 별거 7.5%이다.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가 4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교와 대학교(각각 15.4%), 전문대학(12.8%), 대학원 이상(7.7%)의 순이며 초등학교가 5.1%로 가장 낮았다.

복역하게 된 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병역법 위반(14.3%), 게임관련 법규 위반(5.7%), 도로교통법 위반(5.7%)의 순이다. 미결 수용자의 비율은 52.5%였고 기결 수용자는 47.5%로서 전체 수용자의 비율과 비교하면 미결수는 다소 과소표집되었고 기결수는 다소 과대표집되었다. 출역을 나가는 수용자는 32.5%였다. 수용기간별 분포를 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0.0%로 가장 높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30.0%로 그 다음이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년 이상이 각각 12.5%, 1개월 미만은 5.0%였다.

거주하고 있는 거실의 동거 인원수를 알아보았더니, 10인 이상이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7인(25.0%), 3-5인(22.5%), 8-9인(17.5%), 1-2인(5.0%)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거실이 위치한 방향은 동남형(동향, 남동향, 남향, 남서향)이 76.5%, 서북형(서향, 북서향, 북향, 북동향)이 23.5%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사 대상자의 특성들에 대한 분포가 울산 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그것과 치명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변인의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 울산 구치소 수용자의 일상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II-4-152〉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수용환경별 특성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0	75.0
	여자	10	25.0
연령	20대	9	23.7
	30대	6	15.8
	40대	12	31.6
	50대 이상	11	28.9
	무응답	2	-
혼인 상태	미혼	14	35.0
	기혼	16	40.0
	이혼	7	17.5
	별거	3	7.5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교육 수준	초등학교	2	5.1
	중학교	6	15.4
	고등학교	17	43.6
	전문대학	5	12.8
	대학교	6	15.4
	대학원 이상	3	7.7
범죄 유형	강간치상	1	2.9
	강도상해	1	2.9
	사기	11	31.4
	절도	4	11.4
	사기횡령	1	2.9
	배임/자금수수	1	2.9
	성폭력	1	2.9
	추행	1	2.9
	뇌물수수	1	2.9
	게임법	2	5.7
	도로교통법	2	5.7
	병역법	5	14.3
	사문서 위조	1	2.9
	석유법	1	2.9
	마약	1	2.9
	조세법	1	2.9
	무응답	5	-
수용자 신분	미결수	21	52.5
	기결수	19	47.5
출역 여부	출역	13	32.5
	미출역	27	67.5
수용 기간	1개월 미만	2	5.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	12.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4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30.0
	1년 이상	5	12.5

구분	구분	빈도	퍼센트
거실 인원	1-2인	2	5.0
	3-5인	9	22.5
	6-7인	10	25.0
	8-9인	7	17.5
	10인 이상	12	30.0
거실 방향	동남형	26	76.5
	북서형	8	23.5
	무응답	6	-

## 2. 거실 생활환경 분석

### 가. 채광

수용자들의 일상은 대부분 거실 생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실 환경의 쾌적도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수적이다. 수용자들은 구금생활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긴장과 억압적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증, 좌절,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수용자의 심리적 상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요법도 필요하겠지만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간혹 햇빛을 보고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조사 대상 수용자의 76.5%가 생활하는 거실이 햇빛이 잘 들 수 있는 ‘동남형’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맑은 날 거실에 햇빛은 ‘전혀’(62.5%) 혹은 ‘잘 들어오지 않는 편’(1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7.5%가 설령 밖에 햇빛이 있는 맑은 날에도 거실 안으로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잘 들어오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표 II-4-153〉 맑은 날 낮 시간 거실에 햇빛이 드는 정도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 들어오지 않음	25	62.5
잘 들어오지 않는 편	6	15.0
보통	8	20.0
잘 들어오는 편	1	2.5
합계	40	100.0

한편,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거실의 채광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용자의 지위(미결수, 기결수), 출역 여부, 거실의 위치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문의 표로 제시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결수일수록, 출역을 나갈수록, 동남형 거실에 거주하는 수용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거실 내 채광량에 대해 좀더 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 밖에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기간, 거실인원 등은 거실 채광량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거실 내부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실과 외부 창문 사이에 좁은 복도가 있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맑은 날 조차 거실 안의 밝기는 비교적 어두운 편으로 나타났다. 맑은 날 낮 시간 거실 내부의 밝기에 대해 측정한 결과, ‘매우 어둡다’가 10.0%, ‘어두운 편이다’가 30.0%로 40%의 응답자가 거실이 어둡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밝다는 의견(밝은 편과 매우 밝다는 응답의 합)은 27.5%에 불과했다. 따라서 낮에도 거실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표 II-4-154〉 맑은 날 낮 시간 거실 안의 밝기

	빈도	퍼센트
매우 어둡다	4	10.0
어두운 편	12	30.0
중간	13	32.5
밝은 편	10	25.0

	빈도	퍼센트
매우 밝다	1	2.5
합계	40	100.0

하지만 밤에는 책을 읽거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거실이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에 불을 켜올 때의 거실의 밝기’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밝은 편’ 47.5%, ‘매우 밝다’ 20.0%로 응답자 3명 중 2명(67.5%) 정도가 밝다는 의견을 보였고, 어둡다는 의견은 12.5%, ‘적절하다’(중간)는 20.0%였다.

〈표 II-4-155〉 밤에 불을 켜올 때의 거실의 밝기

	빈도	퍼센트
어두운 편	5	12.5
중간	8	20.0
밝은 편	19	47.5
매우 밝다	8	20.0
합계	40	100.0

그러나 취침 시간에도 불을 켜두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용자들이 잠을 자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특히 취침 시) 거실의 희망 조도를 측정한 결과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85.0%로 압도적이었다.

〈표 II-4-156〉 야간 거실 조명의 희망 조도

	빈도	퍼센트
지금 그대로가 좋다	4	10.0
더 밝았으면 좋겠다	2	5.0
덜 밝았으면 좋겠다	34	85.0
합계	40	100.0

한편, 맑은 날 거실 안의 밝기에 대한 인식이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결수가 미결수보다 거실 안의 밝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을 뿐, 출역 여부,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기간, 거실의 위치, 거실인원 수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야간 거실의 밝기에 대한 인식은 거실의 위치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복서형보다는 동남형 거실에 거주하는 수용자들이 야간 거실의 밝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수용자의 나머지 특성에 대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야간 취침시 전등의 조도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자 지위, 출역 여부, 수용기간, 거실인원, 거실의 위치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나. 통풍

수용자의 40%는 거실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실 내 환기가 ‘전혀 안 된다’는 응답이 17.5%, ‘안 되는 편이다’가 22.5%였으며, 잘 된다는 응답(‘잘 되는 편이다’와 ‘매우 잘 된다’의 합)은 22.5%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37.5%는 거실 내 환기 정도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용자 특성별로 거실 내 환기 정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수용자의 지위와 거실 인원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기결수가 미결수보다 거실 내 환기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거실 인원별 응답을 보면, 3-5인의 경우가 거실 환기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8-9인의 경우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거실 인원이 증가할수록 거실 내 환기와 통풍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도 높아졌다. 하지만 성, 연령, 교육수준, 출역여부, 수용기간, 거실의 위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실 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실의 건축학적·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수용자의 40.0%는 거실 내에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32.5%는 거실 및 화장실의 창문에 부착되어 방충망이 통풍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건물 외벽 쪽의 창문이 작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0.0%, 외부 창문이 없기 때문은 10.0%, 외벽과 거실 사이에 중간층이 있거나 거실 내부에 아크릴 벽이 있어 통풍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5.0%였다.

〈표 II-4-157〉 거실 내 환기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전혀 안 된다	7	17.5
안 되는 편이다	9	22.5
보통이다	15	37.5
잘 되는 편이다	7	17.5
매우 잘 된다	2	5
합계	40	100

〈표 II-4-158〉 거실 환기가 잘 안 되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외부창문 없음	4	10
외부창문 작음	8	20
방충망이 통풍 방해함	13	32.5
환기장치 없음	16	40
중간층/아크릴이 통풍방해	2	5
합계	40	100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임.

〈표 II-4-159〉 거실의 악취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심하다	3	7.5
심한 편이다	8	20.0
그저 그렇다	18	45.0
없는 편이다	10	25.0
전혀 없다	1	2.5.0
합계	40	100.0

거실 내의 통풍과 환기 정도에 대해 40%의 수용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실 내의 악취 정도에 대한 평가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았다. 거실 악취가 심하다는 의견(‘매우 심하다’와 ‘심한 편이다’의 합)은 27.5%, 심하지 않다는 의견(‘전혀 없다’와 ‘없는 편이다’의 합)도 27.5%로 같았고, 나머지 45.0%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거실 내 하수구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97.5%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거실의 악취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수용자의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160〉 거실 하수구의 악취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아니다	39	97.5
그렇다	1	2.5
합계	40	100.0

비록 거실의 악취가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간혹 악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악취 문제의 이유를 살펴보면, ‘화장실 악취가 거실 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2.5%가 동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좁은 방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해서’(45.0%), ‘거실에 걸어 놓은 빨래 때문’(40.0%), ‘거실 청소나 침구 세탁을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30.0%) 등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거실 내의 식사가 거실 악취의 원인이 된다는 응답은 22.5%로 낮았으며, ‘동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 동의 정도는 10.0%에 불과했다. 요컨대 거실 내의 악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화장실 시설의 노후화 혹은 비좁은 거실에 많은 수용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수용자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161〉 거실 내 악취가 심한 이유

	빈도	퍼센트
거실식사 때문	9	22.5
거실 빨래 때문	16	40.0
화장실 악취 유입	25	62.5
좁은 방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	18	45.0
동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	4	10.0
청소, 침구 세탁을 자주하지 못해서	12	30.0

\*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임

그런데 거실 악취와 비교했을 때, 화장실의 악취는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비록 응답자의 절반이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35.0%는 화장실의 악취가 매우 심하거나 심한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다. 화장실 악취에 대한 인식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4-162〉 거실 화장실의 악취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심하다	4	10.0
심한 편이다	10	25.0
그저 그렇다	20	50.0
없는 편이다	6	15.0
합계	40	100.0

거실 내 화장실 악취 역시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0%가 화장실 내 환기장치의 부재로 인해 화장실 악취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화장실의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 질문에는 27.5%가 동의를 나타냈다.

〈표 Ⅱ-4-163〉 거실 화장실 악취가 심한 이유

	빈도	퍼센트
화장실 청소 자주 안함	2	5.0
화장실 창문 없음	1	2.5
화장실 환기장치 없음	26	65.0
화장실 배수 안됨	11	27.5
용변 후 수동으로 오물을 배수시켜야 하므로	1	2.5
통풍을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	1	2.5
배수관 문제 있음	1	2.5

\*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임

다. 습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 여름철의 높은 습도는 큰 문제가 된다. 울산 구치소의 경우가 많은 수용자들이 거실의 환기와 통풍에 큰 불편이 없다고 봤지만, 습도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즉 거실의 습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43.6%, ‘매우 높다’는 비율이 12.8%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56%의 수용자들이 습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반면 습도가 적당하는 응답은 30.8%, 높지 않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거실 내 습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수용자의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Ⅱ-4-164〉 거실 습도에 대한 평가

	빈도	퍼센트
전혀 높지 않다	1	2.6
높지 않는 편	4	10.3
적당하다	12	30.8
높은 편	17	43.6
매우 높다	5	12.8
합계	39	100

## 라. 거실의 배수 상태

거실 내 배수상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가 세면대 및 화장실의 배수가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5.0%는 매우 잘 된다고 응답했으며, '안 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37.5%였다. 세면대 및 화장실 배수 상태에 대한 인식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4-165〉 세면대 및 화장실 배수 상태

	빈도	퍼센트
안 되는 편	15	37.5
잘되는 편	23	57.5
매우 잘됨	2	5.0
합계	40	100

## 마. 거실의 위생 상태와 소독

## 1) 곰팡이 문제

거실의 높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세면대와 화장실의 배수 상태도 양호하여 곰팡이 문제는 심각한 편이 아니었다. 거실 내 곰팡이 문제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7.5%, '심각하지 않은 편'이 32.5%로서 40%의 수용자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나머지 42.5%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용자들에게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는 못했지만, 심층면접 결과에 기대어 보면 수용자들이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거나 곰팡이가 발견되었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실 내 곰팡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출역 여부에 따라 달랐는데, 출역을 나가지 않는 수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거실 내 곰팡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밖에 수용자의 다른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4-166〉 거실 내 곰팡이 문제

	빈도	퍼센트
전혀 심각하지 않다	3	7.5
심각하지 않는 편	13	32.5
그저 그렇다	17	42.5
심각한 편	4	10.0
매우 심각하다	3	7.5
합계	40	100.0

2) 해충 및 벌레 발생

거실 내의 해충이나 벌레가 발생하는 일도 비교적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레나 해충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3%,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61.5%로써 응답자의 71.8%는 벌레나 해충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II-4-167〉 거실 내 해충 혹은 벌레의 발생 빈도

	빈도	퍼센트
전혀 없다	4	10.3
없는 편이다	24	61.5
많은 편이다	7	17.9
매우 많다	4	10.3
합계	39	100.0

3) 거실 및 화장실 소독

거실과 화장실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신뢰할만한 것이 못 되었다. 거실 소독의 경우 비록 ‘1개월에 1회’의 응답비율이 27.5%로 가장 높지만, ‘모르겠다’는 비율도 22.5%나 되었고,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5.0%였다. 화장실 소독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1개월에 1회’의 응답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지만, ‘모르겠다’의 비율이 15.0%, ‘거의 없다’는 비율은 12.5%였다.

156 빌딩형 구금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에 의하면 소장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 구치소에서는 외부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연간 5회 시설 내외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략 2-3개월에 한 번꼴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수용자의 응답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표 II-4-168〉 거실 소독빈도

	빈도	퍼센트
거의 없음	6	15.0
6개월 1회	3	7.5
3개월 1회	3	7.5
2개월 1회	1	2.5
1개월 1회	11	27.5
3-4주 1회	2	5.0
2일 1회	2	5.0
기타	3	7.5
모르겠다	9	22.5
합계	40	100.0

〈표 II-4-169〉 화장실 소독빈도

	빈도	퍼센트
거의 없음	5	12.5
6개월 1회	3	7.5
3개월 1회	2	5.0
2개월 1회	2	5.0
1개월 1회	13	32.5
3-4주 1회	2	5.0
2주 1회	1	2.5
1주 1회	3	7.5
5-6일 1회	1	2.5

	빈도	퍼센트
매일	1	2.5
기타	1	2.5
모르겠다	6	15.0
합계	40	100.0

요컨대 수용자들은 언제 소독이 실시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심층면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수용자들은 구치소 측의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활동에 관계없이 거실과 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해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양한 응답 패턴이 나타난 이유는 구치소 측의 정기적인 소독과 거실별 자체 소독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바. 하절기 실내 온도와 냉방

1) 실내 온도

빌딩형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가 겪는 애로 사항 중의 하나는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척 덥다는 사실이다. 거실이 ‘매우 덥다’는 응답비율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으며 더운 편이라는 응답도 42.5%나 되었다. 즉 수용자의 절대 다수인 97.5%가 여름철의 거실은 ‘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라거나 매우 서늘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응답자의 특성별 거실 온도에 대한 평가를 측정된 결과, 성별 및 거실인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 수용자들이 여자 수용자들보다 여름철 거실의 실내 온도가 높다는 인식이 강했다. 거실인원이 많을수록 실내 온도가 높다는 응답도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170〉 하절기 거실 실내 온도

	빈도	퍼센트
매우 덥다	22	55.0
더운 편	17	42.5
서늘한 편	1	2.5
합계	40	100

2) 냉방의 가동

여름철 높은 실내 온도에 대한 대응책은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선풍기의 냉방 효과에 대해 긍정하는 수용자가 부정하는 수용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즉 여름철 선풍기 가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32.5%였으나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2.5%로 약 10%p 높았다. 선풍기의 냉방효과에 대한 인식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선풍기가 거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한 대씩만 배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었다. 선풍기가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를 포함해서 선풍기의 냉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큰 요인은 ‘선풍기 숫자가 적어서’(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71〉 선풍기의 냉방 효과

	빈도	퍼센트
전혀 도움 안 됨	3	7.5
도움 되지 않는 편	11	27.5
그저 그렇다	9	22.5
도움 되는 편	15	37.5
매우 도움 됨	2	5
합계	40	100

〈표 II-4-172〉 선풍기의 냉방효과가 없는 이유

	빈도	퍼센트
숫자가 적어서	26	70.3
바람이 약해서	5	13.5
실내온도 고려하지 않고 가동해서	1	2.7
습도/온도가 너무 높아서	3	8.1
선풍기가 도움 됨	2	5.4
합계	37	100.0

선풍기의 가동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용자의 51.3%가 ‘적절한 편’으로 응답했고, 25.6%는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76.9%)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선풍기 가동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특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II-4-173〉 선풍기 가동시간의 적절성

	빈도	퍼센트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2.6
적절하지 않는 편	1	2.6
그저 그렇다	7	17.9
적절한 편	20	51.3
매우 적절함	10	25.6
합계	39	100

사. 냉수 샤워

여름철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더욱이 좁은 거실에 많은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체온에 의해 더욱 높아진다. 선풍기 가동과 함께 목욕과 샤워는 더위를 식히고 몸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때문에 수용자들은 가급적 자주 샤워를 하려 한다.

구치소 측에서는 운동 시간 이후 목욕 혹은 샤워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시간에 목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로 인해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냉수 샤워 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수용자의 64.1%가 냉수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자율적인 냉수 샤워의 허용 여부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 수용기간, 거실인원, 거실의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표 II-4-174〉 자율적인 냉수 샤워의 허용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25	64.1
아니다	14	35.9
합계	39	100.0

공식적인 샤워는 목욕탕(샤워장)에서 허용되지만, 수용자들은 거실에서 주로 자율적인 샤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샤워 장소가 목욕탕(샤워장)이라는 응답은 25.6%였고, 74.4%는 거실에서 샤워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69.2%는 거실 내 화장실에서 주로 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75〉 샤워 장소

	빈도	퍼센트
목욕탕/샤워장	10	25.6
거실	29	74.4
거실 싱크대	1	2.6
화장실	27	69.2
싱크대나 화장실	1	2.6
합계	39	100.0

주된 샤워 장소는 수용자의 성별과 거실의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수용자의 대부분(90.0%)은 목욕탕(샤워장)에서 샤워를 한다고 응답했고, 남

자 수용자의 대부분(96.6%)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고 응답했다. 거실의 방향별로 보면, 목욕탕(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 비율은 동남형 거실에 거주하는 수용자가 높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비율은 북서형 거실에 거주하는 수용자가 더 높았다.

아. 피부 질환

높은 실내 온도와 높은 습도는 수용자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수용생활 중 피부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는 수용자는 43.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질환 발생률은 출역 여부 및 거실의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문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출역수(15.4%)보다는 미출역수(57.7%)의 경우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형 거실 거주자(34.6%)보다는 서북형 거실 거주자(75.0%)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4-176〉 피부질환 발생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17	43.6
없다	22	56.4
합계	39	100.0

자. 불편요소

이처럼 수용자들이 거실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은 다양하다. 통풍과 환기, 거실 및 화장실의 악취, 습도 및 실내 온도의 문제, 협소한 개인 공간, 목욕, 급수 문제 등 수용자들은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애로 사항들을 경험한다.

〈표 II-4-177〉 거실 생활에서 불편한 요소

	빈도	퍼센트
통풍 환기 문제	10	25.0
거실 및 화장실 악취	6	15.0
높은 습도	6	15.0
높은 실내 온도	18	45.0
협소한 개인 공간	12	30.0
자주 목욕할 수 없는 점	6	15.0
화장실/싱크대 급수 문제	1	2.5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와 비율임.

수용자들이 거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측정된 결과이다. 표에는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높은 실내 온도(45.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소한 개인 공간(30.0%), 통풍과 환기(25.0%), 거실 및 화장실의 악취, 높은 습도, 자주 목욕할 수 없는 점(각각 15.0%) 등의 순이었다.

높은 실내 온도, 협소한 개인 공간, 통풍과 환기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며 건물의 건축학적 구조의 특성 때문에 통풍과 환기에 제약이 발생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수용자들이 선풍기의 냉방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거실의 크기나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한 대의 선풍기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수용자의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세탁과 건조

세탁과 건조, 특히 세탁물의 건조는 빌딩형 구급시설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세탁물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말려야 하는데, 여름철의 경우 높은 습도와 원활하지 못한 통풍으로 인해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자주 의복이나

수건 등을 자주 세탁하려 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정해진 세탁 시간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가. 세탁의 허용과 세탁 장소

침구를 제외한 일반 세탁의 경우 매일 세탁 시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용자와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용자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하다.

〈표 II-4-178〉 매일 세탁 허용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그렇다	20	50.0
아니다	20	50.0
합계	40	100.0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탁의 허용’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구치소의 경우 수용자들에게는 주 1회 1시간 이내의 세탁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간단한 빨래는 거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들의 주된 세탁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거실의 화장실이나 세면대에 주로 세탁한다는 비율이 70.0%이며, 목욕탕(샤워장)은 25.0%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1) 울산 구치소의 경우, 세탁실이 샤워장 옆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수기가 있어 세탁물을 탈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빨래감의 세탁은 샤워장에서 하게 된다.

〈표 II-4-179〉 주된 세탁 장소

구분	빈도	퍼센트
거실화장대/세면대	28	70.0
목욕탕/샤워실	10	25.0
작업장	1	2.5
세탁하지 않음	1	2.5
합계	40	100.0

나. 세탁의 주체

빨래는 대부분 수용자 본인(97.5%)이 하고 있다. 다만 탈수를 위해 사방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탁 당번제를 운영하기 한다.

〈표 II-4-180〉 세탁 담당 주체

구분	빈도	퍼센트
수용자 본인	39	97.5
구치소측 단체 세탁	1	2.5
합계	40	100.0

다. 세탁 방법

수용자들은 주로 일반 세탁물을 손(91.9%)으로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공용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는 경우(5.4%)는 매우 드물었으며, 손빨래를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한다는 응답(2.7%)도 매우 낮았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주로 거실에서 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빨래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표 Ⅱ-4-181〉 주된 세탁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손빨래	34	91.9
세탁기 이용	2	5.4
손빨래와 세탁기 이용	1	2.7
합계	37	100.0

라. 세탁물의 건조 방식과 장소

세탁물은 주로 거실 내 건조대(61.5%)를 이용하여 말리거나 거실 벽면에 설치된 빨랫줄(35.9%)에 널어서 말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세탁물의 건조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59.0%)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세탁물 건조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비율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 수용 기간, 거실 인원, 거실의 방향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Ⅱ-4-182〉 일반 세탁물 건조 방식

구분	빈도	퍼센트
빨랫줄에 널어서	14	35.9
건조대 이용	24	61.5
세탁물 건조기 이용	1	2.6
합계	39	100.0

〈표 Ⅱ-4-183〉 거실 내 세탁물의 건조 상태

구분	빈도	퍼센트
양호함	16	41.0
손내 남	23	59.0
합계	39	100.0

마. 침구 세탁

이불, 담요와 같은 침구 세탁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1주일에 1회'가 2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개월에 1회'(17.9%), '3개월에 1회'(12.8%), '6개월에 1회'(12.8%), '2주에 1회'(10.3%)의 순이었다. 하지만 수용자 10명 중 1명은 언제 침구 세탁을 하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침구 세탁의 빈도별 분포는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누가 침구를 세탁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치소'라는 응답 비율이 55.0%로 가장 높았지만, 수용자 본인이라는 응답도 27.5%나 되었다.

요컨대 대개의 경우 침구는 구치소에서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주지만, 수용자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이불, 담요들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록 탈수기를 사용하더라도 거실 내부에서 침구를 말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표 II-4-184〉 침구 세탁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1년 1회	2	5.1
6개월 1회	5	12.8
3개월 1회	5	12.8
1개월 1회	7	17.9
2주 1회	4	10.3
1주일 1회	8	20.5
침구세탁 불가능	2	5.1
형편에 따라 다름	2	5.1
모르겠다	4	10.3
합계	39	100.0

〈표 II-4-185〉 침구 세탁 주체

구분	빈도	퍼센트
수용자 본인	11	27.5
세탁 당번	3	7.5
구치소	22	55.0
모르겠다	4	10.0
합계	40	100.0

바. 침구의 교체

구치소 측은 이불, 담요 등의 침구는 수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침구의 교체시기에 대해 수용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5명 중 1명(20.0%)만 ‘수용자가 요구할 때’라고 응답했고, 3명 중 1명(33.3%)는 ‘모르겠다’, 5명 중 1명은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록 그 비율은 낮지만 13.3%는 침구의 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때문에 몇몇 수용자들은 관용 침구를 이용하는 대신, 사비를 들여서 별도의 담요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의 경우 이불과 담요의 청결 상태는 수용자 개인의 위생과도 직결된다. 하절기만이라도 자주 침구를 교체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4-186〉 구치소 지급 침구의 교체 시기

구분	빈도	퍼센트
모르겠다	10	33.3
받은 적 없다	6	20.0
입소할 때	2	6.7
계절마다	1	3.3
수용자가 요구하면	6	20.0
사용하기 불편할 때	1	3.3
교체불가	4	13.3
합계	30	100.0

#### 4. 수용자의 식사

##### 가. 식사의 양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양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의 양의 경우 ‘충분하다’ 48.7%, ‘매우 충분하다’ 20.5%로 응답자의 69.2%가 밥의 양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밥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0.8%는 밥의 양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국의 양 또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61.5%가 국의 양이 ‘충분’(41.0%) 혹은 ‘매우 충분’(20.5%)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족하다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38.5%는 국의 양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표 II-4-187〉 식사의 양

(단위: 빈도, %)

	밥	국	반찬
매우부족	-	-	1 (2.6)
부족	-	-	3 (7.7)
보통	12 (30.8)	15 (38.5)	21 (53.8)
충분	19 (48.7)	16 (41.0)	9 (23.1)
매우충분	8 (20.5)	8 (20.5)	5 (12.8)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하지만 반찬의 양에 대해서는 밥과 국의 경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찬 양이 충분하다는 비율은 23.1%, 매우 충분하다는 비율은 12.8%로, 반찬의 양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의견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대신 절반이 조금 넘는 수용자들(53.8%)이 반찬 양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을 표시했고, 10.3%는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밥, 국, 반찬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자의 신분, 출역 여부, 수용기간, 거실인원, 거실방향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나. 식사의 질

식사의 양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

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밥(52.5%), 국(55.0%), 반찬(57.5%) 각각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그 질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하다는 응답은 밥의 경우가 34.5%, 국 30.0%이었으며 반찬은 23.0%로 낮았다. 식사의 질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는 성, 연령, 교육수준,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 수용기간, 거실인원, 거실방향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표 II-4-188〉 식사의 질

(단위: 빈도, %)

	밥	국	반찬
매우불량	2 (5.0)	1 (2.5)	2 (5.0)
불량	3 (7.5)	5 (12.5)	5 (12.5)
보통	21 (52.5)	22 (55.0)	23 (57.5)
양호	9 (22.5)	8 (20.0)	7 (17.5)
매우양호	5 (12.5)	4 (10.0)	3 (7.5)
합계	40 (100.0)	40 (100.0)	40 (100.0)

한편,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9.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구치소에서는 환자를 위해 죽을 제공하고 있을 뿐, 만성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다.

〈표 II-4-189〉 만성질환자용 특별 식단제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10	30.3
아니다	23	69.7
합계	33	100.0

다. 식사 장소

출역을 나가는 수용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거실에서 식사를 한다. 모든 거실마다 식사용 탁자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당수(62.5%)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3명 중 1명은 거실에서 각자 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90〉 식사 장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에서 각자	15	37.5
거실 식탁에서	25	62.5
합계	40	100.0

라. 식사에 배정된 시간의 적정성

식사를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5.0%는 식사 시간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12.5%는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식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다.

식사에 배정된 시간의 적정성과 관련한 인식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식사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좀더 우세했다.

〈표 II-4-191〉 식사 시간 배분의 적정성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부족	1	2.5
부족한 편	8	20.0
충분한 편	26	65.0
매우 충분	5	12.5
합계	40	100

마. 식기 세척 장소

식사 후 식기는 거실 내에 있는 싱크대(75.0%)에서 주로 세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장실(17.5%)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된 식기나 수저 등은 거실이나 화장실(85.0%)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으며, 거실이나 싱크대에 보관(12.5%)하거나 공용 식기 세척장(2.5%)에 보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표 II-4-192〉 식기 세척 장소

	빈도	유효 퍼센트
싱크대	30	75.0
화장실	7	17.5
싱크대와 화장실	3	7.5
합계	40	100

〈표 II-4-193〉 식기 및 수저 보관 장소

	빈도	유효 퍼센트
거실/싱크대	5	12.5
거실/화장실	34	85.0
공용식기세척장	1	2.5
합계	40	100

바. 식사와 관련한 애로 사항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거실 식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식기의 세척과 정리’가 44.7%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환기문제(39.5%), 식사용 탁자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7.9%)의 순이었다. 거실 식사의 가장 큰 문제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냄새가 잘 빠지지 않은 것을 예상했었는데, 식기 세척과 정리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는 점은 의외의 결과였다. 아마도 울산 구치소의 경우 비교적 거실 내 통풍이 잘 되어 환기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II-4-194〉 거실에서 식사하는 데서 야기되는 불편 사항

	빈도	유효 퍼센트
환기문제	15	39.5
부족한 식사량	1	2.6
식기 세척 정리	17	44.7

	빈도	유효 퍼센트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는점	3	7.9
불편한 점 없음	1	2.6
불편감수	1	2.6
합계	38	100.0

깨끗한 식기 세척과 위생적인 보관은 수용자가 식중독에 감염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거실 공간이 좁다보니 식기 세척과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2인실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화장실에 식기와 수저 등을 보관하고 있어,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식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반적인 애로 사항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식사의 질(35.9%)이었으며, 그 다음이 식기의 세척과 보관(15.4%), 식사 장소(12.8%)의 순이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응답도 15.4%나 되었다.

〈표 II-4-195〉 식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 사항

	빈도	퍼센트
식사장소	5	12.8
식사의 양	1	2.6
식사의 질	14	35.9
식기 세척보관	6	15.4
식사시간	2	5.1
식사질과 식기세척보관	1	2.6
식사량과 식사시간	2	5.1
식사장소 및 식기세척보관	1	2.6
식사장소 및 식사의 질	1	2.6
없다	6	15.4
합계	39	100.0

### 5. 운동

#### 가. 운동에 대한 욕구

폐쇄된 수용시설에서 매일같이 단조로운 생활하는 지속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은 기분을 전환함으로써 심신의 여유를 갖게 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준다.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92.5%)의 수용자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67.5%는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매일같이 운동한다는 수용자의 비율은 82.5%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매일 운동’하는 비율은 수용자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연령, 수용기간,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만을 간략히 보면, 매일 운동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 44.4%, 30대 83.3%, 40대 91.7%, 50대 이상 100.0%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일같이 운동한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신분별로 보면, 미결수의 경우에는 95.2%가 매일 운동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결수의 그 비율은 68.4%에 불과했다. 출역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출역을 나가지 않는 수용자는 92.6%가 매일 운동한다고 응답했지만 출역을 나가는 수용자의 그 비율은 61.5%였다. 수용기간별 차이를 보면, 3개월 미만과 1년 이상 생활한 수용자의 경우 각각 100% 매일 운동한다고 했지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93.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0%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용자의 성, 교육수준, 거실인원, 거실방향에 따라서는 매일 운동하는 비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196〉 운동의 필요성 여부

	빈도	퍼센트
전혀 필요 없다	1	2.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0	0.0
그저 그렇다	2	5.0
필요한 편이다	10	25.0
매우 필요하다	27	67.5
합계	40	100.0

〈표 II-4-197〉 매일 운동하는지 여부

	빈도	퍼센트
그렇다	33	82.5
아니다	7	17.5
합계	40	100

나. 운동의 이유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있어 운동은 지루함을 완화시켜주는 수단(2.7%)이나 동료와의 친목도모(2.7%)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II-4-198〉 매일 운동하는 주된 이유

	빈도	퍼센트
건강유지	35	94.6
지루함 완화	1	2.7
친목도모	1	2.7
합계	37	100

하지만 운동 장소가 협소한 현실은 수용자로 하여금 매일 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일 운동한다는 수용자를 포함하여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45.5%가 협소한 운동 장소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밖에도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13.6%),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아서(9.1%), 시간과 장소가 부족해서(9.1%), 장소가 협소하고 샤워하는 일이 불편해서(9.1%), 할 만한 운동이 없어서, 샤워나 목욕하는 것이 불편해서, 운동 종목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도 제기되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협소한 장소와 관련된 응답을 모두 합산하면 68.2%나 된다. 협소한 운동공간의 문제는 아마도 빌딩형 구급시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표 II-4-199〉 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빈도	퍼센트
할 만한 운동이 없어서	1	4.5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3	13.6
운동장소가 협소해서	10	45.5
샤워목욕이 불편해서	1	4.5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아서	2	9.1
시간과 장소 부족	2	9.1
장소가 협소하고 샤워가 불편해서	2	9.1
운동 종목 부족 및 협소한 운동 장소	1	4.5
합계	22	100.0

다. 운동 시간

수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운동시간은 독거 수용자가 1시간, 혼거 수용자는 30분이다. 수용자의 60.5%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운동시간이 30분 이내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3명 중 1명(34.2%)는 운동시간이 15분 이내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II-4-200〉 운동 허용 시간의 인지

	빈도	유효 퍼센트
15분 이내	13	34.2
30분 이내	23	60.5
45분 이내	1	2.6
1시간 이상	1	2.6
합계	38	100.0

라. 운동 장소

수용자들의 운동 장소를 알아본 결과, 72.5%는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한다고 응답했으며, 수용자가 출역을 나가는 경우에는 야외의 공터(12.5%) 등에서 운

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01〉 평상시 운동 장소

	빈도	유효 퍼센트
옥상	1	2.5
야외운동장	5	12.5
실내운동장	29	72.5
헬스장	2	5.0
거실	1	2.5
기타	1	2.5
운동 못함	1	2.5
합계	40	100.0

비가 올 경우에도 운동은 대부분(78.9%) 실내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거실에서 운동한다는 수용자도 10.5%나 되었다.

〈표 II-4-202〉 우천시 운동 장소

	빈도	유효 퍼센트
실내운동장	30	78.9
헬스장	2	5.3
거실	4	10.5
운동이 취소됨	2	5.3
합계	38	100.0

마. 운동 종목

수용자들이 하는 운동의 82.5%는 걷기나 뛰기였으며, 10.0%는 운동은 하지 않고 단지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팔굽혀펴기와 같은 근력 운동을 하거나 맨손체조, 스트레칭, 홀라후프 등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운동을 하더라도 대부분(71.8%)은 혼자하는 운동이며 여럿이 같이 하는 경우는 28.2%로 그 비율이 낮았다. 좁은 실내의 여건 상 단체로 어떤 운동을 하 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 II-4-203〉 운동 종목

	빈도	유효 퍼센트
걷기 뛰기	33	82.5
단순 시간보내기	4	10.0
팔굽혀펴기 등 근력운동	1	2.5
홀라후프	1	2.5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	1	2.5
합계	40	100.0

〈표 II-4-204〉 운동 형식

	빈도	유효 퍼센트
혼자 운동	28	71.8
여럿이 운동	11	28.2
합계	39	100.0

〈표 II-4-205〉 희망하는 운동종목 유무

	빈도	유효 퍼센트
있다	20	51.3
없다	19	48.7
합계	39	100.0

〈표 II-4-206〉 희망하는 운동 종목

(단위: 빈도, %)

	종목1	종목2	종목3	종목4	종목5	종목6	종목7
아니다	35 (87.5)	39 (97.5)	39 (97.5)	36 (90.0)	36 (90.0)	35 (87.5)	3 (690.0)
그렇다	5 (12.5)	1 (2.5)	1 (2.5)	4 (10.0)	4 (10.0)	5 (12.5)	4 (10.0)
합계	40 (100.0)						

종목1: 구기 종목(축구, 족구 등)

종목2: 구기 종목(배구, 농구)

종목3: 탁구

종목4: 근력운동(웨이트 트레이닝)

종목5: 배드민턴

종목6: 도구이용 운동(홀라후프, 줄넘기, 제기차기 등)

종목7: 구보/조깅/달리기

수용자들은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고 나름대로 매일 같이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운동기구 등이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걷기나 뛰기, 맨손체조 등 단순한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절반이 조금 넘는(51.3%) 수용자들은 희망하는 운동 종목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축구와 족구와 같은 종목의 구기운동에 대한 선호가 12.5%, 홀라후프, 줄넘기, 제기차기 등 도구를 이용한 운동 12.5%, 근력운동(웨이트 트레이닝) 10.0%, 배드민턴 10.0%, 그리고 구보·조깅·달리기에 대한 선호도가 10.0%였다. 그렇지만 협소한 실내운동장에서 계속 운동이 시행되는 한 이러한 수용자들의 희망사항은 관철되기 쉽지 않다.

#### 바. 운동 만족도

협소한 운동 공간, 부족한 운동기구, 짧은 운동시간은 수용자의 운동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 수용자들의 운동 장소 관련 만족도는 7.5%에 불과하며 72.5%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운동기구와 운동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5.0%에 불과하고, 운동기구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78.0%, 운동시간에 대해 불만이라는 응답비율은 70.0%나 된다.

운동 만족도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운동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 거실방향, 교육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의 표로 제시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보면, 미결수, 출역을 나가지 않는 수용자, 서북형 거실 거주자의 운동 장소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운동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었다.

운동 기구에 대한 만족도 역시 수용자 신분, 출역 여부, 거실방향,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미결수, 미출역수, 서북형 거실 거주자의 운동 기구 만족도가 낮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하 집단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집단에 비해 운동 기구 만족도가 더 높았다.

운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미결수, 미출역수, 서북형 거실 거주자가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운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207〉 운동 관련 만족도

(단위: 빈도, %)

	운동장소	운동기구	운동시간
매우불만	17 (42.5)	21 (52.5)	14 (35.0)
불만	12 (30.0)	11 (27.5)	14 (35.0)
보통	8 (20.0)	6 (15.0)	10 (25.0)
만족	2 ( 5.0)	2 ( 5.0)	2 ( 5.0)
매우만족	1 ( 2.5)	0 ( 0.0)	0 ( 0.0)
합계	40 (100.0)	40 (100.0)	40 (100.0)

수용자들이 운동과 관련하여 느끼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측정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실외운동 공간 부족이 2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내운동 공간 부족(20.5%), 불충분한 운동시간(12.8%), 운동기구 부족(10.3%)의 순이었다. 하지만 25.6%는 운동 공간, 시간, 기구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었다.

〈표 II-4-208〉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

	빈도	유효 퍼센트
실외운동 공간 부족	11	28.2
실내운동 공간 부족	8	20.5
운동기구 부족	4	10.3
불충분한 운동시간	5	12.8
운동 후 샤워목욕 불편	1	2.6
복합적 문제	10	25.6
실외운동 공간 운동기구 부족	1	2.6
실내·외 공간 운동기구 부족	1	2.6
실외운동 공간 및 운동시간 부족	2	5.1
실내운동 공간 및 운동기구 부족	1	2.6
실내운동 공간 및 운동시간 부족	2	5.1
운동의 공간·기구·시간 부족	2	5.1
전부 해당	1	2.6
합계	39	100.0

## 6. 요약적 논의

앞에서는 울산 구치소 수용자의 일상을 거실생활의 환경, 식사, 의복과 침구의 세탁, 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봤다. 수용자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은 구조적·건축학적인 이유로 인해 맑은 날에도 별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두고 생활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책을 읽거나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편이지만, 야간 취침 시 켜두는 취침등은 수용자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수원이나 인천 구치소와 달리 울산은 삼림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건물들이 거의 없어 통풍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다. 수용자들도 40%가 거실의 통풍과 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방충망이 통풍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실 내 악취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심하다’와 ‘심하지 않다’는 의견은 27.5%로 동일했다. 간혹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

내로 유입되거나 습도가 심한 날에 거실에 널어둔 빨래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화장실의 보수와 거실에서 빨래를 말리는 문제는 쾌적한 거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거실이나 화장실에 환기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악취 제거나 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풍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해도 무더운 여름철 거실 내 습도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수용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56.4%)이 습도가 높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거실 세면대와 화장실의 배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곰팡이나 해충, 벌레 등이 거실 바닥이나 벽면, 화장실 등에 서식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습도 문제 못지않게 하절기 높은 실내 온도 또한 수용자들의 거실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많은 수용자가 거주하는 거실일수록 체감하는 실내 온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단은 선풍기이지만, 거실의 규모나 같이 생활하는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한 대만 배정하고 있어 불평이 많았다. 거실인원이나 거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선풍기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피부질환을 경험한 수용자의 비율은 43.6%나 된다. 하지만 목욕이나 샤워는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 운동을 마친 다음에만 허용된다. 때문에 수용자들은 규칙을 어겨가면서 거실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간단한 샤워를 하고 있다.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수용자들은 대부분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다. 세탁기가 많지 않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빨래를 말리는 장소가 거실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습도가 심한 날에는 빨래가 마르지 않고 쉼내가 나기 때문에 거실 악취의 원인의 되기도 한다. 하절기만이라도 거실 이외의 장소에서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식사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았다. 밥, 국, 반찬의 양에 대해서는 비록 절반이 조금 넘는 수용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지만, 3명 중 1명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렇지만 수용자 1인당 급식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다. 특히 반찬의 질이 양호하다는 의견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57.5%는 반찬의 질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아마도 자신이 ‘수용자’라는 신분을 감안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식사에 배정된 시간도 충분하다는 의견(77.5%)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식기 세척이나 보관과 식사 후 환기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식기나 수저 등은 설거지 이후에 싱크대나 화장실(1-2인실의 경우)에 놓아두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운동이었다. 빌딩형 구급시설의 구조상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옥상과 건물 중앙뿐이다. 하지만 건물의 중앙은 수용자의 이송 통로, 식재료 등의 운반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취사장 출역자 등 몇몇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운동 장소로 거의 이용되지 못한다. 다만 1주일에 1회 모포털이를 위해 옥상이 제공되고 있어, 수용자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일광욕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로써 몸을 푸는 정도가 고작이다. 운동은 실내 운동실에서 하지만, 운동에 필요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30분 주어진 운동 시간에 이동 시간과 샤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건강유지를 이유로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5명 중 4명은 매일 운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운동은 좁은 거실 생활의 답답함으로부터 잠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약해지기 쉬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운동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Ⅲ

---

---

### 개선 방향

1. 채광의 문제	185
2. 통풍과 환기의 문제	186
3.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문제	187
4. 세탁물의 세탁과 건조	188
5. 식사 공간의 문제	188
6. 수용자 급식비의 인상과 식단의 다양화	189
7. 운동공간과 운동시간 등의 문제	190
8. 인권친화적 구급시설의 설계	191

빌딩형 구급시설은 접근성, 관리의 효율성, 요구되는 대지 면적 등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생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빌딩형 시설은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시 수용자 및 근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분석을 통해서 잘 드러났듯이 수용자의 치우나 만족도보다는 보안 및 수용자의 관리와 감독의 효율성이 더 강조되는 실정이다. 이는 수용자의 밀집 수용, 관리상의 이유로 제한되는 야외운동,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운동기구도 부족한 실내운동, 거실 내 식사 등에서 잘 드러난다. 향후 빌딩형 구급시설의 신축과 관리는 수용자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 1. 채광의 문제

빌딩형 구급시설은 그 건축학적 특징으로 인해 대개의 거실이 동쪽과 서쪽 사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맑은 날이면 거실 내로 햇볕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실과 외벽 사이에 있는 중간 통로가 햇볕을 차단해버린다. 더구나 수원구치소의 경우에는 수용자들간의 부정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채광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가림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정하여 가림막의 각도를 조정하여 햇볕이 들어오는 낮시간동안은 가림막이 채광을 막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빌딩형 구급시설의 경우 건축학적 구조의 문제로 인해 거실의 채광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신축되는 빌딩형 구급시설에서는 이러한 채광의 제약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시설에서는 실내 운동실에 햇볕이 잘 유입되도록 구조를 변경하거나 옥상을 활용하여 수용자들이 좀 더 자주 햇볕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 구치소의 조치들은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빌딩형 구급시설을 신축할 경우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건물의 높이이다. □

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딩형 시설의 건축학적 특성상 가운데 공간은 좁은 데 건물이 높이만 높다면, 비록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더라도 뒤쪽에 있는 거실의 채광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운데의 실외 공간은 비교적 넓게 하고 높이는 5층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통풍과 환기의 문제

거실 내 통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실 밖의 외벽과 복도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하절기의 경우 복도 창문을 통해 바람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화장실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화장실에는 수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해 촘촘한 방충망이 창문에 부착되어 있어 통풍을 방해하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간혹 드물게 발생하는 수용자의 자살 및 자살기도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최근 몇몇 구급시설에서는 활용하고 있듯이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자살기도를 예방하는 방법들이 널리 이용될 필요가 있다.

촘촘하게 짜여진 방충망과 보안창살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먼지가 끼여도 청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내 공기의 오염을 악화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진드기나 미세세균등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실내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통풍이나 환기도 어렵게 되면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의 과다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이 더위로 인해 고생할 수 있고 습도나 악취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거실 내 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분석 결과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 내로 유입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때문에 화장실 배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좌변기를 양변기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는 거실 및 화장실의 환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보안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신축되는 시설에서는 환기 장치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3. 높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문제

현재 여름철 냉방을 위해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거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를 거실 인원수에 맞게 대수와 용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선풍기는 천정형과 벽걸이형이 있는데, 냉방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그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하절기 거실의 실내 온도는 외부 기온, 통풍의 정도, 냉방장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수용자의 체온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원구치소의 경우 76%가, 인천구치소의 경우 88%가 여름철 거실내부의 온도가 매우 덥거나 더운 편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더운 실내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거실내 선풍기가 있지만 설치된 선풍기 수가 작아서, 또는 선풍기 바람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고려해 보면 선풍기의 대수와 위치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에 따른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거실에 여유가 있다면, 하절기에는 거실당 수용 인원수를 낮추는 식의 탄력적인 운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습 기능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여자 수용자 거실에만 설비되어 있는 전기장판이나 바닥 전기배선을 남자 수용자 거실로 확대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수용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횟수와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규정을 어겨가면서 거실에서 샤워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원구치소의 경우 29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이번 여름에 더위로 인한 피부질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 인천구치소의 경우 이 비율이 61%로 나타나 상당수의 수용자들이 더위로 습기로 인한 피부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갖추는 것, 그리고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키고 동시에 비용적 측면에서 의료비용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 하절기에 취사장의 경우 음식을 만드는 동안 발생하는 열로 인해 실내온

도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게 되어 수용자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물론 수원구치소와 같이 냉풍기(에어쿨러)를 가동하여 더위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기계가 내는 열기로 인해 오히려 실내온도를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불 앞에서 일하는 취사원들에게 얼음조끼(쿨렛)를 입게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사장의 온도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위생과 청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4. 세탁물의 세탁과 건조

수용자들은 주로 거실에서 세탁하고 거실 벽면에 마련된 건조대를 이용하여 빨래를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쉰내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널린 빨래로 인해 거실 공간은 더욱 좁게 느껴진다. 그나마 수건이나 속옷 등은 거실에서 말린다고 하더라도 옷가지나 이불, 담요 등을 세탁할 경우에는 적절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말리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복도를 세탁물 건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옥상을 이용하여 부피가 큰 빨래를 말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구치소마다 수용자들이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달랐는데, 울산의 경우 1주일에 1회 모포털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수용자들은 옥상에서 일광욕도 하고 이불이나 담요의 먼지도 털는 등 위생관리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시설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탈수기와 함께 빨래 건조기를 층마다 비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 5. 식사 공간의 문제

거실 내 식사는 가뜩이나 운동이 부족한 수용자들에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냄새가 배임으로써 거실의 쾌적함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수용자들이 지적하는 거실 생활의 애로 사항으로 식기 세척과 보관이 지적되었다. 잔반을 수거하기는 하지만 식기 등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거실 내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식기와 수저는 거실 내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는데, 최소한 위생적인 식기 및 수저 보관함이 거실마다 제공되는 일이 시급하다. 식당에서의 식사는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식당 식사를 위해서는 식사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설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수용자의 식당 식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가 있다면 순번제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신축되는 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식당 식사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층별로 수용자 식당을 마련한다면, 식사 시간의 제약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한 예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소망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그들의 죄질 등에 있어 타 교도소의 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때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집합하여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정당국의 인식은 그 근거가 약하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플라스틱이 아닌 제대로 된 수저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교정교화의 출발점이 식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수용자 급식비의 인상과 식단의 다양화

분석 결과 식사의 양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지만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질을 개선하려면 수용자 급식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용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보다 좀 더 나은 식사의 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급식비를 현실화 해야만 할 것이다.

수용자 1인당 급식비는 2010년과 2011년이 3,430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 금액에는 연료나 소도구 구입비도 10%가 포함되어 있어 평균 한끼에 1인당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시장물가는 올라도 예산은 동결된 상태에서는 반찬가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단 샘플에서도 보았듯이 1식4찬(국포함)이 원칙이지만 국 포함 2찬에 요구르트를 추가하는 등으로 예산에 맞추어 식단을 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채소값이 폭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배가된다. 부식담당 교도관들은 제한된 예산에서 수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면서 필요열량을 충족시키는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예산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일반사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교정예산에서 급식비도 비례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급식과 관련하여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이 제공되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성질환자들은 식단을 엄격히 조절하여야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죽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앞으로는 식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 예상된다. 저염식, 고칼로리, 채식위주 등의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일은 현재의 교도소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만일 식당이 마련되어 수용자들이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다양한 식단이 한 곳에서 함께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식당의 설치와 공동식사는 필요하다.

## 7. 운동공간과 운동시간 등의 문제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운동기구도 거의 없으며 운동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빌딩형 구급시설은 거의 예외 없이 실내 운동실에서 1일 30분 동안(독거실 수용자는 60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운동 공간이 좁아서 걷거나 제자리 뛰기 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용자들은 제기

차거나 홀라후프, 줄넘기 등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희망하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직원들이 관리만 잘 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운동 시간도 현실화되어야 한다. 운동시간으로 주어지는 30분 안에는 거실에서 운동실로 이동하는 시간과 운동 후 샤워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5-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샤워에 필요한 시간도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인천, 수원, 울산 그 어느 곳에서도 옥상을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옥상을 포함하여 야외의 공간을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각 시설별로 공간에 대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건축되는 빌딩형 구금시설의 경우 야외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안쪽 공간이 충분하도록 적정한 대지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건물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 8. 인권친화적 구금시설의 설계

앞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교도소의 시설환경의 개선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채광, 환기, 통풍,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사적 공간의 확보는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다. 새로운 신축교도소를 건설할 때에는 이러한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거실을 독거실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즉 달리 말하면 여러 명이 한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정할 때 최소한이라도 사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침대거실을 기본으

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이러한 침대의 설치가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의 작업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비용의 측면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육군교도소의 경우 흔저실이 여러 개의 이층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생활의 확보와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성추행 등과 같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도 줄이게 되어 수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축되는 빌딩형 구금시설은 보안보다는 수용자의 처우를 더 우선하여 건물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식당 식사와 야외 공간에서의 운동도 가능하도록 건물이 설계되어야 한다. 거실 내 환기와 제습 장치도 구비되어야 하며, 빨래를 세탁하고 건조시킬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여름철의 습기 제거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거실 바닥에 전기배선을 설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교도소의 여건은 그 나라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의미는 교도소의 여건이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선진국의 교도소 여건도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며 사회의 인권수준이 개선되는 만큼 그것이 교도소에도 투영되어 변화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반사회의 수준에서 괄목할 만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교도소의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사회에서 살았던 수용자를 20세기 초반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에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도소의 시설 환경과 그 속에 사는 수용자들간의 불일치가 여러 가지 수용자간의 갈등이나 교도관에 대한 공격성, 수용질서의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이다. 미래에 지어질 교도소는 이러한 불일치를 시정하고 21세기 현재의 우리의 인권 의식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친화적 설계에 의한 교도소 건축은 수용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 틀림없다. 시설환경에 대한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직원들도 수용자와 유사한 문제(더위와 습기)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도소의 물리적 시설환경의 문제는 직원들에게도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 첨 부 자 료

첨부자료 1 구치소 방문조사 요청자료 목록	195
첨부자료 2 수용자 면담용 질문지	199
첨부자료 3 교도관 면담 질문지	204
첨부자료 4 구금시설 현장점검 리스트	207
첨부자료 5 수용시설의 생활여건에 관한 조사	219

## 첨부자료 1

### 구치소 방문조사 요청자료 목록

#### ◎ 기본사항

1. 자료제출일 기준 수용정원과 수용인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2. 성별에 따른 거실의 유형별 개수, 거실유형별 수용인원: 남자수용자용 거실과 여자수용자용 거실을 구분하고 거실의 방향(동서남북)별로 수용인원 기준 거실유형과 실제 수용인원을 표로 제시

#### ◎ 채광

1. (방충망 설치 시) 방충망의 재질과 밀도, 개폐여부에 대한 자료
2. 거실 외부창의 유형: 거실 내에 외부창이 있는 거실의 수와 화장실에 외부창이 있는 거실의 수
3. 거실 유형(수용인원 기준)별 거실 외부창의 개수
4. 일조량 측정/ 측정된 자료나 일조량의 기준: 거실 유형(수용인원 기준) 및 거실의 방향(동서남북)별 일조량

#### ◎ 통풍과 환기

1. 동절기, 하절기 등 계절별 습도 및 환기 관리 관련기준이나 지침(시점, 기간, 1일 가동시간, 적정 온도 등에 대한 관리)
  - 수용자 거실의 습도, 실내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점검 자료 제시
  - 습도 및 통풍을 위해 설치된 환기시설이나 환기장치 등의 목록
  - 환기시설 가동 조건: 가동 시점, 습도 혹은 실내온도의 조건, 1일 가동시간, 1회 가동 시간 등
  - 환기시설 가동 실적 자료
2. 지난 1년간 거실 내 환기부족으로 인한 문제 유형(예, 곰팡이 서식 등) 및 해소 방식(거실소독 및 곰팡이 제거 실적)
  -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 거실 소독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인 실행 기준, 소독방법, 소독 실

적 자료 제시

- 거실이나 화장실 등에 서식하고 있는 곰팡이는 주기적으로 제거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실행 기준, 제거방법, 곰팡이 제거 시행 실적 자료 제시
3. 하절기 방충, 방역 지침 및 시행 실적
- 계절별 방충 지침 및 시행 실적
  - 계절별 방역 지침 및 시행 실적

### ◎ 냉난방

#### 1. 냉난방 시설 현황 및 관리 지침

##### 1) 냉방관련 자료

- 냉방기기의 종류 및 거실별(수용인원 기준) 배치 현황
- 냉방기기 가동 및 종료 시점(월, 일)과 기준 실내 온도
- 하루에 냉방이 가동되는 시간

##### 2) 난방관련 자료

- 난방기기의 종류 및 거실별(수용인원 기준) 배치 현황
- 난방기기 가동 및 종료 시점(월, 일)과 기준 실내 온도
- 하루에 난방이 가동되는 시간
- 수용자 1인당 난방비 현황(최근 10년간 추이)

#### 2. 목욕 및 샤워 시설 현황 및 계절별 운영 지침(시점, 빈도)

- 수용자용 목욕/샤워 시설 현황(성별)
- 온수 제공 시기 및 1일 온수 제공 시간
- 계절별·요일별·성별 온수 목욕 시간표
- 계절별·요일별·성별 냉수 목욕/샤워 시간표

### ◎ 세탁

#### 1. 세탁 시설 현황

- 세탁 장소 및 면적(m<sup>2</sup>)
- 세탁기 구비 현황: 세탁용량(kg)별 대수
- 수도시설: 세탁 장소의 수도시설 대수
- 건조기 구비 현황
- 세탁물 건조대 구비 현황

2. 계절별 세탁 관련 지침

- 세탁물의 세탁 및 건조 관리 지침
- 세탁 횟수 및 세탁 시간: 의복, 수건의 세탁과 이불·담요 등의 세탁을 구분해서 자료 제시
- 수용자 1인당 세탁용 비누 혹은 세제 지급량 및 지급 시기
- 세탁용 온수가 제공되는지 여부
- 세탁물 건조 장소와 건조 방식: 의복 및 이불 등을 구분해서 자료 제시
- 우천 시 세탁물 처리(세탁 및 건조) 방식과 관련 지침

◎ 식사

1. 수용자 급식 단가 및 음식의 질

- 지난 3년간 월별 급식비 총액
- 연도별 수용자 급식 단가 현황 자료
- 2011년 1월과 7월 요일별 식단표
- 1일 칼로리 섭취량
- 만성질환자 등 식이요법이 요구되는 수용자를 위한 식단 운영 여부 및 일일 식단표

2. 사동내 별도의 식당시설 유무 및 별도 식당 이용대상자

3. 식기 세척 및 보관·관리 지침

◎ 운동

1. 수용자 운동 관련 지침

- 수용자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생활규칙 혹은 관리 지침
- 수용자 1인당 운동 관련 예산(최근 10년간)
- 운동이 허용되지 않거나 보류되는 경우 혹은 그 대상자

2. 야외 운동 장소 관련 자료

- 실외 운동장 개수 및 면적
- 별도의 실외 운동장이 없는 경우, 야외 운동 장소 및 면적

3. 실내 운동 장소 관련 자료

- 실내 운동장 개수 및 면적
- 별도의 실내 운동장이 없는 경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면적

4. 운동시간(오가는 시간 제외)

-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얼마동안 운동이 허용되는지?

5. 운동프로그램의 내용

- 실외 운동 프로그램
- 실내 운동 프로그램
- 운동 기구의 종류 및 개수, 수용자 1인당 운동 기구 종류별 비치개수
- 평일 및 공휴일의 운동 프로그램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운동 프로그램
- 개인 운동 외에 단체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지?
- 운동 시간과 장소의 운영에 관한 자료: 모든 수용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는지, 같은 시간대에 몇 개의 장소에서 나누어 운동하는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몇 개의 장소에서 나누어 실시하는지?

6. 실내외 운동장 사용 요건: 누가 실외운동장을 이용하고 누가 실내운동장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첨부자료 2

수용자 면담용 질문지

◎ 기본사항

성 별	연령 (만 세)	생활거실의 인원수	구치소 수용기간(월)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3인 이하 <input type="checkbox"/> 4인-6인 <input type="checkbox"/> 7인 이상	

◎ 채광

1. 창

- 1) 창문은 바깥으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복도를 향해 있는가? 혹은 양쪽 방향으로 모두 창이 나있는가?
- 2) 창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가로 세로 몇 센티 정도인가?
- 3) 보안창살의 봉의 두께, 봉과 봉의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 4) 맑은 날 햇빛이 거실 내로 충분히 들어오는가?
- 5) 낮에 불을 켜지 않고도 자연적 일광만으로 일을 하거나 책 읽는 것이 가능한가?

2. 방충망

- 1)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2) 탈착이 가능한가? 고정되어 있는가?
- 3) 방충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햇빛이 거실 내로 들어오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는가? 비슷한가?

3. 인공조명시설

- 1) 거실 내 조명은 누가 켜고 끄는가? 스위치가 거실이나 수용자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교도관이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중앙에서 통제하는가?
- 2) 거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에 조명이 들어오는 시간상의 제한이 있는가? 있다면 조명이 제공되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조명제공 시간에 대한 요일별(주중, 주말/휴일) 혹은 계절별 차이가 있는가?

- 3) 독서나 노동이 가능할 정도로 조명의 밝기는 충분한가?
  - 4) 조명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4. 기타 채광과 관련한 문제점
- 1) 거실에 햇빛이 잘 안 들거나 조명이 어두워 눈이 침침하거나 두통 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 2) 기타 채광과 관련하여 느끼는 문제가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 ◎ 환기

### 1. 통풍

- 1) 창을 통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잘 들어오는가?
- 2) 거실의 환기는 잘 되고 있는 편인가? 평소 거실 내 악취는 없는가? 악취가 있다면 거실 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인가? 거실 내 악취로 인해 심한 두통을 느낀 적이 있는가?
- 3) 평소 식사를 마친 후나 청소 이후에 거실의 환기는 어떻게 시키는가? 창을 통해 자연환기를 시키는가 아니면 환풍기 등 환기장치를 이용하는가? 환기는 잘 되는가?
- 4) 화장실의 환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환기창이나 환기장치 등이 있는가? 환기장치가 있다면 누가 얼마 동안 작동시키는가?
- 5) 평소 화장실의 악취가 거실로 스며드는가?

### 2. 습도

- 1) 거실의 습도는 어느 정도인가? 견딜만한 정도인가 참기 힘든 정도인가?
- 2) 바닥이나 벽, 혹은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가? 있다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있는가?
- 3) 화장실이나 세면대의 배수는 잘 되는가?
- 4) 곰팡이 제거를 위해 수용자 혹은 시설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 3. 기타 환기와 관련한 문제점

- 1) 통풍, 습도 조절을 위해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 ◎ 냉방

### 1. 실내 온도

- 1) 여름철 거실은 얼마나 더운가? 견딜만한가?
  - 2) 거실에 냉방을 위한 장치(선풍기, 천정 부착형 에어컨 등)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거실 내에 몇 개가 있는가?
  - 3) 선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치소/교도소 측에서 그 냉방장치의 가동을 통제하는가?
  - 4) 냉방장치가 있을 경우, 가동되기 위한 조건(시기, 실내온도, 시간대, 1회 가동시간 등)이 있는가? 그러한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5) 수용자들이 구치소/교도소 측에 냉방 가동을 요청할 수 있는가?
2. 냉수 샤워
- 1) 냉방 대신 냉수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허용되는 횟수나 시간대 혹은 특정 조건이 정해져 있는가?
  - 2) 냉수 샤워는 어디에서 하는가? 공동 목욕탕 외에 냉수 샤워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거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3) 샤워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4) 샤워 후 배수는 잘 되는 편인가?
3. 기타 냉방 관련 문제점과 건의 사항
- 1) 수용생활 중 더위나 씻을 기회의 부족 등으로 피부질환이 발병한 적이 있는가?
  - 2) 수용생활 중 더위 등으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병한 동료가 있는가?

## ◎ 세탁

1. 세탁 시설
- 1)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의복을 세탁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가?
  - 2) 의복 세탁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세탁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가?
  - 3)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는가? 있다면 몇 대가 있는가?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대상자 등이 정해져 있는가?
  - 4) 의복 세탁은 수용자 본인이 하는가? 세탁을 전담하는 당번이 있는가? 아니면 구치소/교도소 측에서 세탁을 해주는가?
  - 5) 침구(이불, 담요 등)의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 6) 침구의 세탁은 누가 하는가? 본인, 당번, 아니면 시설 측에서 담당하는가?
  - 7) 세탁용 비누나 세제는 지급되는가?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가?
  - 8) 의복, 운동복 등의 교환은 수시로 가능한가?

2. 건조 시설

- 1) 세탁물은 주로 어느 곳에서 말리는가? 거실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별도의 세탁물 건조 장소가 있는가?
- 2) 실내 건조 시 세탁물은 잘 마르는 편인가?
- 3) 거실 내에서 수건이나 옷가지 등이 잘 마르지 않아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 4) 세탁물(의복, 이불 등)을 햇볕에 말릴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그 공간은 충분한가? 원하면 그곳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가?
- 5) 공용으로 이용하는 세탁물 건조기가 있는가? 있다면 건조기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가?
- 6) 거실이나 공동 세탁/건조 장소에 빨래 건조대가 있는가?
- 7) 비가 올 경우 세탁물은 어떻게 말리는가?

3. 기타 세탁 관련 문제점 및 건의 사항

◎ 거실식사

1. 식사 장소

- 1) 거실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 2) 거실 내 식사용 테이블(상)이 있는가?
- 3)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아니면 현재처럼 거실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식사의 질

- 1) 밥과 반찬의 양과 질, 맛은 어떠한가? 밥과 반찬은 원하는 만큼 제공되는가(자율배식)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 2) 1식 3찬은 지켜지고 있는가?
- 3) 육류, 어류, 면류, 과일 등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 4)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식단이 운영되고 있는가?

3. 식사 시간 및 식기 세척

- 1) 배식에서 식사 및 식기세척까지 1끼 식사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1끼 식사에 배정된 시간(배식, 식사, 식기세척)은 얼마인가? 배식, 식사, 식기세척에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 식기는 누가 어느 곳에서 세척하는가? 식기세척장이 따로 있는가?
- 3) 식기는 어느 곳에 보관하는가?

4. 기타 식사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운동

1. 운동 기회

- 1) 수용생활에서 운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2) 운동은 하루 중 언제 얼마의 시간동안 허용되는가?
- 3) 1일 운동 횟수와 운동 시간은 충분한가?
- 4) 주어진 운동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편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5) 평상복 외에 운동복이나 운동화가 제공되는가?

2. 운동 장소

- 1) 주된 운동 장소는 어디인가?
- 2) 수용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야외 운동장이 있는가?
- 3) 수용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운동장 혹은 헬스장 등이 있는가?
- 4) 실외 혹은 실내 운동 장소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 5) 운동 시설 혹은 장소 내에 식수대가 마련되어 있는가?
- 6) 운동 후 세면 혹은 샤워가 가능한가?
- 7) 실내 운동 시설 혹은 장소의 환기는 잘 되는 편인가? 환기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는가?
- 8)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경우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3. 운동 유형

- 1)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가?
- 2) 개인적으로 혹은 동료들이 희망하는 운동이 있는가?
- 3) 운동은 개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집단체조와 같이 단체로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가?
- 4) 야외 운동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나 장비가 있는가?
- 5) 실내 운동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나 장비가 있는가?

4. 기타 운동 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첨부자료 3

## 교도관 면담 질문지

#### 기본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    )세
3. 소속	① 수원구치소   ② 인천구치소   ③ 울산구치소
4. 직급	
5. 총 근무기간	(    )년 (    )개월
6. 본소 근무기간	(    )년 (    )개월
7. 담당업무	
8. 주요 근무 장소	

#### 근무환경

##### 1. 실내온도

- 1) 근무 장소의 여름철과 겨울철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인가?
- 2) 근무 장소의 실내 온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3) 근무 장소의 냉난방을 위한 주요 장치는 무엇이며,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 4) 적정 수준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근무자들을 위한 냉난방 장치가 가동되기 위한 조건이나 기준 등이 있는가?
- 5) 본 시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실내 온도 문제(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 2. 습도

- 1) 근무 장소의 평소 습도는 어떤가? 견딜만한 정도인가 참기 힘든 정도인가?
- 2) 습기가 많은 날이나 장마철의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3) 근무 장소의 천장이나 벽, 그리고 바닥상태는 양호한가? 곰팡이나 부식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가?
- 4) 본 시설에서 습도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3. 채광

- 1) 근무 장소의 채광은 어떤가? 낮에 불을 켜지 않고도 자연적 일광만으로 근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낮에도 인공조명이 필요한가?
- 2) 근무 장소의 인공조명의 밝기는 충분한가?
- 3) 본 시설에서 자연 채광 문제(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음)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 4) 본 시설에서 조명이 어두워 근무에 지장이 있는 곳이 있는가?

4. 환기

- 1) 근무 장소의 실내 공기는 순환이 잘 되는 편인가? 창문 등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잘 유입되는 편인가? 외부의 공기가 잘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근무 장소에 인공적인 환기시설은 구비되어 있는가?
- 3) 근무 장소의 악취 정도는 어떠한가? 불쾌한 냄새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취하는 조치가 있는가?
- 4) 근무하는 동안에 사동의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5) 본 시설에서 환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인가?

5. 기타

- 1) 사동 근무 시 세면대나 화장실 사용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
- 2) 건물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가? 화재대비 매뉴얼 등은 준비되어 있는가? 화재대비 훈련은 하는가?
- 3) 교도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시설 및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 부식담당 교도관 관련

1. 이번 달 부식 예산은 얼마인가? 예산 내에서 부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수용자 1인당 급식단가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2. 음식물로 인한 질병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3. 부식의 다양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가? 육류, 어패류, 채소류의 균형을 고려하는가?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206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4. 유통기한이 지난 부식재료들은 어떻게 하는가?
5. 부식의 저장을 위한 냉장시설 등은 충분한가? 몇 도에서 유지하는 가? 냉동차량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는가?
6. 여름철 음식물 부패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7. 신선도가 떨어지는 부식재료 등은 어떻게 하는가?
8. 기타 부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무엇인가?
9. 부식담당 업무의 애로점은 무엇인가?

첨부자료 4

구금시설 현장점검 리스트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기본사항

\_\_\_\_\_구치소 시설개요:

층수:

건축형태:

건물의 실내온도 측정

	오전	오후
저층		
중층		
상층		

\* 가능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할 것

\* 해당사항 없을 시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채광

1. 환기창

1) 환기창의 위치 및 개수: (해당항목에 모두 표시)

① 외부로 향한 거실벽 ② 복도를 향한 거실벽 ③ 화장실 외부벽 ④ 없음

2) 환기창의 재질:

창호: 강화유리( ) 아크릴( ) 비닐( ) 기타( )

창틀: 플라스틱( ) 알루미늄( ) 목재( ) 기타( )

3) 환기창의 크기: 가로( )cm, 세로( )cm, 바닥에서의 높이( )cm

4) 환기창의 방향 및 개수:

\_\_\_①동향( )개, \_\_\_②서향( )개, \_\_\_③남향( )개,

\_\_\_④북향( )개, \_\_\_⑤ 기타 방향( )개

2. 자연 채광량의 정도

\_\_\_① 독서, 노동이 가능한 정도, \_\_\_② 눈에 피로를 느끼는 정도

\_\_\_③ 독서, 노동이 불가능한 정도

\_\_\_④ 기타( )

3. 방충망: \_\_\_① 없다, \_\_\_② 있다

3-1. 방충망의 형태: \_\_\_① 고정식, \_\_\_② 착탈식, \_\_\_③ 기타( )

3-2. 방충망의 채광 차단 효과

\_\_\_① 매우 높음, \_\_\_② 높은 편, \_\_\_③ 보통  
\_\_\_④ 낮은 편, \_\_\_⑤ 매우 낮음

3-3. 방충망의 환기방해 효과

\_\_\_① 매우 높음, \_\_\_② 높은 편, \_\_\_③ 보통  
\_\_\_④ 낮은 편, \_\_\_⑤ 매우 낮음

4. 보안창살

1) 두께: ( )cm, 2) 개수: ( )개

2) 보안창살이 채광 차단 효과

\_\_\_① 매우 높음, \_\_\_② 높은 편, \_\_\_③ 보통  
\_\_\_④ 낮은 편, \_\_\_⑤ 매우 낮음

3) 보안창살의 환기 방해 효과

\_\_\_① 매우 높음, \_\_\_② 높은 편, \_\_\_③ 보통  
\_\_\_④ 낮은 편, \_\_\_⑤ 매우 낮음

5. 채광에 대한 평가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통풍

1. 거실 내 악취 정도

\_\_\_① 매우 심함, \_\_\_② 심한 편, \_\_\_③ 보통  
\_\_\_④ 심하지 않은 편, \_\_\_⑤ 전혀 심하지 않음

2. 화장실 내 악취 정도

\_\_\_① 매우 심함, \_\_\_② 심한 편, \_\_\_③ 보통  
\_\_\_④ 심하지 않은 편, \_\_\_⑤ 전혀 심하지 않음

3. 거실 환기 방법

\_\_\_① 통풍이 전혀 되지 않음(폐쇄된 창, 환풍 장치 없음 등)  
\_\_\_② 창을 통한 자연 통풍  
\_\_\_③ 환풍기 등을 통한 강제적 통풍  
\_\_\_④ 기타( )

4. 화장실 환기 방법

\_\_\_① 통풍이 전혀 되지 않음(폐쇄된 창, 환풍 장치 없음 등)  
\_\_\_② 창을 통한 자연 통풍  
\_\_\_③ 환풍기 등을 통한 강제적 통풍  
\_\_\_④ 기타( )

5. 거실과 화장실의 구분방법

\_\_\_① 개폐문 \_\_\_② 차폐시설 \_\_\_③ 구분없음

6. 세면실과 화장실의 구분여부

\_\_\_① 구분되어 있음 \_\_\_② 구분없음

7. 통풍과 환기에 대한 평가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습도

1. 거실의 습도:

- 1) 측정치 ( )도
- 2) 거실 내 체감 습도  
 \_\_\_① 매우 습함, \_\_\_② 습한 편, \_\_\_③ 보통  
 \_\_\_④ 습하지 않은 편, \_\_\_⑤ 전혀 습하지 않음

2. 화장실, 세면대의 배수 상태

\_\_\_① 양호, \_\_\_② 불량(구체적으로: )

3. 거실 내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방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4) 화장실: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5) 세면대: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6) 기타:(장소 및 정도: )

4. 습도에 대한 평가

212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냉방

1. 실내 온도: ( )도

2. 냉방 장치

\_\_\_① 없음

\_\_\_② 천정형 선풍기

\_\_\_③ 거치식/이동식 선풍기

\_\_\_④ 천정형 에어컨

\_\_\_⑤ 기타( )

3. 샤워 시설

1) 층 별 : ( )개, 샤워기 ( )개/개소, 면적 ( )m<sup>2</sup>/개소

2) 건물 전체 : ( )개, 샤워기 ( )개/개소, 면적 ( )m<sup>2</sup>/개소

3) 샤워 가능 시간: ( )

4. 냉방 관련 문제의 평가



214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샤워시설의 기본여건

- 바닥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배수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채광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환기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습도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실내기온 (    )도

2. 샤워시설 기본장비

- 샤워꼭지:    대 (고장난 샤워기 대)
- 수도시설    ①있음 (    )대    ② 없음
- 사물함 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3. 샤워시설 내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4. 샤워시설 평가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세탁시설의 기본여건

- 바닥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배수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채광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환기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습도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실내기온 (    )도
- 독립공간 유무

2. 세탁시설 기본장비

- 세탁기    ①있음 (    )kg용 (    )대    ② 없음
- 수도시설    ①있음 (    )대    ② 없음
- 건조기    ①있음 (    )kg용 (    )대    ② 없음
- 건조대    ①있음    ② 없음

3. 세탁시설 내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4. 세탁시설 평가

216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주방시설의 기본여건

- 바닥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배수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채광/조명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환기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습도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실내기온 (    )도

2. 주방 내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3. 주방시설 평가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구실

1. 관구실의 시설환경

- 크기 ① 매우 협소 ② 협소한 편 ③ 보통 ④ 넓은 편 ⑤ 매우 넓은
- 측정 실내온도 ( )도
- 냉방방법 ① 선풍기( )대 ② 벽걸이에어컨( )대 ③ 스탠드형 ( )대

2. 관구실의 기본여건

- 바닥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채광/조명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환기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 습도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3. 관구실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4. 관구실 시설 평가

218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방문일자	시설명	점검자명

점검 장소			
<input type="checkbox"/> 독거실	<input type="checkbox"/> 혼거실( 인)	<input type="checkbox"/> 조사수용실	<input type="checkbox"/> 징벌실
<input type="checkbox"/> 운동장소	<input type="checkbox"/> 세탁시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주방(취사장)
<input type="checkbox"/> 관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옥상 건조시설

1. 옥상의 시설환경

- 크기 ① 매우 협소 ② 협소한 편 ③ 보통 ④ 넓은 편 ⑤ 매우 넓음  
 용도 ① 건조대만 ② 건조대와 운동장 병행 ③ 운동장용도로만

2. 옥상의 기본여건

- 바닥상태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채광/조명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환기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습도 ① 매우 불량 ② ③ ④ ⑤ 매우 양호

3. 옥상 곰팡이 서식 여부

- 1) 바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2) 벽: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3) 천장: ① 전혀 없음 ② ③ ④ ⑤ 매우 심함

4. 옥상 시설 평가

첨부자료 5

수용시설의 생활여건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수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시설 내 안전과 질서, 그리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되고 교정 당국이나 외부에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실 필요가 없으며 답변 내용으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A.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① 남자   \_\_\_② 여자
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_\_\_① 미결수   \_\_\_② 기결수
3. 귀하는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①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_\_\_②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  
\_\_\_③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  
\_\_\_④ 2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_\_\_⑤ 4년제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_\_\_⑥ 대학원 재학 이상  
\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5. 현재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_\_\_① 미혼 \_\_\_② 기혼 \_\_\_③ 이혼 \_\_\_④ 사별 \_\_\_⑤ 별거 \_\_\_⑥ 기타(    ) )
6. 귀하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셨습니까?  
\_\_\_① 1개월 미만  
\_\_\_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_\_\_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_\_\_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_\_\_⑤ 1년 이상
7. 귀하가 거주하는 거실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    )명
8. **이곳에 오기 전**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  
\_\_\_① 매우 좋지 않았다  
\_\_\_② 좋지 않은 편이었다  
\_\_\_③ 그저 그랬다

- \_\_\_④ 좋은 편이었다
- \_\_\_⑤ 매우 좋았다

9.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_\_\_① 매우 좋지 않다
- \_\_\_② 좋지 않은 편이다
- \_\_\_③ 그저 그렇다
- \_\_\_④ 좋은 편이다
- \_\_\_⑤ 매우 좋다

10. 귀하는 출역을 나가고 있습니까?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1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_\_\_① 기독교 \_\_\_② 천주교 \_\_\_③ 불교 \_\_\_④ 기타( ) \_\_\_⑤ 없음

12. 이번에 이곳에 오게 된 직명은 무엇입니까? \_\_\_\_\_

**B. 다음은 여러분의 거실 생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생활하는 거실의 창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 \_\_\_① 동 \_\_\_② 남동 \_\_\_③ 남 \_\_\_④ 남서 \_\_\_⑤ 서 \_\_\_⑥ 북서 \_\_\_⑦ 북 \_\_\_⑧ 북동

2. 맑은 날 낮 시간에 햇빛이 거실 안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 \_\_\_①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 \_\_\_②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다
- \_\_\_③ 보통이다
- \_\_\_④ 잘 들어오는 편이다
- \_\_\_⑤ 매우 잘 들어온다

3. 맑은 날 낮 시간에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_\_\_① 매우 어둡다
- \_\_\_② 어두운 편이다
- \_\_\_③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 \_\_\_④ 밝은 편이다
- \_\_\_⑤ 매우 밝다

4. 밤에 불을 켜올 때 거실 안의 밝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어둡다
- ② 어두운 편이다
- ③ 어둡지도 밝지도 않다
- ④ 밝은 편이다
- ⑤ 매우 밝다

5. 밤 시간대의 거실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 그대로가 좋다
- ② 지금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다
- ③ 지금보다 덜 밝았으면 좋겠다

6. 거실 내 환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안 되고 있다
- ② 안 되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되고 있는 편이다
- ⑤ 매우 잘 되고 있다

6-1. 거실 내 환기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해 주세요.

- ① 바깥으로 난 창문이 없어서
- ② 바깥으로 난 창문의 크기가 작아서
- ③ 창문에 방충망이 있어 통풍이 잘 안 되어서
- ④ 별도의 환기 장치가 없어서
- ⑤ 환기 장치는 있으나 자주 가동하지 않아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7. 거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악취가 매우 심하다
- ② 악취가 심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악취가 없는 편이다
- ⑤ 악취가 전혀 없다

7-1. 거실 내 악취가 심하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해 주세요.

- \_\_\_① 거실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 \_\_\_② 거실에서 말리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 \_\_\_③ 화장실 냄새가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 \_\_\_④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 \_\_\_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거나 자주 할 수 없어서
- \_\_\_⑥ 거실 청소나 이불, 담요 등의 세탁 등을 자주 할 수가 없어서
- \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8. 거실 내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 \_\_\_① 악취가 매우 심하다
- \_\_\_② 악취가 심한 편이다
- \_\_\_③ 그저 그렇다
- \_\_\_④ 악취가 없는 편이다
- \_\_\_⑤ 악취가 전혀 없다

8-1. 화장실 악취가 심하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해 주세요.**

- \_\_\_①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 \_\_\_② 화장실 내 창문이 없기 때문에
- \_\_\_③ 화장실 내 환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 \_\_\_④ 화장실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 \_\_\_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9. 거실의 습도(녹녹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_\_\_① 전혀 높지 않다
- \_\_\_② 높지 않은 편이다
- \_\_\_③ 적당하다
- \_\_\_④ 높은 편이다
- \_\_\_⑤ 매우 높다

10.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벽, 천정의 곰팡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_\_\_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_\_\_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_\_\_③ 그저 그렇다
- \_\_\_④ 심각한 편이다
- \_\_\_⑤ 매우 심각하다

224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11. 거실 세면대나 화장실의 배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거의 안 된다
-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 ③ 잘 되는 편이다
- ④ 매우 잘 된다

12. 여름철 거실의 내부 온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덥다
- ② 더운 편이다
- ③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 ④ 서늘한 편이다
- ⑤ 매우 서늘하다

13. 거실 내 선풍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1대
- ③ 2대
- ④ 3대
- ⑤ 4대 이상(구체적으로: \_\_\_\_\_ 대)

14. 거실에 선풍기는 더위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 ② 도움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 되는 편이다
- ⑤ 매우 도움 된다
- ⑥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4-1. 거실 내 선풍기가 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설치된 선풍기 수가 적어서
- ② 선풍기 바람이 약해서
- ③ 선풍기 가동시간이 짧아서
- ④ 실내 온도에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대에만 선풍기가 가동되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5. 현재 거실 내 선풍기 가동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 \_\_\_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_\_\_③ 그저 그렇다
- \_\_\_④ 적절한 편이다
- \_\_\_⑤ 매우 적절하다
- \_\_\_⑥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5-1. 선풍기 작동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

16. 냉수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16-1. 샤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_\_\_① 사동에 마련된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에서
- \_\_\_② 거실 싱크대에서
- \_\_\_③ 화장실에서
- \_\_\_④ 기타(구체적으로: )

17. 올 여름 현재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땀띠 등 더위로 인한 피부질환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18. 현재 생활하는 거실 안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습니까?

- \_\_\_① 전혀 없다
- \_\_\_② 없는 편이다
- \_\_\_③ 많은 편이다
- \_\_\_④ 매우 많다

19. 거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_\_\_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② 6개월에 1회 정도 \_\_\_③ 4-5개월에 1회 정도
- \_\_\_④ 3개월에 1회 정도 \_\_\_⑤ 2개월에 1회 정도 \_\_\_⑥ 1개월에 1회 정도
- \_\_\_⑦ 3-4주에 1회 정도 \_\_\_⑧ 2주일에 1회 정도 \_\_\_⑨ 10일에 1회 정도
- \_\_\_⑩ 1주일에 1회 \_\_\_⑪ 5-6일에 1회 \_\_\_⑫ 3-4일에 1회
- \_\_\_⑬ 2일에 1회 \_\_\_⑭ 매일
- \_\_\_⑮ 기타(구체적으로: )
- \_\_\_⑯ 모르겠다



3.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_\_\_① 수송자 개인
- \_\_\_② 수송자 중 세탁 당번제 운용
- \_\_\_③ 구치소 측에서 단체로 세탁함
- \_\_\_④ 기타( )

4. (침구를 제외한 일반세탁) 개인 혹은 세탁 당번이 세탁을 한다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_\_\_① 손빨래                    \_\_\_② 세탁기 (            대)
- \_\_\_③ 기타(구체적으로:                    )

5. (침구를 제외한 일반 세탁물) 주로 어디서 말립니까?

- \_\_\_① 거실
- \_\_\_② 공용 세탁실
- \_\_\_③ 별도의 실내 공용건조실
- \_\_\_④ 옥상/야외 건조 장소
- \_\_\_⑤ 복도
- \_\_\_⑥ 기타(구체적으로:                    )

5-1. 비가 올 경우에는 세탁물을 어디서 말립니까?

(                    )

6. (침구를 제외한 일반 세탁물) 주로 어떻게 말립니까?

- \_\_\_① 빨랫줄에 널어서                    \_\_\_② 세탁물 건조대에 널어서
- \_\_\_③ 세탁물 건조기를 이용해서                    \_\_\_④ 기타(                    )

7. 거실에서 말리는 세탁물의 건조 상태는 어떻습니까?

- \_\_\_① 양호함                    \_\_\_② 쉰내가 남

8. 침구(이불, 담요)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 \_\_\_① 1년에 1회 정도    \_\_\_② 6개월에 1회 정도    \_\_\_③ 3개월에 1회 정도
- \_\_\_④ 1개월에 1회 정도    \_\_\_⑤ 2주에 1회 정도    \_\_\_⑥ 1주일에 1회 정도
- \_\_\_⑦ 수시로                    \_\_\_⑧ 기타(구체적으로:                    )

9. 침구(이불, 담요)는 주로 누가 세탁을 합니까?

- \_\_\_① 수송자 개인                    \_\_\_② 수송자 중 세탁 당번
- \_\_\_③ 구치소 측                    \_\_\_④ 기타(                    )

10. 관급 이불 및 담요는 언제 새것으로 바꿔줍니까?  
( )

D. 다음은 식사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식사로 제공되는 밥, 국, 반찬의 양은 어떻습니까?

- 1) 밥 \_\_① 매우 부족 \_\_② 부족 \_\_③ 보통 \_\_④ 충분 \_\_⑤ 매우 충분
- 2) 국 \_\_① 매우 부족 \_\_② 부족 \_\_③ 보통 \_\_④ 충분 \_\_⑤ 매우 충분
- 3) 반찬 \_\_① 매우 부족 \_\_② 부족 \_\_③ 보통 \_\_④ 충분 \_\_⑤ 매우 충분

2. 식사로 제공되는 밥, 국, 반찬의 질은 어떻습니까?

- 1) 밥 \_\_① 매우 불량 \_\_② 불량 \_\_③ 보통 \_\_④ 양호 \_\_⑤ 매우 양호
- 2) 국 \_\_① 매우 불량 \_\_② 불량 \_\_③ 보통 \_\_④ 양호 \_\_⑤ 매우 양호
- 3) 반찬 \_\_① 매우 불량 \_\_② 불량 \_\_③ 보통 \_\_④ 양호 \_\_⑤ 매우 양호

3.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염 식단 등 특별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 \_\_\_① 그렇다(구체적으로: )
- \_\_\_② 아니다

4.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_\_\_① 거실(각자)      \_\_\_② 거실(식사용 탁자, 상에서 같이)
- \_\_\_③ 공용 식당      \_\_\_④ 기타( )

4-1. 식사를 주로 거실에서 한다면, 제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_\_\_① 식사 후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 \_\_\_②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 \_\_\_③ 식사 후 식기 세척과 정리
- \_\_\_④ 식사용 탁자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 \_\_\_⑤ 기타( )

5. 식사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 \_\_\_① 매우 부족하다
- \_\_\_② 부족한 편이다
- \_\_\_③ 충분한 편이다



230 빌딩형 구급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_\_\_②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 \_\_\_③ 달리 할 일이 없어서
- \_\_\_④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 \_\_\_⑤ 기타( )

2-2. 매일 운동하지 않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할 만한 운동이 없어서
- \_\_\_②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 \_\_\_③ 운동 장소가 협소해서
- \_\_\_④ 운동 후 샤워나 목욕하는 것이 불편해서
- \_\_\_⑤ 남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 \_\_\_⑥ 운동할 만큼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아서
- \_\_\_⑦ 운동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 \_\_\_⑧ 기타( )

3. 한 회당 운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나가고 들어가는 시간은 제외함)

- ① 15분 이내    ② 30분 이내    ③ 45분 이내
- ④ 1시간 이내    ⑤ 1시간 이상

4. 운동시간에 운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 1) 평상시: \_\_\_① 옥상    \_\_\_② 야외운동장    \_\_\_③ 실내운동장  
\_\_\_④ 헬스장    \_\_\_⑤ 거실  
\_\_\_⑥ 기타( )

- 2) 우천시: \_\_\_① 옥상    \_\_\_② 야외운동장    \_\_\_③ 실내운동장  
\_\_\_④ 헬스장    \_\_\_⑤ 거실  
\_\_\_⑥ 기타( )

5. 운동시간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 \_\_\_① 걷거나 뛰기    \_\_\_②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
- \_\_\_③ 체조나 요가, 줄넘기    \_\_\_④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을 보낸다
- \_\_\_⑥ 기타( )

6. 운동시간에 혼자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하십니까?

- \_\_\_①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한다
- \_\_\_②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을 주로 한다

7.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구체적으로: \_\_\_\_\_ ) \_\_\_② 없다
8. 운동하는 장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 매우 불만족 \_\_\_② 불만족 \_\_\_③ 보통 \_\_\_④ 만족 \_\_\_⑤ 매우 만족
9. 운동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 매우 불만족 \_\_\_② 불만족 \_\_\_③ 보통 \_\_\_④ 만족 \_\_\_⑤ 매우 만족
10. 운동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 매우 불만족 \_\_\_② 불만족 \_\_\_③ 보통 \_\_\_④ 만족 \_\_\_⑤ 매우 만족
11. 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① 실외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_\_\_② 실내에서 운동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는 점  
\_\_\_③ 운동기구가 부족한 점  
\_\_\_④ 운동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_\_\_⑤ 운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없는 점  
\_\_\_⑥ 기타( \_\_\_\_\_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